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2월 22일(음력 1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 566 호

군종특별교구 지원 만인동참 모금

지관 스님 서명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군종특별교구 지원을 위한 '만인동참'에 서명했다.

1만명의 회원이 한 달에 1만원씩 지원토록 하는 '만인동참'은 군포교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군종특별교구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사업이다.

이날 서명식에는 군종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과 손양호 상임자문위원을 비롯해 각 부(실)장 스님들이 배석했다. 조계종은 10일 군종교구 지원을 위한 만인동참 모금에 주지 스님들의 참여와 신도 동참을 독려하는 공문을 전국 사찰에 내려보냈다. 글 · 사진=조용수 기자

가깝지만 먼 이웃 '사찰과 사하촌'

가까이 더 가까이…

범어사 27일 사하촌 주민 위한 템플스테이… '화합의 자리' 기대

'가깝지만 먼 이웃'. 사찰과 사하촌 주민과의 관계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사하촌 주민들을 포교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가까이서 살다보면 이해관계에 부딪치거나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범어사 아래 마을인 상마부락과 하마부락 주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범어사가 사하촌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묵은 갈등을 풀고 관계개선을 하자고 손을 내민 것이다.

범어사는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 범어사 휴휴정사에 주민들을 초청해 '범어사 사하촌 주민 화합의 장 템플스테이'를 연다.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는 사하촌 주민들의 입장에서 비교적 손님이 없는 월요일을 택했다.

범어사가 손을 내밀자 상마 · 하마부락 상가번영회(회장 김광화)도 "하루 장사를 접고 참가하겠다"고 적극 화답했다. 그동안 사찰소유 토지를 임대해 장사를 해오거나 또는 사찰소유 토지 경계선 등의 이유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관계로 만났던 사하촌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범어사 스님들과 마주앉아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절 밑에서 살아왔지만 불교에 대해 제대로 접할 기회가 드물었던 대부분의 사하촌 주민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에 대해 새롭게 배우겠다"며 기대에 차 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는 대성 스님의 법문, 총무국장 경선 스님을 비롯한 소임 자 스님들과 사하촌 주민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사찰 예절 배우기, 발우공양, 108배, 108염주 만들기, 원효암 순례, 불무도 등도 주민들이 기대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상마 · 하마부락 상가번영회 김광화 회장은 "범어사가 사하촌 주민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이번 템플스테이가 주민들이 범어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범어사가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며 공생과 화합을 찾아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어사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사하촌 주민과 소임자 스님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연수국장 혜수 스님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부터 감싸 안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기획했다"며 "하룻밤 절에서 머물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새 봄, 묵은 먼지 털어내고…

입춘과 우수가 지나면서 대지에는 봄바람이 가득하다. 묵은 먼지와 마음 속 번뇌를 털어내고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다짐이 필요한 때다. 사진은 서울 봉원사(주지 환우)의 봄맞이 법당 청소. 사진=고영배 기자

해인사 고려대장경 '세계기록유산' 추진

문화재청 금년 사업 발표… 폐사지 조사도 실시

해인사 고려대장경 및 제 경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또한 전국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는 폐사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대회의실에서 2006년 주요 사업을 발표하고 지난 1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자연유산 신청에 이어 금년중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고려대장경 및 제 경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묵은 동네' 돌담길과 남제주권역(마라도) 관광자원화 추진,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 초 · 중학교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천연기념물보연구센터 개관,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지자체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평가 등 8가지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이날 2006년 주요 사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폐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폐사지가 많이 있는 경주지역의 옛사찰 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시굴, 발굴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은 물론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복원 및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경주 지역의 폐사지 조사가 완성되면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대북교류 봄바람 불었다

조계종 신계사 단청 · 진각종 온실농장 등 추진

대북불교교류가 활짝 기지개를 폈다.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초청으로 각 종단을 비롯한 불교단체들이 2월 7일~12일 잇달아 방북해 북측과 합의한 결과물이 풍성하다.

조계종은 2월 24일부터 금강산 신계사 터 전각 복원 공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복원대상 건물의 명칭과 위치는 공사가 시작되는 2월 24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어실각의 규모와 형식은 원형 발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으며, 신계사 3층 석탑의 1층 옥개석 교체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단청공사도 4월 4일부터 시작된다. 단청장 김준웅씨의 진두지휘로 대웅전, 만세루, 요사채, 산신각 등에 단청공사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측은 단청 색채를 약한 녹색으로 조채(造彩)해 시공할 것을 합의했다. 불벽(포벽) 전면은 6위 불좌상, 벽체의 오른쪽은 문수 · 보현보살상으로, 왼쪽은 신장상으로 벽화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조불련과 함께 5월경 '제2차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금강산 신계사에서 개최한다. 또한 2월 24일 방한복 2000벌과 온풍기 3대, 냉장고 1대 등 2000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중국 단둥을 통해 북한 신의주와 평양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진각종은 독자적인 교류사업으로 평양 인근 혹은 두루섬 지역에 협영농장의 전 단계로 10여 동 정도의 온실(비닐하우스)을 설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온실농장이 설치되면 조불련 측에서는 '진각농장' 등의 명칭을 달고 화훼, 야채재배, 유실수 생산 등을 통해 조불련 자립도를 높여갈 계획이며, 진각종은 정부 관계부처의 지원을 통해 종자, 농기구, 농업기술 등의 이전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불련의 비누공장 설립 제안을 받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추후 규모와 장소 등 구체적인 실무회의를 거쳐 조불련 측과 다시 협의키로 했다. 또 북측의 평양 낙랑구 소재 땅을 제공받아 건빵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동국대 개교 1백주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 불교문화재 전시회도 동국대와 평불협, 조불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참여불교운동본부**도 3월부터 월 3000켤레씩의 신발을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주일 · 박봉영 · 김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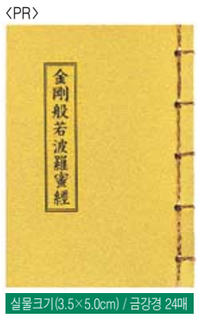
'삼국유사' 특별전

23일부터 서울역사박물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이 올해로 탄생 80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연세대 국학연구원과 (주)현암사가 손을 잡고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삼국유사 특별전-일연 탄생 80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는 4개 파트로 나뉘어 '전시A-삼국유사 들어가기:삼국유사가 걸어온 길' '전시B-삼국유사 만져보기:삼국유사 시대로의 시간여행 체험공간' '전시C-삼국유사 살펴보기:삼국유사 이야기' '전시D-삼국유사 둘러보기:사진과 HD동영상으로 보는 삼국유사' 등으로 구성된다. (02)724-0114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보림선원 조실 묵산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꿈바위불교교육원 공세화 원장


시방세계 9면
포항 천주교 · 불교인 뭉쳤다
군법당서 선지식 대법회 7면
대원 스님의 반야심경 22면
'韓브랜드사업' 이란? 23면
천연재료로 청소를 27면

심검(尋劍)에서 울리는 사자후(獅子吼) 선원장 초청 일요법회
◆ 기 간: 3월5일~4월 23일 총8회 ◆ 시 간: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 장 소 : 법왕루 ◆ 문 의 : 포교팀 02)3218-4820~8


대원스님 현산스님 일오스님 명진스님 현봉스님 무여스님 지환스님 설우스님

봉은사에서는 선종수사찰(禪宗首寺刹)로써 전통과 미래를 다함께 생각해보고, 참다운 마음자리와 생활속에서의 '선(禪)수행'에 대한 감로의 법문을 듣고자 선원장 스님들을 모시고 일요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회차	일 시	초 청 법 사	회차	일 시	초 청 법 사	회차	일 시	초 청 법 사	회차	일 시	초 청 법 사
1	3/5	대원스님(학림사 오등선원장)	2	3/12	현산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3	3/19	일오스님(월명암 선원장)	4	3/26	명진스님(봉은사 봉은선원장)
5	4/2	현봉스님(송광사 전 주지스님)	6	4/9	무여스님(축서사 선원장)	7	4/16	지환스님(동화사 기본선원장)	8	4/23	설우스님(법인정사 선원장)

※ 사정에 의해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수도산 봉은사 회주 성암 종범 주지 설담 원혜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홈페이지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1~5 / FAX 02)544-2141

망실재산환수 대책팀 '가동'

조계종 전국 844곳 공찰 주지 위임받아 착수

올·내년 '특조법' 기간동안 마무리 방침

조계종이 잃어버린 삼보정재 되찾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재무부(부장 정만)를 중심으로 3월부터 산하 사찰들의 망실재산환수를 위한 대책팀을 운영한다. 대책팀은 전국 844곳 공찰의 주지스님으로부터 조사권을 위임받게 되며,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말까지 기본적인 조사작업을 마무리한다.

이전에도 스님들의 개별적인 원력으로 망실재산 찾기노력이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종단이 체계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망실재산이란 역사적 기록 등에 의해 사찰 소유로 추정되지만 소유권이 불명확해지면서 국가나 개인 등에 수용된 부동산. 행정자치부 전산 자료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망실여부가 확인되면 대책위는 해당사찰과 공동으로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되찾게 된다.

지난해 12월 군포 수리사(주지 성견)가 2년간의 재판 끝에 찾은 '무주부동산'을 종단 재산으로 등록했다. 무주부동산은 등기부에 소유주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재판 승소로 사찰이 시가로 16억원상당의 886평을 되찾았다.

2004년에는 파주 봉암사 주지 명고 스님이 3년간의 노력 끝에 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망실재산을 찾아내기도 했지만 모두 개인적 원력차원에 머물렀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 등기 이전절차가 간소화 된다. 특별법은 지난 1984년, 1994년에 이어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이전에는 종단의 행정력 미비로 특별법 시행기간 동안 오히려 토지 브로커들에게 종단 부동산을 빼앗기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계종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대책팀 활동은 유실 또는 관리되지 못한 종단 재산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찰 주지스님들은 대책팀이 제공하는 자료를 면밀히 대조 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02)2011-1752

조용수기자

종단역사 바로잡기 나섰다

조계종 '불교사연구위' 발족, 세미나 · 자료정리 등 계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근현대 불교사 및 종단사를 연구하기 위해 '불교사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불교사연구위원회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연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통해 불교사 연구 사업 자문과 의견 개진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불교사연구위원회는 올 6월과 10월 △일제하의 조계종단(친일, 조계종 성격, 선학원의 역사성) △불교정화운동(이념, 성찰 등) △근대불교의 선원, 강원의 수행 및 교육 △개항기의 문제(산중불교에서 도회지불교로 전환기) △1950~60년대 조계종단과 개신교의 비교 △조계종 종조문제(도의, 태고 등) 등을 중심 내용으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교사연구위원회는 또 성수, 원명, 도천, 수진, 범행, 석정 스님 등 종단 원로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사 관련 구술 녹취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종단, 교단사와 관련된 자료나 서적, 문건, 성명서, 일기, 사진 등을 수집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고종사〉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불교사연구위원으로 법진 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 · 불교학), 고영섭(동국대 · 불교학) 황인규(동국대 · 역사학) 김상영(중앙승가대 · 역사학) 한상길(동국대 · 역사학) 김순석(한국국학진흥원 · 역사학) 이재헌(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종교학) 한동민(수원시 전문위원) 김광식 박사(부천대 ·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 등이, 객원연구원으로 박범석 김성옥 씨가 각각 위촉됐다.

남동우 기자

종단협 사무국장에 수암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관 스님은 2월 14일 신임 사무국장에 수암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수암 스님은 1986년 부산대 재학중 수덕사에서 설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 89년 자운 스님에게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강원을 졸업하고 홍성 용봉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방송·언론 속 불교 왜곡 없어야

조계종 미디어위원회 출범, 위원 7명 위촉



조계종 미디어위원회위원에 위촉된 정호식, 손석춘, 이형범, 이승훈, 이희용 씨(사진 왼쪽부터, 세번째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前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손석춘 씨 등 방송 · 언론인 7명이 조계종 미디어위원회(위원장 동선) 위원단으로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14일 문효선(MBC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정호식(MBC PD), 이강택(KBS PD), 오기현(SBS PD), 이승훈(EBS 정책기획실), 손석춘(한겨레신문사 기획위원), 이희용(연합뉴스 기자)씨 등을 위원으로 하는 미디어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관 스님은 이날 신임 위원들에게 "조계종의 종지가 훼손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사회 문화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 및 언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식, 미디어를 통한 불교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기존 조계종 자문위원회를 미디어위원회로 격상시켰다. 미디어위원회는 향후 부처님오신날 특집프로그램 자문, 전통불교문화 관련 각종 프로그램 자문, 불교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미디어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천주교의 경우 1967년부터 이미 천주교 매스컴위원회를 설립운영해왔다.

글 · 사진=조용수 기자



2월 11일 해인사를 방문한 버시바우 대사는 법전 스님에게 난을 선물했고, 스님도 해인사 관련 서적 등을 버시바우 대사에게 선물했다.

"듣던 것 이상으로 훌륭해요"

버시바우 美대사, 해인사방문 법전스님 예방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2월 11일 법보종찰 해인사를 방문했다. 리사 버시바우 미 대사 부인, 돈큐 심슨 미국대사관 공보 참사관등 7명의 일행과 함께 오전 10시 30분 경 해인사를 방문한 버시바우 대사는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안내로 대적광전을 참배한 뒤 퇴설당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친견했다.

법전 스님은 "한국생활이 힘들지 않느냐"며 미 대사일행을 환대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어느 곳에서나 외교생활은 힘들며, 적응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대답한 뒤 "미국에서 서적관련 연구소에 근무하는 아들로부터 한국의 팔만대장경이 서적과 관련된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직접 보고 싶어 방문했다"고 말했다.

퇴설당을 나온 미국 대사 일행은 홍보관에서 팔만대장경의 제작과정과 역사 등을 담은 8분짜리 홍보영상물을 관람하고 법고시범을 본 후 스님들과 공양했다. 장경판전을 둘러본 버시바우 미 대사는 "미국의 유명한 박물관장이 해인사에 꼭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역시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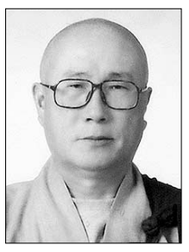
정영 스님 등 '승적유지' 법규위 재심청구 받아들여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1999년 '해종행위특별위'가 제적 처분한 정영 월탄 남현 스님의 재심청구가 적법하다는 심판을 내렸다.

2월 16일 제35차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정영 월탄 남현스님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건'에 대해 2003년 정우 스님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적법판결건과 같은 사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심판청구인들이 특별심사위원회의 재심사자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용주사 주지후보 정호 스님 선출

14일 산중총회서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후보에 정호 스님이 선출됐다.

2월 14일 용주사 신임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선거인 108명이 참석, 산중총회법에 따라 투표없이 단독 입후보한 정호 스님을 새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이에따라 정호 스님은 3월 초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월 12일부터 공식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호 스님은 1973년 전강 스님을 은사로 용화사에서 출가, 75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 수선안거 등 제방 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이다. 선출 후 중앙선관위 진기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도공스님 명의의 당선증을 현장에서 교부했다.

조용수 기자

중앙승가대에 승가학연구원 설립

승가학연구원이 김포 중앙승가대학 내에 설립된다. 조계종 종립 중앙승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지관)은 2월 13일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72차 이사회를 열고 종학연구 목적의 승가학연구원을 설립을 승인했다.

승가학연구원은 불교관련 학술지 발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불교학 연구를 활성화에 나선다.

지관 스님의 이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신임 이사에 당연직으로 교육원 교육부장 법장 스님을 선출하고, 올해 예산 32억 6천여만 원을 승인했다.

조용수 기자

제31기 행자교육원 공고

3월24일까지 교육원 등록해야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연령제한 50세 환원후 첫 적용되는 제31기 행자교육원 입교대상자 등록을 공고했다.

올 8월로 예정된 제31기 행자교육원 입교대상자는 3월 10일까지 입산해야 한다. 입교를 원하는 사람은 교구본사나 교육원에 관련서류를 3월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02)2011-1800

남동우 기자

종단발전 공청회 연다

화엄회 3월3일 개최

조계종 중앙종회 화엄회(회장 성직)가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종단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불교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단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다. 화엄회는 공청회 결과를 다양한 종책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용수 기자

징계자 사면·경감·복권의 정례화 시행 종책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제32대 집행부는 종정 예하의 뜻을 받들어 징계자에 대한 사면 · 경감 · 복권을 정례화하여 추진 ·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승려로서의 본분과 자질에 어긋나고 종헌 종법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하여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철저히 수행정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비위 사실로 인한 징계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한편,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 정진토록 하여 수징자에게 참회와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징계 결정 이후에도 징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체제를 가동하여 그 어떤 허물이 있는 자도 종단의 한 구성원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시기나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징계 당사자의 신청과 해당 기관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정기적으로 사면 · 경감 · 복권 절차를 시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징계자 사면 · 경감 · 복권의 정례화와 더불어 이후 승려 본연의 위의를 망각하거나 종헌 종법을 위배한 자에 대하여 더욱 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합당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종단의 징계와 사면 경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승가 위의를 바로 세우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합니다.

위와 같은 제32대 총무원 집행부의 결단에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한 전 종도들의 넓은 이해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불기 2550(2006)년 2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 관

불기2550(2006)년 부처님오신날

정기 사면 · 경감 · 복권 심사 신청 안내

사면 · 경감 · 복권에 관한 제32대 총무원의 정례화 추진방침에 따라 금년 사면 · 경감 · 복권의 심사신청 요건 및 절차를 공고하오니, 해당 승려는 아래를 참조 하시어 기한 내에 심사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시 행 명 • 불기2550년 부처님오신날 정기 사면 · 경감 · 복권

▣ 신청자격 • 1999년1월28일 이전 본종호계원으로부터 제적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징계집행 중이거나 복적 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005년12월31일 이전 본종 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10년 이하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징계집행 중인 자

▣ 제출서류 • 징계확정 이후 현재까지 수행이력서 1부(현 거주지 및 연락처 필히 기재)
• 신청 당사자의 호적등본(원적포함) 1부
• 심사신청 청원서 1매 • 반명함판 사진 1매

▣ 신청기간 • 2006년 2월20일부터 동년 3월10일까지(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 신청서류 접수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 02)2011-1834~1838 / Fax 02)735-0613

정기 사면 · 경감 · 복권 시행의 참조사항

▶ 사면 · 경감 · 복권은 종정예하의 고유권한으로서 종헌 · 종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총무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종회의 동의 후 종정예하께 품신 · 재가 후 시행됩니다. 이에 부처님오신날 이전 중앙종회 동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 시행이 다음해로 유보될 수 있습니다.

▶ 위 신청기한 내 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한 당사자에 대하여 호법부의 실질심사가 선행되고 총무원의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금번 시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호법부에서 자체 실질심사 후 시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기 2550(2006)년 2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정부 새만금환경보고서 은폐

새만금국민회의, 자료 입수 공개…소송에 영향 줄 듯

새만금의 중요성과 물막이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우려한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2004. 6)'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압력에 의해 은폐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새만금 소송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이하 새만금국민회의) 소속 환경단체들은 2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이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를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새만금 갯벌이 우리나라 주요 갯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생태특성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 방조제로 인해 저서생물과 조류 서식지가 감소되고 염수와 담수의 유출입 패턴이 변화돼, 갯벌에 의존하는 60~70%의 외해 어종의 생산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 공사가 완료될 경우 저서생물의 대량폐사와, 이들을 먹이원으로 하는 도요 · 물떼새의 지속적인 도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환경부 차원에서의 방조제 내측수역의 생태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만금국민회의는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되었으나 의견이 묵살 은폐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이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환경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에 대해 사태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보고서를 묵살 · 은폐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계 인사들은 종교환경회의 주최로 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를 열었다.

400여 종교인들은 "3월 24일 최종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사회 · 종교 · 환경단체, 어민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화해와 상생을 위한 대화는 공사 강행만을 주장하는 정부와 전북도에 의해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며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생명의 경외감을 상실해 가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화해와 상생의 자세로 새만금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2월17일 열린 '새만금을 살리기위한 범종교인 기도회'에 참석한 세영 스님을 비롯 종교인들이 행사를 마친 뒤 서울 종로 인근을 돌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사진=고영배 기자


2월17일 열린 동국대 서울캠퍼스 졸업식에서 불교대 졸업생들이 정각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종립대 "졸업 축하합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를 시작으로 불교 각 종립대학교가 졸업식을 잇달아 개최했다.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2월 17일 본관 중강당에서 200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77명, 석사 565명, 학사 2462명 등 총 3104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일 문무관에서 졸업식을 진행했으며, 중앙승가대학교는 22일 오후 2시 본관 4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은 24일 오후 2시 대학 내 설법전에서 제23회 졸업식을 거행한다. 이날 불교학과 범패학과 불교미술학과 승가학과 등 4개 학과에서 총 83명이 졸업의 영예를 안는다.

진각종립 위덕대학교는 23일 오후 2시 지혜관 앞 광장에서 학위수여식을 봉행한다. 남동우 기자

NGO 배움터 생긴다

현대시설 갖춘 만해교육센터 25일 개관

불교NGO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배움터가 생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시민사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중구 장충동 소재 우리함께회관에 130평 규모의 만해NGO교육센터를 2월 25일 오후 2시 개관한다.

만해NGO교육센터는 1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멀티형 대교육장과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도형 소교육장, 자연친화형 휴게시설 등을 갖췄다. 또 최신형 빔프로젝트, 실물화상기, 핀보드, 슬라이딩 그린보드, PDP 노트북, 실시간 DVD 녹화시스템이 가능한 카메라 등 첨단 기자재도 마련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만해NGO교육센터와 현재 추진 중인 인재양성 교육시스템을 결합해 불교전문인력 양성에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광서 상임대표는 "배움터 개관을 계기로 불교NGO의 질적 성장과 사회적 회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북관대첩비 3월1일 北 간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반출된 뒤 100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3월 1일 북측에 전달된다.

북관대첩비 환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일불교복지협회장 초산스님과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원웅 의원 등은 2월 13일 개성에서 북한측 김석환 북관대첩비되찾기대책위원장 등과 만나 현재 경복궁에 야외 전시하고 있는 북관대첩비를 3 · 1절에 맞추어 북측에 인도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관대첩비를 원위치에 복원한 다음, 그 결과를 남측에 통보하기로 하는 등 5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전문분야 강좌 '눈에 띄네'

전국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3월초 개강

전국 약 200여 개에 이르는 불교대학이 일제히 신입생 불자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초심자를 위한 입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한편 신도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주야간으로 실시한다. 특히 불교대학 학사과정 중 간화선 실참수행이 포함돼있어 눈길을 끈다. 5일 개강하는 부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도 간화선 특별강의를 하고, 경전반에서는 <금강경> <육조단경> <서장> <법화경> 등을 심층 강독한다. 부산 여여선원 불교신행학교는 불자신행생활, 의식생활, 참회기도방법, 사불사경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2월 22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토회 정토불교대학은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정진, 수련과 특강, 봉사활동 등의 특별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포함된 교과과정을 진행한다.

불교와 인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도 함께 갖출 수 있는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한 곳도 여럿 있다. 동방불교대학은 불교학과와 승가학과는 물론이고 범패학과, 불교미술학과를 2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옥천범음대는 상주권공과, 각배과, 영산과, 바라춤과 불교의식각론 등의 강좌를 개설했다. 총 3년 과정이지만 바라춤과 의식은 1년 과정으로 배울 수 있다.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기초교리, 불교사, 어린이 법회운영 프로그램의 실제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담레크리에이션, 구연동화, 종이접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전문지도자과정을 새로 운영한다.

대구 경북불교대학은 서예, 다도, 일본어 회화, 수지침 등의 취미교실을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산 동국불교전법대학은 전법사 과정을 운영하고 4년 동안의 정규과정에는 불교영어와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강좌가 포함돼있다.

<전국불교대 입학안내는 붓다뉴스에>

이은비 기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개명 유보

충남대, 법명 빼려다 네티즌 · 동문 · 학생 반발

기증자의 법명을 따 명명된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을 '국제문화회관'으로 개명하려던 충남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충남대(총장 양현수)는 2월 14일 "최근 학내외의 부정적인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의 명칭 변경을 유보하고 충남대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재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남대는 2월 16일 열리는 학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의견 재수렴 절차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진혁 충남대 정책홍보실장은 "故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재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최근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3월부터, 기부자 이복순 여사의 법명인 '정심화'를 떼어내고 '국제문화회관'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가 네티즌, 동문, 학생 등으로부터 "숭고한 기부정신을 저버렸다"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박봉영 기자

지리산 햇빛발전소 건립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친환경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남원 실상사 인근 산내지역에 햇볕과 열을 이용한 햇빛발전소가 건립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생명파괴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안 없이 써왔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리산생명문화연구원의 지붕에 '지리산 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2월 25일과 3월 4일 각각 실상사와 서울 인드라망교육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2)576-1886 박봉영 기자

불교계 노인복지시설

속초에 2동 건립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신흥사복지원은 강원도 속초 노학동에 '반야실비노인요양원'과 '반야실비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3월 운영에 앞서 입소자를 모집한다.

반야실비노인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 50여명이 입소 가능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다. 반야실비전문요양원은 치매, 중풍 노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지어진 시설로 강원도 내 복지시설에서는 최초로 건립에만 18억원이 투여됐다. (033)635-9445 이은비 기자

황우석 사건 진행상황 청취

22일 범불교 국민연대

'황우석팀 연구 후원을 위한 범불교 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 법타 · 철안)'는 2월 2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황우석 박사팀 연구원으로부터 황우석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황우석 범불교 국민연대 24교구 본사 공동대표단 회의 및 사건 진행 상황 보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타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에게 이 사안의 실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포교사단, 4개원 코스로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은 3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간호하는 케어복지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매주 화,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사회복지개론과 노인복지론, 케어개론, 미술치료, 동작치료, 원예치료 등의 과목이 개설되며,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혜도 스님과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김영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포교사들이 소정의 자격도 취득하고 포교현장의 전문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과정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02)737-7588 유철주 기자

國內最古 統一新羅 木造佛像 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 기도 법회

천 년의 비밀을 풀어놓고 우리 곁에 오신 두 분 비로자나부처님이 다시 천 년 후의 만남을 기다리며 온 몸 가득 불자들의 희원을 담아 금빛 광명으로 새롭게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야산 빛으로 법신을 나투시고 해인삼매로 법계를 거두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봉안하고 향수해의 눈을 드리는 법연을 마련하여 광명기도를 바칩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 되는 자리, 그 곳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취 없는 자리입니다.
광명기도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리를 찾아 떠나는 마음 길의 등불입니다.

모든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포용의 한 마당을 여는 광명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빛나는 몸과 마음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개금전 부처님

- 입 재 식 : 불기 2550(2006). 2. 17. 金. (음력 1. 20) 오후 1시
- 법회기간 : 불기 2550(2006). 2. 17. 金. (음력 1. 20) ~ 9. 21. 木. (음력 윤 7. 29) 217일간
- 장 소 : 해인사 보경당 ☎ 055)934-3022
- 기도시간 : 평일 1일 4회 기도 (새벽 3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금 · 토 · 일 철야 기도 (밤 9시 ~ 새벽 3시)
- 기도내용 : 천수경, 보현행원품 독송, 광명진언 108번, 축원
- 동 참 금 : 회향일까지 217일 기도 300,000원 / 1일 기도 10,000원
- 기도문의 및 접수 : 종합접수실 ☎ 055)934-3105~6 / 팩스 055)934-3107
  이메일 접수 light217@hanmail.net

※ 팩스 및 이메일 접수를 환영합니다. (기재사항 : 주소, 전화, 가족사항, 발원내용)

- 광명기도 신청 계좌 : 농협 843174-51-013950 (예금주 : 해인사)


개금을 마친 비로자나 부처님

法寶宗刹 海印寺 주지 현응 합장

사찰 담장 낮추고 보육공간 확대 개방해야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불교계의 역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안에 따르면 약 20조원의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절반에 이르는 9조7762억원이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에 집중돼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종교계는 2005년 6월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교를 연합해 ‘저출산고령화 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개신교가 주도했다. 올 1월에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관계분야의 전문가들은 개신교의 이렇듯 발 빠른 행동은 정부의 예산 집행을 선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복지를 통한 종교 이미지 제고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불교계는 ‘전문인력 부재와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현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과 현주소를 살펴봤다.



자녀와 함께 서울 조계사 임시법당을 찾은 김민주씨(42)와 캐서린(38). 그들은 “아이들을 위한 보육·놀이공간이 없어 자녀와 함께 절에 오면 정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



1월 20일 개원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동요를 부르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어린이집은 자녀를 둔 인근 직장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웃에게 울타리 낮춘 교회

2월 10일 오후 4시 여의도순복음교회. 2~7살 정도 아이들 50여명이 보육교사의 반주에 맞춰 열심히 동요를 부르고 있다. 여름성경학교 기간도 아닌데 평일에 웬일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지도받으며 간식까지 먹고 있을까? 바로 1월 20일 문을 연 ‘여의도순복음어린이집’의 모습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발맞춰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을 개원해 경제형편이 어려운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막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어린이집은 총면적 290평으로 제1교육관 2개 층을 리모델링해 만든 어린이집이다. 보육대상은 생후 10개월~7세까지의 미취학 영유아이며 운영시간은 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까지다.

이곳에 아들 다성이를 맡긴 최미정씨(서울 서초구·35)는 매일 아침 다성이와 함께 집을 나선다. 직장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인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직장어린이집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이가 아플 때 잠깐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

최씨는 독실한 불교신자지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종교에 관계없이 근처 직장인을 위해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다. 최씨는 돌도 지나지 않은 다성이를 맡기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친절한 선생님 덕택에 지금은 만족하고 있다.

종교를 가리지 않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 관계자는 “기독교계는 1월 20일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교회 울타리 낮추기 운동’을 시작했다”며 “이 운동은 어린이집 시설을 비기독교인에게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일부 교회가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이미 150개 교회가 참가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기독교계, 정부예산 배정 선점

사실상 불교계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때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민연대’의 발족이 있었던 2005년 6월부터다.

이 연대는 불교여성개발원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정사역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발족에 즈음해 불교계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 전개와 정부가 각종 사회제도를 마련하도록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아이를 마음놓고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현안에 대한 종단의 시스템 부족과 전문인력 부재,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아직까지 실무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불교여성개발원이 내놓은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사찰 내 놀이방 및 보육시설 확대 홍보 ▲저출산고령화대책 연구전문위원회 구성 ▲혼인준비교실 프로그램 설립 ▲중장년 여성보육도우미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전문인력 부재·예산부족 이유로 방치
기독교계, 조직 갖추고 문제해결 앞장
연구좇 구성·예산 지원 법제화 선행돼야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과 불교여성개발원이 역점을 두고 정책입안 작업을 했던 대목이 바로 사찰 내 놀이방 및 보육시설 확대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구전문위원회 구성이다.

불교여성개발원측은 사찰 내 놀이방 및 보육시설 구축 계획안을 조계사에 건의했지만 예산부족과 사찰 내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단에 건의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구전문위원회 구성안 역시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이처럼 불교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뭘까. 일차적으로는 종단 산하기관으로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주관하고 있는 불교여성개발원과 종단, 불교사회복지재단, 일선 사찰 스님들 간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불교여성개발원 이화 사무국장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이웃종교는 이미 정부로부터의 정책과 예산 배정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복지시설로 말미암아 포교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이 사무국장은 “부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있으나 사찰 공간을 활용해 ‘복지와 포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는 사찰이 없다며 스님들의 포교와 복지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 정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인구감소, 불교계에도 심각한 타격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계속될 낮아질 경우 2100년에 국내인구는 2천여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수 축소로 인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질 뿐더러 군사·외교적인 역량도 약화돼 국가위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구가 감소될 시 불교계도 심각한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신도수가 줄면 사찰 재정 압박은 물론 그와 맞물려 포교에도 비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 포교와 청년층의 불교 인구 감소로 미루어 짐작할 때 불교계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불교계가 함께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선점효과와 유아복지로 인한 불교이미지 제고 및 새로운 포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지난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세계 평균 2.69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선진국 평균 1.56명에도 밑돈다. 출산율 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일본도 1.32명으로, 우리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7.2%에서 2010년이면 10.7%,2020년 15.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 3명당 노인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셈이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비율이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급속한 출산율 저하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 애를 많이 낳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는 양육부담이 첫번째 이유로 꼽힌다.

외국의 저출산 대책은?

그렇다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 프랑스의 경우 193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두 자녀 가정은 매달 108유로(약 14만원), 세 자녀 가정은 매달 248유로(33만원), 세 자녀 이상은 추가로 140유로(19만원)가 주어진다. 또 출산 보너스(800유로·107만원)와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3세까지 매달 160유로(21만원)를 지원한다.

독일은 1990년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공포하면서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 시설 등을 오전·오후·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세계최초로 임산부에게도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신 6개월 미만 임산부에게 9230엔(약 9만원), 6개월 이상 임산부는 1만 3960엔(14만원)을 주고, 산모에게는 8580엔(8만 5000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찰에 놀이방·보육시설 갖춰야

각 종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그 종교의 사회적 위상은 물론 포교(선교)전략과 맞물려 있다. 개신교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우선 불교여성개발원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구전문위원회 구성 ▲사찰 내 놀이방 및 보육시설 유치 ▲중장년 여성보육도우미 교육양성 일자리 창출 등에 종단이 적극 개입해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조계종 뿐 만아니라 ▲범종단 차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제화 등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직장에 다니는 불자여성들에게 보육문제가 시급한 만큼 불교계복지관과 도심사찰을 활용해 보육기능을 확대해 노동시장에서도 불자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조계종 총무원의 관계자는 “현재 불교계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불교여성개발원 한 곳 뿐이다”며 “총무원 기획실과 사회부, 포교원, 불교여성개발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이 현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획취재팀=한명우·노병철·유철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모집 공고

조계종 인증 최우수 강원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에서는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시대를 이끌어 갈 학인스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방부바랍니다.

모집학과
치문과 ○○명, 사집과 ○명

준 비 물
가사(오조 대가사), 장삼, 발우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2. 승적사본(총무원발급)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발급)
5. 은사스님 추천서(각 2부)
6. 사진4매(사미의제, 대가사 복장)
7. 입학금 : 20만원

전형방법
· 서류접수기간 :
2006년 3월 20일 ~ 25일
(음력 2월 21일 ~ 2월 26일)
· 서류심사 및 면접 : 3월 25일 오후 1시 감로당

문 의 처
055)384-2035(지객스님, 원통방) · 055)383-2363(강원, 감로당)
055)382-7182(종무소 교무국)

불기 2550년 2월 일

영축총림 통도사 운영위원장 怡山 玄門 · 학장 慧嚴 友眞

2006년 불교다도학과 신입생 모집

1. 개설취지
“불교와 차, 차와 선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다선일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불교와 차중 어느 하나만 잘 안다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의 생활화와 다선(茶禪)의 깨달음을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고, 이를 통해 불교포교사 다인을 양성하고자 함.

2. 교과목

과 정	요 일	과 목	지도교수
3년과정 (포교사)	매주(화) 오후 2시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유럽차문화사 제다학, 심평, 육법헌공다례 사찰다도법, 차수행법 불교학개론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전열교수 지운스님 적경스님
1년과정 (법 사)	매주(화) 오후 4시30분	다경, 다신, 다부, 대관다론	진월스님 유 건 집 짱유화교수

3. 개강일시
2006년 3월 7일(화) 오후2시 포교사과정
2006년 3월 14일(화) 오후4시30분 법사과정

※지원자격:법사과정 지원자는 포교사과정수료증 및 다도수료증(2년이상) 제출

2006년 불교한문학과 신입생 모집

1. 개설취지
한문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 고전과 한문 불교경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문의 적용과 한문의 독해력 배양이 필수가 된다. 국제화, 세계화되는 중국어의 기본인 한문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2. 개설학과
⊙불교한문학과(3년과정) ※정규반.통신반

교과목	· 한학연구입문 · 한자학원론 · 어순으로 푸는 한문해석 · 설문해자 · 중국고전① · 중국고전② · 한국고전① · 불교경전① · 불교경전② · 대장경과 역경사
지 도	· 심경호교수(고려대) · 황안웅교수(원광대) · 김형중(동대부고 교법사) · 심재동교수(동국대) · 무진장스님

3. 개강일시
2006년 3월 9일(목) 오후7시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국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전문성 확보 자립에 도움줄 것

보각 스님, 경남 고성에 장애인 예능학교 3월 개교

3월, 장애인들에게는 봄꽃소식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 예능학교(가칭)가 3월 초, 경남 고성에 문을 열기 때문이다.

경남 고성군 배둔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희망촌을 운영 중인 보각 스님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서각, 불화, 서예, 공예 등을 교육하는 장애인 예능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준비에 한창이다.

2월 말 고성장애인협회와 함께 발기인 모임을 갖고 3월 초 개강을 서두르고 있는 보각 스님은 고성 구만에 마련된 400평의 부지위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청에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은 비닐하우스의 작업장을 교실로 대신하지만 강사진은 모두 준비돼 있는 상태. 또한 4~5개의 방을 마련해 4인 1실 기준으로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는 숙식도 제공하게 된다.

1년이나 2년 과정의 장애인 예능학교는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면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있으며 연령이나 성별에도 제한은 없다. 30명의 교육생을 모집중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의 대학진학률이 매우 낮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기

서각·불화·서예·공예 등 교육
20여명 숙식 위한 방도 마련
과정 이수하면 취업 알선도

회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장애인 예능학교 설립은 장애인들의 전문성 확보와 자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년이나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스님이 운영하는 공방에 일자리를 마련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7년 전부터 장애인들을 고용해 일해 본 경험이 있고, 현재도 스님이 운영중인 한국불교예술원에서 5명의 장애인에게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은 자립의지만 있다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베트남 포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베트남의 한국사찰인 관음사 불사에도 열정을 쏟았던 보각 스님이 장애인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스님이 호흡곤란을 겪는 기관지 장애인으로 '내면 중증 장애 2급'의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스님은 기도와 정진으로 장애를 상당히 극복했고 이번 장애인 예능학교 설립도 장애인들에게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결단을 내렸다.

보각 스님은 "장애인의 80% 이상이 성인이 되면서 교통사고나 각종 질병으로 장애를 입는 후천 장애인인 만큼 언제 어떻게 장애를 입게 될지 모른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자립을 돕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055)673-1480 **천미희 기자**

"청년 불자들 활동에 지원할 것"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 이취임식



불혹의 나이를 맞이한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이하 대불청 부산지구)가 청년불교 운동의 미망을 걷어내고 새 희망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2월 11일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제26대, 27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진 대불청 부산지구는 27대 회장단 취임과 더불어 1만 청년전법단 결성과 제25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부산 개최 등으로 청년불교운동의 변화를 다짐하는 발원의 자리를 가졌다.

손정현 27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청년 불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대견해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낼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수행하고 실천하는 청년으로 지혜와 공덕을 두루 갖추어 부처님의 전법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부처님 가르침 애니메이션으로…

대불어 홈피 구연동화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아버지와 아들은 날이 저물어 괴물이 살고 있다는 빈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그곳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야차가 살고 있었죠…"

그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야차와 재채기'라는 이 이야기를 비롯 언제든 어디서든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옛날이야기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불경속의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난 구연동화로 들려준다.

바로 사단법인 동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의 홈



대불어 홈페이지의 '구연동화로 듣는 부처님 말씀' 코너.

페이지(www.dongryun.net).

이미 2002년 플래시 애니메이션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던 대불어가 2006년 3월부터 '구연동화로 듣는 부처님 말씀'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불어 홈피의 어린이강원에는 7편의 구연동화와 3편의 찬불가를 제작해 놓고 있다. 이들 구연동화들은 2005년 열린 제1회 구연동화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만든 것들로 '호미를 먹는 쥐' '코끼리 왕과 사나이' '동물 세 친구' '야차와 재채기' '황금거위의 깃털' '대답하는 바위' 등 반짝이는 재치와 지혜, 게다가 감동까지 곁들여져 있다. 이 모든 동화들은 본생경, 백유경 등 경전 속 이야기들로 2500년 전, 쉬운 말씀으로 중생들의 무명을 거두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 귀를 솔깃하게 한다. 또한 좋은 벗 풍경소리와 함께 제작한 '썸머 드림 캠프', '돼지임금' 등의 찬불가도 제작해 구연동화와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대불어는 3월부터는 매월 2편의 구연동화와 찬불가를 제작해 업데이트 시키는 한편, 시디로 제작해 월간지<연꽃>과 함께, 세계 10여 개국, 그리고 전국 1만2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스를 공개해 교육기관 홈페이지, 각 사찰 홈페이지, 미니홈페이지 등 원하는 곳에도 누구든 퍼갈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와 영어로 된 버전 제작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일훈 대불어 기획팀장은 "이솝우화보다 재미난 이야기들이 불경 속에 넘쳐난다"며 "불경속의 이야기를 동화로 들려주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사업은 넘쳐나는 유해 정보 속에서, 어린이들의 심성을 맑고 밝게 길러주는 옹달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불어가 매월 두 편의 애니메이션과 찬불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드는 비용은 연간 1300만원에서 1500만원. 포교원에서 지원받는 연 400만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녹음비용 절감을 위해 구연은 구연동화대회 수상자들의 모임인 불교구연동화회 회원들이 도맡고는 있지만 보다 나은 음질과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재원 확보에 고민이 많다.

정 팀장은 "방대한 불교경전이 결코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며 "구연동화나 찬불가로 쉽고 재미나게 불교를 알리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인터넷 공간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홈피 어린이강원에 경전 구연동화 서비스
해외 무료배포 위해 영어버전 제작 계획

부산 선암사, 대주민 봉사 펼쳐

인근 25개동 불우이웃에 쌀·생활비 전달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던 부산 선암사(주지 원범)가 신임 주지 원범 스님 취임이후 갈등을 말끔히 해소하고 주민들을 찾아나섰다.

선암사는 선암사가 위치한 부산진구 관내 25개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세대를 각 동마다 5세대씩 선정, 매월 2개동 10세대를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다.

첫 방문지로 부암동을 선정한 선암사는 2월 16일 부암동 내 5세대를 방문, 각 가구마다 20kg 쌀 한 포대와 20만원의 생활비를 전달했다.

특히 선암사 총무 지범 스님과 원효봉사회 회원들은 가정을 방문,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해주고 전기 제품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해 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선암사는 매월 2개동씩 차례로 방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파악하는 한편 원효봉사회를 10개 팀으로 나눠 청소, 밑반찬 등 대사회적 봉사활동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감로사의 '특별한 천도재'

생명공학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 영혼 위로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2월 12일 생명과학 연구 과정에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한 특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정초 7일기도 회향과 더불어 봉행된 천도재는 정초기도 회향일과 정월 대보름이 겹쳐 1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날의 천도재는 최근 황우석 박사 연구 재개와 관련 특허권 사수라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간과되고 있는 생명공학 연구 과정에서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의식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 같은 천도재는 생명공학 연구가 대다수 국민들의 무병장수와 안녕을 위한 연구인만큼 실험 과정이나 연구과정에서 희생된 쥐, 개, 돼지, 소 등의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은 "실험에 희생된 동물들이 억울하게 죽어 결국은 원혼이 되어 구천을 떠돌게 되므로 우리 모두는 이 원혼들을 달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황우석 지지 부산시민연대 촛불제



'황우석을 사랑하는 부산 시민연대'는 2월 11일 부산역 광장에서 '황우석 진실규명 연구재개 범불교연합회', '황우석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연합' 등과 연대해 황우석 박사 연구재개를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오후 6시경 부산역 광장에 모인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은 황 박사의 연구재개를 지지했으며 줄기세포 관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은아 기자**

청소년 심성계발 위해
명상 프로그램 활용방안 검토

부산 교육계가 청소년들의 심성 계발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명상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 교육청이 2월 23일 오후 2시 롯데호텔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주5일제 토요휴업일 수업 세미나'에서 부산 우곡선원의 우곡심성개발교육원의 김혜경 교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김교장은 주5일제 수업 시행 초창기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꾸준히 실시해오며 호응을 얻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교장은 명상 사례 발표를 통해 주5일제 수업의 효과와 지향점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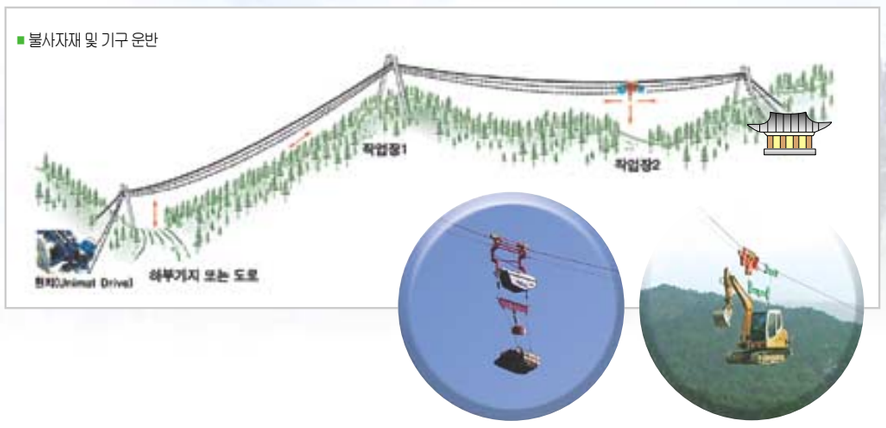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및 주5일제 수업 담당교사 250여 명, 토요휴업일 시행기관 관계자 200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깊은 산속, 사찰 불사 운송비 걱정 끝!

자연 훼손 없이 자재, 작업기구 운송 - 기존 운송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 험준한 산악, 다리가 없는 강 건너 등 운송비용 부담으로 불사를 하지 못했던 사찰에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도 불사 자재, 기구등을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 불사자재 및 기구 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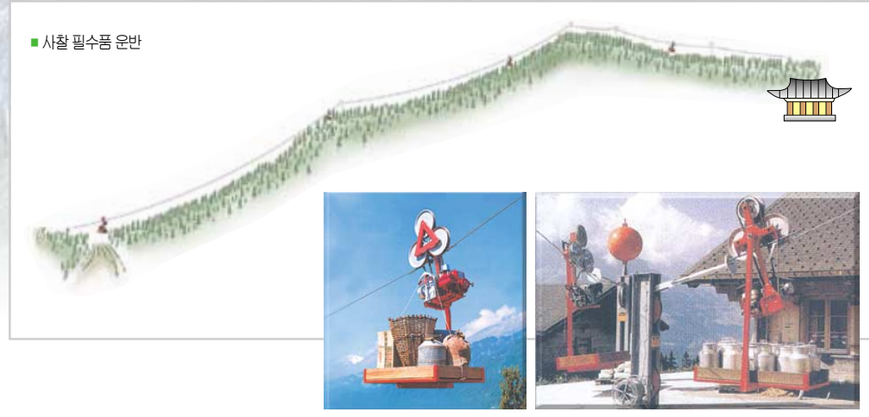
생 산 성 : 최고의 운반속도(10m/sec). 최고의 운반중량(6톤/회). 신속한 설치, 해체(설치 3주이내, 해체 10일 이내). 연속운전 가능
안 전 성 : 완벽한 브레이크시스템(3중 시스템). 간편한 조작기능. 정밀한 운전. 단순한 설비. 80년 이상의 사용실적
범 용 성 : 산악, 험준한 지형등 지형여건에 구애받지 않음. 대규모 사찰 신축 및 개축 불사
환경보호 : 어느 지형조건에서도 최적 설치(환경훼손 최소화). 지형에 적합한 설치로 산림보호 최우선. 민원을 유발하지 않는 설치

아직도, 사찰 필수품을 등짐으로 운반하십니까?

사찰에서 항시 사용하는 물품을 한번 설치로 언제든지 영구적으로 자동 운송합니다

도보로 운반하던 사찰 필수품(생활용품, 난방연료, 스님 용품 등)을 한번설치한 기구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사찰까지 운반합니다. 자연훼손 및 민원 없이 설치 가능하며 수일이내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사찰 필수품 운반



사용대상 : 도로가 없어 도보로 물품을 운반하는 산속 사찰
용 도 : 사찰 필수품 등 1회 200, 400, 500kg이하의 경량물 자동 운송
특 징 : 운송장비 자체의 구동장치에 의한 이동. 한번 설치로 영구사용. 간단한 설치 및 해체 가능. 수일이내 설치가능

스위스 위센장비 80년 노하우로 한성에스티가 모든 안전 및 책임을 보증합니다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며, 불사관련 견적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주)한성에스티 Hansung S.T Co., Ltd 서울 강남구 포이동 163, 영화빌딩 201호 전화 02)574-9504(代) 팩스 574-9769 / 홈페이지 www.hansungst.com

“고령군 구석 구석 연등 밝혀야죠”



고령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룡사 주지 법륜 스님.

반룡사 주지 법륜 스님 고령불교 살리기 동분서주

법륜 스님이 경북 고령군 반룡사 주지 소임을 맡은 것은 7개월 전. 그간 법륜 스님은 불교대학을 개설했고, 경찰불자 법우회의 창립을 이끌었다. 몸무게가 10㎏이나 빠졌지만 보람은 100㎏도 넘는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개강한 불교대학 신입생은 150여명에 달한다. 1기생이 70명이며 나머지는 2기생으로 입학을 요청한 상태다. 1월 3일부터 시작한 수업은 두 반으로 나눠 매주 화 · 수 1시간씩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농촌 지역이고 산골에 위치해 있어 부처님 오신날이나 백중같은 명절에도 50명을 넘지 못하는 법회 인원이 반룡사의 ‘현주소’였다. 고령군은 인구 4만명의 작은 도시지만 70~80%가 불자다. 그런데 고령불교가 이렇게 침체한 이유 중 하나가 대구와 해인사에서 멀지 않은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지역 불자들이 지역 사찰은 외면한 채 대구와 해인사까지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대학 개설 · 경찰불자 법우회 창립
신도회 · 운전불자회 등 단체 결성 계획

그러나 이제 반룡사는 달라졌다. 법륜 스님은 “고령지역 불자들이 고령불교를 일으키고 고령지역 발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많은 고령불자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법륜 스님이 처음 소임을 맡고 한 일은 지역불자를 만나고 마음을 읽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역불자들을 깨우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문을 연 불교대학의 첫 신입생은 3명. 지역 불자들은 하나같이 부질없는 일이라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나섰고, 설득했다.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렸다. 그 결과 12월 30일 50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대학 개강법회를 봉행할 수 있었다.

반룡사는 이렇게 활력을 되찾았지만 갈 길은 멀다. 신도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전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님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지난 2월 초에 30명의 신도들로 구성된 신도회구성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우선 부처님오신날까지 신도회장을 임명하고, 8개면에 지부장을 두는 50명의 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거사림회, 운전불자회, 교직자 불자회, 군청 불자회, 봉사회, 지장회 등의 신행회도 차례로 창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운전불자회는 창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반룡사의 밤을 밝히는 성도절 연등이 고령 땅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밝히는 그날까지 반룡사의 포교대행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법륜 스님의 원력은 누구보다 크다. (054)954-1498

글 · 사진 / 고령=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신상용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 회장

대구 불교계의 크고 작은 행사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운불련) 대구지역회 신상용(52) 회장이다. 운불련 대구지역회 650여 회원의 수장인 신회장은 언제나 주황색 셔츠의 제복을 깔끔히 차려입고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크고 작은 교계 행사에 참여해 운불련 활동을 알리고, 내적으로는 650여 회원들을 화합으로 엮으며 부처님의 제자로 자긍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혹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행사라도 있으면 어김없이 회원들과 함께 교통정리와 질서유지를 도맡아하고, 차안에 비치한 껌 판매 수익금으로 매년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회원화합 운불련 알리기, 지역봉사 앞장
교육·정기법회 통해 최상의 서비스 제공

신 회장은 98년 이후 운불련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반야심경조차 몰랐던 그가 운불련에서 감찰부장, 부회장, 전국연합회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운불련 대구지역회장이며 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자세를 강조하는 불자가 됐다.

특히 2004년 운불련 회장에 취임하면서는 650여명 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다는 신회장은 언제나 ‘하심’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1988년 대리점 운영을 하겠다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대리점 운영이 안 되어 개인택시운전을 취득할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스님들이 일러준 말이 ‘하심’이다. 억울한 마음에 따지고도 싶었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을 밀어내고도 싶었지만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고 참아냈다. 주위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바보냐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이들이 이해하고 따라주기 시작했다.

신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랐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며 미소를 짓는다.

신상용 회장이 취임한지 2년이 지났다. 500명이 안되는 회원은 650명으로 늘었고, 대외적인 위상도 높아져 하루 콜만 5000통이 넘는다.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신상용 회장은 아직 할 일이 많고 포부가 크다.

대구시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택시브랜드로 완전히 정착시키는 일이 남았고, 신축법당 건립과 주유소 충전소 사업추진을 통한 자체 자금원을 만드는 일이다. 주유소 충전소 사업은 시작이 어렵지만 성공한다면 불교포교는 물론 사회복지사업에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심부름이라는 생각에 하루 3시간만 잠을 자고 뛰어다녔지만 보람되다는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가장 고맙고 미안하다. 택시운전이라는 것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인데, 온갖 행사며 봉사활동에 쫓아다니느라 생계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불법을 알게 된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운행 중 반야심경 관세음보살 독경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신상용 회장은 임기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가장으로 충실하겠노라는 소박한 꿈을 꿔본다.

배지선 기자

화북댐 건설 사업비 배정 논란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 성명
“보존대책 없이 철저히 배제”

“군위군은 화북댐 건설에 따른 주변 환경 지원금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마련하라.”

경북 군위군이 고로면 화북댐 건설에 따른 주변 정비 사업비 배정에서 인각사를 제외해 주지 상인 스님이 2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 스님은 성명서에서 “군위 인각사는 화북댐 건설 예정지와의 거리가 불과 1.5킬로미터에 불과해 공사소음과 진동, 먼지 발생은 물론 댐 건설이후의 습도 상승으로 인한 목조건물의 훼손 등의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군위군은 철저한 보존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댐건설 주변 환경 지원금 사업에서 인각사를 철저히 배제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스님은 “군위지역 최고의 문화유적지며 교육문화의 장으로 댐건설 예정지에서도 가장 가까운 인각사를 교육문화시설 정비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지난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수립한 ‘화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인각사를 문화유적지구로 지정해 친환경적으로 보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위군은 “댐주변 정비사업비는 댐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원하는 취지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면단위 자치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했으며, 주민들이 원하고 합당하다면 사업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지선 기자

의성 고운사 본말사주지회의

의성 고운사는 2월 14일 고운사 대웅보전에서 제25차 교구종회 및 본 말사 주지회의를 열고 종무행정 우수사찰을 표창했다.

종무행정 우수사찰에는 정수사(주지 선휴)가 표창을 받았고, 불사부문에서는 대곡사(주지 혜봉)와 각화사(주지 노현)가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40여명의 본 말사 스님과 종무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및 불기 2549년 결산보고, 복지분담금 배정 등도 논의 됐다. 또 개산 1325년을 맞아 4월 22일 경내에서 호국영령들을 위한 위령재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행사는 개산대재기념법회와 불교어산작법학교의 진행에 따른 천도위령재, 안치환, 장사익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로 이어지며, 사진전과 서예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은해사 무료한방진료 실시



2월 15일 영천 은해사에서 무료한방진료가 실시됐다(사진).

지장재일을 맞아 지장전 1000일 기도 800일 법회가 봉행된 날, 법회에 참석한 신도와 지역 청통면 주민의 건강을 위해 은해사가 장소를 제공하고 영천시 보건소와 경산 부림한방병원에서 한의사4명과 간호사 4명이 봉사활동을 나왔다.

은해사 심검당과 승가대학원강당에 마련된 임시진료소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50여명의 신도와 주민들이 검진을 받고 침 부항 등의 처방과 약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주지 추대위원회 발족

4월에 치러지게 되는 차기 동화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동화사 주지 추대위원회(가칭)가 발족했다.

대구 소재사 주지 세정스님과 임휴사 주지 현장 스님을 비롯한 동화사 본 말사 20여 스님들은 2월 15일 대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선거과정에서 우려되는 혼탁, 과열을 방지하고 산중 고유의 대중공사를 통한 승가화합을 이루는 차원에서 도덕성과 수행력 등을 갖춘 주지 후보를 합의 추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

동화사 주지 추대위원회(가칭)는 선거를 하지 않고 산중총회 또는 대중공사를 통해 주지 후보를 합의 추대하는데 노력하고, 경선으로 가게 될 경우 공의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정월대보름 방생대법회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는 2월 12일 ‘정월 대보름 달맞이 방생대법회’를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원로 원명, 동화사 주지 지성,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방생법요식, 달맞이방생의식, 삼재소멸 화합기원 달집점화순 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다.

배지선 기자

감기 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代비법 요/베개


주무시 면서편 안하게 치료完
증상 치료가 아닌 병근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1 : 1 완전 맞춤 치유
양심적 전문의들이 만듭니다
유비닥터스® 02)782-0022

광덕큰스님 추모 일만배 용맹정진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누구나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하고 부처로 살아가기를 간곡히 말씀하셨던 金河堂 光德 큰스님의 원적 7주기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 지혜의 반야바라밀다 사상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뜻에서, 부족하나마 저희 재가불자들이 큰스님의 기일을 앞두고 하루 동안 일만배 용맹정진을 갖고자 합니다.

큰스님의 자비하신 모습과 반야바라밀다의 높으신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불자님들과 새로운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이 번 추모정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큰스님께서는 한국불교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길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의 삶 [보현행원]을 살아가는데 있음을 누누이 밝히셨습니다.

이에 큰스님의 가르침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전법(傳法)으로 바른 믿음을 삼고 전법으로 정토(淨土)를 이루고자 저희 재가불자들이 새로운 각오와 서원으로 마하반야바라밀다 염송일만배 용맹정진을 결행하오니 부디 환희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생명 부처님무량공덕생명 용맹정진하여 바라밀다국토 성취한다.

나무대행보현보살마하살

도피안사 불력법등 금강보살 덕암 박종린 합장

- 일 시 : 2006년 2월 25일(토) 0시부터 - 24시까지(24일 오후 11시까지 도착 요망)
- 장 소 :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대웅전
- 연락처 : 도피안사 불력회 회장 덕암 박종린(016-204-4744),
  총무 반야심 권오영(011-768-8881)

※ 7주년 추모재는 2006년 2월 26일(일) 10시 30분(기일은 양력 27일). 서울 사당지하철 8번 출입구 국민은행 앞에서 오전 9시에 버스출발

3 · 1절 기념법회 안내

안성의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는, 민족의 선각자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龍城祖師의 유훈을 봉지계승하기 위한 대각회 소속의 구국구세 도량으로, 1992년 7월 6일 개산이래 매년 빠짐없이 3 · 1절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각구국구세의 선각자이신 용성조사와 동산 · 소천, 퇴옹?금하로 이어지는 한국불교의 호법정신을 계승진작하여, 길이 중생세간에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경향각지의 뜻 있는 불자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다

불기 2550(2006)년 2월 15일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주지 송암지원 謹白

- 일 시 : 2006년 3월 1일 10시 30분
- 장 소 :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대웅전
- 주 제 : **‘호법이 전법이고 구국구세’**다 (금강경을 중심으로)
  - 부제 : 현각은 전생에 한국의 독립군이었어!
    (만행 ·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2권 85쪽)
  - 법사 : 현각스님(미국인, 화계사 국제선원)
- 연락처 : 031)676-8700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사당지하철 8번 출입구 국민은행 앞에서 오전 9시에 버스출발

군부대서 선지식 초청 법회 열린다

'불법중흥과 호국호법 발원' 주제…천운 · 암도 · 정각 스님 등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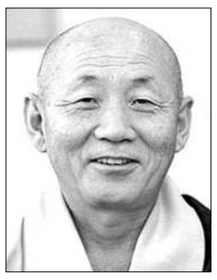
31사단 호국관음사 3월15일부터 8차례

'고승 및 선지식 초청 대법회'가 군부대에서도 열린다.

광주 전남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보병 31사단 산하 군 법당 호국 관음사(주지 범망)가 화제의 도량. 호국 관음사는 오는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요 종교활동시간(오전 10시 30분)에 여섯분의 스님과 두 명의 포교사를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불법중흥과 호국호법 발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서는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3월 12일), 불자가수 송춘희 포교사(19일),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26일), 前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4월 2일),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9일),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16일), 前 조계종 신도회장 박완일 법사(23일),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30일)이 초청법사로 나와 '사자후'를 할 예정이다.


천운 스님


암도 스님


정각 스님

관음사 주지 범망 군법사는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로 신앙 전력화를 꾀하고자, 제방의 덕 높은 스님을 초청했다"며 "이번 법회는 일반대중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군과 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 마당으로 펼쳐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범망 군법사는 "관음사가 자리한 일곡지구는 군부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신도시로 주변에 큰 사찰이 없어, 이번 법회는 장병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호국 관음사는 상무대 이전에 따라 2000년 광주 일곡지구에 건립된 군법당으로, 지역장병과 주민이 함께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국 관음사 : 062) 571-7832

이준엽 기자

스님-종무원 자비행 나서

화엄선우회 창립, 독거노인 등에 봉사활동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종무원들이 지역사회의 봉사 일선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구례 화엄사 사중 스님과 재가 종무원 30여명은 지난 2월 9일 대웅전에서 '화엄선우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소외된 이웃을 직접 방문해 자비행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주지 종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묵묵히 일하는 재가종무원이 사중 스님들과 하나되어 봉사단을 결성한 오늘은, 화엄사 창건 이래 가장 뜻깊은 날이다"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월9일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화엄선우회'.

화엄 선우회는 주지 종삼, 포교국장 대요 스님 등 사중 스님 15명과 재가 종무원 20여명이 전원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청소, 세탁, 반찬 만들기 등의 나눔행을 펼친다. 또한 매월 정기법회에는 종무원 자녀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화엄 선우회 실무를 맡고 있는 고경 사회과장은 "화엄사 합창단, 신도회 등 각종 신행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참여토록 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감로수가 되는 봉사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제주불교문화 개발 청소년 포교 앞장"

제주 관음사 거사림회 출범



제주 관음사(주지 용주)는 2월 15일 시내 포교당(보현사)에서 거사림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총회를 겸한 이날 법회에서 관음사 회주 중원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제주불교 본사인 관음사에 거사법회가 탄생되어 기쁘다"며 "끊임없는 정진과 포교로 제주불교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강원희 회장도 인사말에서 "화합을 우선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해 포교와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청소년 포교, 제주불교문화 개발, 관음사 성역화를 중점사업으로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회장은 현재 제주도4-H연맹 회장, 제주교도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법주사, 신도교육 앞장선다

교양대학 · 신행법회 개최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가 체계적인 신도 교육을 통해 불자들에게 올바른 신행의 길을 제시하는데 앞장선다.

법주사는 2월 25일, 지난해 11월 다시 문을 연 불교교양대학 수료식 및 수계식을 2월25일 봉행하는데 이어 교양대학 졸업생들과 신도들을 위한 '신해행(信解行)' 법회를 개최하는 등 불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1995년 문을 연 법주사 불교교양대학은 신도 감소와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5년간 문을 닫았다가 충북지역 포교인력 배출을 위해 지난해 11월 재 운영하게 됐다.

모집 당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강신청을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끈 교양대학은 올해 총 6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교양대학 졸업생들은 3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열리는 '신해행(信解行) 법회'를 통해 배움과 실천을 이어나간다. 신해행 법회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믿고 이해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자는 뜻에서 마련된 법회로, 사시불공기도와 포교국장 각우 스님의 경전 강의로 진행된다.

각우 스님은 "교양대학과 신해행 법회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신도 교육을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주사 불교교양대학은 14차 교육을 4월 12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한다. (043)543-3615 여수령 기자

고미술 선 그림회 그룹전 2월 22일까지 무등갤러리

광주에서 활동하는 '선(禪) 그림회(지도교수 송광무)' 회원들의 그룹전이 2월 16일~22일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리는 선 그림전에는 만다라, 승무, 부모은중경 등 불교소재의 그림과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선화가 선보인다.

호남대 송광무 교수는 "선화, 민화, 단청, 탱화에 관심있는 회원들이 모여 그림전을 마련했다"며 "우리의 삶과 함께 했던 선화를 대중 속으로 끌어내고자 매년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062-236-2520) 이준엽 기자

섬 속에 절이 있네

부안 위도 내원암


내원암 전경.

홍길동이 택한 서방정토

주민과 고락 함께 해온 유서깊은 도량

변산반도 채석강(격포)에서 뱃길따라 40리, 섬의 형태가 고슴도치 같다는 위도(蝟島)는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에 이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논란의 중심지로 적잖은 사고와 시련을 겪은 섬고을이다.

그러나 파장금 선착장에서 해안선을 따라 달리다보면 가슴 아픈 상처는 사람들의 몫으로 기억될 뿐이다. 위도는 오래전부터 울창한 숲, 푸른 바다와 함께 발 닫는 곳마다 천하 절경을 뽐내며 여여하게 있어 왔다. 그래서 허균은 '홍길동전'에서 이곳을 '율도국'이라 칭하며 '서방정토'로 묘사했다.

조계종 선운사 말사인 내원암(주지 현효, 전통사찰 110호)은 고슴도치 자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자리해 있다. 작은 암자에 불과하지만 위도 주민에게 있어서는 몸과 마음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대부터 대대로 내원암에 의지해 살아왔기 때문이다.

위도에 살았던 이는 모두가 내원암 부처님 전에 기도해 생명이 잉태됐다.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법당 앞 우물물에 몸을 씻으며 참회했다. 생을 다한 후에도 내원암 염불소리에 위안을 삼는다.

지금도 장례 때 곡소리나 상여소리는 '관암보살, 관암보살(관세음보살)'이다. 생활 속에 불교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한해의 액을 담아 바다에 띄우는 '띠뱃놀이(중요무형문화재 82호)'나 마을마다 열리는 당제도 마지막 회향은 내원암에서 한다.

이제는 전설로 남았지만, 위도 팔경의 첫째가 내원모종(內院暮鐘)이다. 아침 저녁으로 울리는 내원암 종소리는 어부들에게 평안과 서정을 심어주었던 아름다운 소리였다.

내원암의 창건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1873년 중수했다'고 쓰인 상량문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다만 대웅전 옆에 천년된 고사목이 서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때에도 사람이 살았던 터였음을 엿볼 수 있다.

대웅전 앞 우물은 위도 최고의 물맛을 자랑한다. 또한 대웅전 지붕보다 큰 배롱나무(백일홍)는 자태가 우람하고 아름다워 위도 최고의 명물로 꼽힌다.

대웅전 왼편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150m 가량 오르면 용왕각과 산신각이 나온다. 바다에서 돌아간 이들의 넋과 혼을 위로하고, 뱃길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기도처(음, 1월 9일 용왕제)이다. 특히 용왕각 앞에 서면 고군산열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장관을 이룬다.

지난 2000년 주지로 부임해 도량불사에 여념이 없는 현효 스님은 "섬의 특성상 신행이 기복에 머무르고 있다"며 육지의 사찰은 물론 신행단체들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내원암**(주지 현효): (063)581-3283
▲**찾아가기**: 부안 격포에서 위도행 배(동절기 1일 6회, 50분소요) - 공영버스로 내원암 하차. 승용차 이용시 파장금 선착장에서 해안도로 따라 깊은금 해수욕장 - 산길로 500m 지점.

랜덤하우스중앙 RANDOM HOUSE JOONGANG 펼치면 보이는 새로운 세상 www.randombooks.co.kr
구입문의 02-3705-0108 | 자금 서점에 있습니다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이 그려낸
청화 큰스님 일대기!

장좌불와, 하루 한 끼, 토굴 수행, 칼날처럼 치열했던 청화스님의 40년 구도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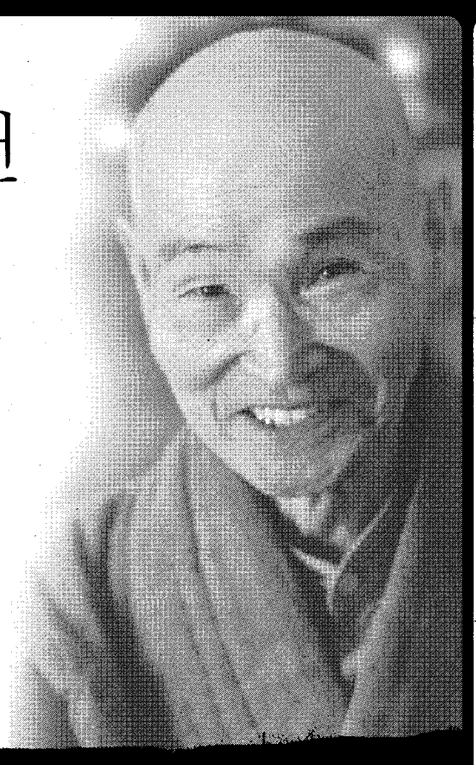
청화 큰스님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다가 가신 도인道人이다. 자리에 눕지 않는 장좌 불와의 수행을 평생 지켜왔던 청화 큰스님. 그는 도道의 실체를 증명한 우리 시대의 선승이자 스승이다.



청화 큰스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소설로 재구성한 뛰어난 소설. 베스트셀러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씨가 '전설적 수행승'이 아닌 '인간적 구도자'로서의 스님을 되살렸다. - 중앙일보

장좌불와, 토굴 수행을 하며 당대의 선승으로 꼽힌 청화스님(1924~2003)의 일대기. 신동으로 주목받던 청화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이후의 칼날 같던 구도의 길을 생생하게 전한다. - 경향신문

청화 큰스님의 족적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살날같은 기대가 허물어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 서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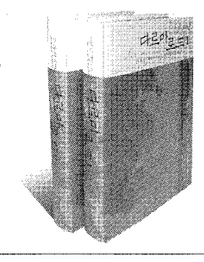
남지심 장편소설 청화 큰스님 1·2
남지심 지음 | 전2권 | 신국판 | 각권 8,500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샘물 같은 이야기
매 순간 행복하게, 매 순간 후회없이 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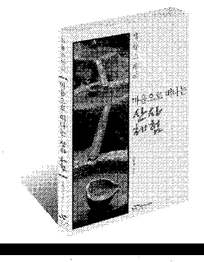
마음 밖으로 걸어가라
정목 스님 지음 | 225쪽 | 값 9,800원

언론과 불교계가 격찬한 최고의 불교 성지 순례기!
진리의 길을 따라 퍼져나간 2,500년 불교 역사의 현장



다르마로드 1·2
조병학 지음 | 각권 400페이지 내외 | 각권 값 32,000원

고즈넉한 정취가 있는 산사로의 여행
전국 21개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완벽정리!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
유철상 지음 | 265쪽 | 값 12,000원

총지종 제10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



총지종 제10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법회(사진)가 2월 17일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됐다. 헌화 및 훈향 정공 의식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효강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제생의세의 정신으로 시대변화에 적합한 교화방편과 포교방법을 마련해 더욱더 중생제도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효강 대종사는 법회가 끝난 뒤 열린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됐던 불단장엄에 대해서 묻자 효강 대종사는 "포교방편으로 불상을 모시는 작업을 종단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지만 종도들의 반대로 현재 벽에 부딪쳐 잠시 유보 상태에 있다"며 "앞으로 승단총회를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강 대종사는 대내적으로 통리원장과 법장원장, 교육원장,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외적으로는 불교방송과 불교TV 대표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불사법요 개정·승직자 교육 강화

총지종 올해 사업계획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사진)은 올해 '불사법요'의 개정과 종조 원정대성사의 탄신100주년 기념사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불사법요 개정의 경우, 밀교경전과 의궤서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밀교종단에 걸맞는 의궤수법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승직자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승직자 순회교육을 더욱 확대해 올해부터는 총지대학원의 학사 일정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내년 총지종 종조 탄신 100주년을 맞아 올해에는 그동안 준비해온 기념사업을 마무리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종조 유품 화보 및 유고집 발간, 종조설법집과 명상용 음반을 제작한다.

이외에도 올해 여름 어린이 수련법회(11회)와 청소년수련법회(16회)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또 전당 불사사업으로, 경북 포항시에 사찰 신축도 추진중이다.

복지사업으로는 교도들을 위한 납골시설과 노인 요양원을 올해 안에 건립한다. 또 상반기중으로 종단의 종무행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각 기구를 존속시키되, 각종 사업을 기획 구상하고 조율할 기획팀을 신설해서 운용한다.

수련회·문화센터 활용 문화포교

삼론종 올해 사업계획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혜광 스님(사진)은 2월 15일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법회를 활성화하고 수련회와 문화센터를 활용한 문화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3월 19일 월악산 월악불교문화센터를 개원해 종단 수련시설과 불교문화센터로 활용한다. 또한 2월 22일 하림각에서 시작되는 좌담법회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좌담식 법회를 개최해 종도들이 함께 모여 종단의 화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4월 11일 창종기념 좌담법회, 6월 종단 수련법회, 12월 1일에는 초대종정 대선 스님 열반 기념법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법회 봉행을 통해 종도들의 결집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체계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이에 법계고시를 정례화하고 종단의 총무원 새청사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혜광 스님은 "올해 우리 종단의 가장 큰 목표는 종도 재교육에 있고 월악문화센터를 마련하는 것도 그 이유중 하나"라며 "올해부터 수련과 문화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화랑좌복 2410채가 5톤 트럭 3대에 실려 강원도 오지부대로 출발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정억순 원장.

정억순 원장, 좌복 2410채 전달

강원도 지역 군법당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에 화랑 좌복 5000채를 기증하기로 한 화랑장학재단 정억순 원장이 1차분 2410채에 대한 전달식을 2006년 2월 14일 경북 칠곡 화랑선원에서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정선진 종책자문위원, 칠곡군 기획감사실 장희우 실장, (사)새생명광명회봉사단 대표 김기원 진주산업대학교 명예교수, 3군단 김민제 군법사, 학군교 김창모 군법사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기원 교수는 경과보고를 통해 "정억순 원장이 7살 때 일본 순사가 놋그릇 등 가재도구를 빼앗아가는 것을 보고 조국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며 "그때 이후로 화랑정신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화랑 좌복 5000채를 기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화랑장학재단 정억순 원장은 "고향을 떠나서 평생 살아왔고 이제 고향에 정착해 10년전부터 발원한 것을 조금 실천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주위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정억순 원장이 기증한 2410채의 화랑 좌복은 이날 5톤 트럭 3대에 실려 강원도 양양, 양구, 홍천 지역의 충용사 용해사 원흥사 봉암사 을지사 용천사 의선사 도솔사 백암사 천불사 대성사 과학화훈련단 제2야수교 등의 군법당에 전달됐다.

나머지 2590채의 화랑 좌복은 부처님 오신날 전후로 경기도 지역 군법당에 보내질 예정이다.

글·사진/칠곡=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일면 주지스님이 2월 12일 최전방 도라산전망대에서 신도들에게 안보현실과 방생법회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군법당 돕는게 진짜 방생"

군종특별교구 전방 법당 위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경기도 파주시 전진부대 일대 전방 지역의 군법당 위문 방생법회를 2월 12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불암사 신도 300여명이 동참해 임진각에서 방생을 한 후 전진부대 호국 전진사를 참배하고 도라전망대를 관람했다.

군종특별교구 출범 이후 군불교 활성화에 대한 원력의 결실로 봉행된 이번 행사는 방생의 주체는 인간이며 군불교활성화의 주체는 불자장병과 사부대중이라는 인식하에 군법당을 돕는 길이 진정한 방생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해 방생법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은 호국 전진사와 도라산 OP 전방 법당에 참배, 500여만원의 불전 보시를 통해 군장병 위문을 대신했다.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앞으로 군법당 위문 방생법회를 자주 가져 모든 불자들이 군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사랑법우회가 2월 11일 호국 정심사에서 창립기념 위문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요

군사랑법우회 호국정심사 위문

군사랑법우회(회장 박재년)가 2월 11일 경산 제2야전수송교육대 호국 정심사에서 창립기념 위문공연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매월 4째주 군법당을 위문한 연꽃선우회 회원들이 모여 만든 군사랑법우회는 군법당을 찾아 위문공연을 펼치기로 서원을 세운 일종의 군법당 위문공연단이다.

군장병등 2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창립기념 위문공연은 경화여고 팀의 '사랑의 포로', 여고생들의 '군인아저씨에게'라는 제목의 위문편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그리운 내 어머니,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군사랑법우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호국정심사에서 위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금강경 백가해 간경 대법회
金剛經 百家解 看經 大法會

한국의 큰스님 백분을 모시고
백일동안 금강경 법문을 듣는 간경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간경(看經) 및 독경 사경수행은 경전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에 배도록 해 궁극적으로 성불로 이끄는 수행법입니다.

◈ 본 간경결제의 법사로는 조계종 원로회의의 원로스님과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의 중진스님, 국내외 대학에서 철학 및 종교학박사를 소지하고 국내외스님과 오랜기간 선원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수좌스님들 이십니다.
◈ 백일법문에 사용하는 경전은 조계종의 소의경전 금강경입니다.

송광사 방장 보성 큰스님 보살계 수계대법회
• 일시 : 2006년 4월 9일 10시 30분 • 장소 : 부루나 포교원 대법당

■ 새벽 기도 : 새벽 4시 반, ■ 사경 및 독경기도 : 오전 10시 반
■ 금강경 백일법문 : 오후 7시 ■ 아비라 참회 기도 :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
※ 백일기도 동안 절에서 숙식을 하며 기도 하실 분은 종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시간 안내
일요일, 국가공휴일, 초하루, 지장재일, 관음재일, 출가재일, 열반재일 부처님오신날 하안거 결제일은 오전 10시반 부터입니다. 그 외의 날은 저녁 7시 법문입니다.

▶ 일 시 : 2006년 2월 26일부터 백일간
▶ 장 소 : 인천 가좌동 부루나포교원(법명사) 큰법당
▶ 문 의 : 종무실 ☎ 032)577-5108

인천불교대학 제 5기 및 기초교리
34기 신입생 모집 안내

인천불교대학은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법 제15조에 의거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조계종 총무원이 법명사에 인가한 인천 최초의 불교대학으로서, 불교의 근본 이념과 실천사상을 바르게 널리 알리고, 불교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바른 실천이 뒤따르는 깨어있는 포교를 위하여 불교신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인천 불교대학은 불교를 바로 알고 실천하려 하는 모든 불자들의 수행처 입니다.

■ 신도기본교육과정만 공부하실 분은 입학 후 수계식까지(3개월) 수강
내용 : 불교 기초교리 및 사찰예절과 천수경, 반야심경 강의
■ 전문과정은 1년 동안 수강 후 졸업하며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응시하게 됩니다.

학 과	교 과 목	수 업 시 간	교 수 진
[불교학과] 1년 정규대학과정 (교양과정 포함)	불교기초교리, 불자예절 불교역사, 불교문화 불교교리, 포교방법론 사회복지학, 선종사상 반야사상, 화엄사상 유식사상, 정토사상 법화사상, 불교 실천.수행	매주 수·목 오후 7시30분 ~ 9시30분 목요일은 선무,부모교육,요가, 찬불가노래교실,등의 다양하고 유익한 교양강좌 특강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 교수진, 조계종 대덕큰스님 외

▣ 모집기간 : 개강시까지 ▣ 개 강 일 : 2006년 2 월 26일
▣ 신입생 특전
1.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후 포교활동 적극지원 (군부대. 경찰불자회. 어린이법회 등 상임포교사 및 지도법사 위촉)
2. 생활보호대상자 .출가 희망자 및 성적 우수자 학비면제
3.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졸업학점 이수자)
▣ 문의 교학처 032)577-5108

대한불교 조계종 부루나포교원(법명사) 인천불교대학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산 오르고 차 마시며 '둘 아닌 마음' 확인

포항 불교 · 천주교 신년하례 등반대회 현장

포항천주교평신도회 불교신도단체협의회 140여명 상견례 갖고 내연산 등산대회하며 화합 · 협조 · 상생 다짐



포항 천주교와 불교 신도들이 보경사 불이문 앞에서 손을 잡고 둘 아닌 마음으로 살것을 다짐하고 있다.

첫 만남이지만 맞잡은 손 놓을 줄 몰라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2월 11일 포항 내연산 보경사에는 웃음꽃이 만발했다. 포항 천주교평신도회와 포항불교신도단체협의회가 '포항 천주교 불교 신년하례 등반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평신도회 이원기 총회장을 비롯한 포항 11개 성당의 임원 60여 명과 포항불교신도단체협의회 김명조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불교계 임원 80여명이 보경사 불이문 앞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행사는 지난해 봄부터 시작됐던 포항 천주교 불교 지도자 모임에서 비롯됐다. 2004년 12월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 발언을 성토하는 범불교도 대회가 개최된 이후 "더 이상 종교간의 갈등은 없어야한다"는 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작된 '포항 천주교 불교 지도자 모임'이 신도들까지 확대되면서 신년하례 등반대회를 개최한 것.

두 종교의 임원들은 첫 만남이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맞잡은 손을 좀처럼 놓을 줄 몰랐다. 맞잡은 두 손에는 반가움의 무게만큼 잔뜩 힘이 실렸고, 상기된 얼굴은 홍조를 띠었다.

"어, 여기 웬일입니까?"

세상은 넓고도 좁다 했든가? 포항불교청년회 김기국 불자는 회사동료를 만나 더욱 반갑다. 종교는 다르지만 한 고장 사람이다. 이렇게 만나고 보니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가 다를 것이 없다. 괜히 미혹한 중생들이 성인들의 세상을 이리저리 갈라놓아 오해를 불렀을 뿐. 김기국 불자는 "모두가 형제자매며 이웃사촌인데 종교가 틀리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주문 앞에서 잡은 손은 내연산 연산폭포까지 1시간여 산행길에도 이어졌다.

상생폭포에서 '상생 기념촬영'

"불교계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산에 오르니 더욱 산이 아름답습니다."

내연산은 물러나는 겨울을 아쉬워하듯 아직 얼음을 품고 있지만 완연한 봄기운은 어쩔 수 없다. 골짜기 나무들은 새 잎을 내기위해 봄 물을 잔뜩 머금었고, 골짝 계곡의 얼음도 살짝 녹아 시원한 물소리를 경쾌히 들려줬다. 연산폭포를 돌아 내려오는 길에 시원스런 상생폭포가 눈길을 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상생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기념촬영 한번 합시다."

힘이 넘치는 상생폭포처럼 서로를 살리는 동반자로 함께하기 위한 기념촬영을 했다.

누가 불교인이고 누가 천주교인이라고 할 것도 없이 뒤엉켜 내려온 길. 보경사 일주문 앞에 두 종교의 성직자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난승 스님과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주교대리 조정헌 신부를 비롯해 보경사 법탈, 용암사 도일, 죽림사 종문, 천곡사 정오 스님, 천주교 제4대리구 제1구역장 김상규 신부와 제3구역장 전재천 신부가 보경사에서 차담을 나누며 신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둘이 아님을 주지시키는 듯 '불이문'이라고 적힌 편액이 유독 눈에 들어온다. 이날 하루 하느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가 깃든 내연산 품에서 두 종교계 성직자와 임원들은 그저 행복하기만 했다.

후손들에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지길

내연산 등반 후 보경사 입구의 식당으로 이어진 신년 하례회가 시끌벅적하다.

어느 잔치집이 이보다 즐거울 수 있을까? 스님과 신부님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고 140여 임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두 종교계 임원들의 우레와 같은 환호 속에 천주교 평신도회 이원기 총회장과 포항불교신도단체협 김명조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소개가 이어졌고, 조정헌 신부와 난승 스님이 인사말을 했다.

"스님들과의 만남은 1년 전부터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신도님들까지 자리를 함께하니 참으로 좋습니다."

종교간 대화합의 장을 이끌어낸 조정헌 신부는 싱글벙글 미소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단 하나의 기우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오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일 뿐.

조 신부는 "종교화합 차원에서 또 지역의 타종교가 갖는 위상처럼 불교와 천주교 위상도 객관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마음에서 모임을 갖게 됐을 뿐"이라며 거듭 취지를 밝히고, "종교화합 차원에서 서로 돕고 양보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난승 스님은 "지난해부터 신부님들과 같은 종교인으로 조건 없는 만남을 가졌고, 이를 통해 신부님의 어깨높이에 맞춰 격상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며, "이렇게 서로의 격에 맞춰 서로가 높아졌다는 마음으로 함께 간다면 오래도록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목사님들도 뜻을 하나로 모아 동참한다면 언젠가 세 종교가 어깨를 나란히 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그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분위기는 같은 지역민으로 포항지역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 참으로 닮았음을 다시 확인하며 무르익었다.

이에 앞서 이원기 천주교평신도회 총회장은 "불교와 천주교는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스님과 신부님, 수녀님이 세상의 명리를 초월해 독신으로 사는 점, 염주와 묵주가 비슷한 점 등 두 종교가 수 천년동안 이어온 의식도 비슷한 점이 많다"며 "오늘의 모임이 연년이 이어져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전통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포항불교신도단체협 김명조 수석부회장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차를 나누니 무척 큰 인연인 듯하다"며 "천주교와 불교의 만남이 더 좋은 인연으로 승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생폭포 앞에서 기념촬영.



신년하례에서 참가자들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마음도 식탁도 풍성하니 화합은 저절로.

종교화합은 서로간 위상 높이는 일

경북 포항은 바닷가 도시지역으로 수많은 종교가 함께 뒤엉켜 공존해왔다. 포항은 2004년 정장식 시장의 종교편향적 언행으로 3만 여명의 불자가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범불교도대회가 열린지 1년이 지났지만 포항에는 아직 은연중에 특정종교의 독주를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불자뿐 아니라 천주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산행하는 동안 "종교인으로서 배타적인 모습은 조심해야 한다" "더 이상 특정 종교의 주도로 편향되어 끌려갈 수는 없다. 불교 천주교의 위상도 그만큼 높여야한다"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린 것도 그때문. 그렇다면 산행을 하면서 이들이 찾은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일까?

포항 불교와 천주교계는 화합과 상생을 해결방법으로 택했다. 먼저 두 종교간에 화합된 모습을 이루고 발전시켜 모든 종교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포항 천주교와 불교계의 행보는 지난날의 정장식 포항시장조차 종교간의 화합을 이끌어낸 역행보살로 긍정하며 되돌리고 있다.

장성성당 이재원 평신도사도적협의회장은 "마호메트의 풍자만화로 세계적인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이 때 불교 천주교 신도들간의 등반대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듯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종교를 이해 · 존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포항=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氣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뉴스사이트

새로운 대중 매체로 발돋움

“최신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붓다뉴스·조계종·성철넷 등 ‘맞춤형 정보’ 제공



붓다뉴스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불교포커스·불교닷컴 등 잇따라 탄생

붓다뉴스, 영상·해외소식·뉴스레터 ‘눈길’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관호(28)씨는 불교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 붓다뉴스를 매일 접속한다. 불교계 뉴스들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고 한곳에서 모든 불교 뉴스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백승호(34)씨는 경북 구미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큰스님 초청 법문 등 불교 정보를 얻기 힘들어 불교계 인터넷 매체를 자주 찾는다.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교계 대안 언론이 다수 창간되면서 불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큰스님 초청법회 등 다양한 신행 정보는 물론 일상에서 겪는 재미있는 신행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제보를 하고 있어 향후 대안적 불교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6월 창간해 불교계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으로 성장한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20여명의 기자들이 현장을 누비며 취재한 내용을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고 큰스님 법문, 영상뉴스 등 다양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여명의 해외통신원들이 세계 각국의 불교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불교 뉴스를 한곳에서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통해 독자들에게 찾아가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불교정보센터가 2월 15일, 불교의 내일을 여는 인터넷 대안 언론을 표방하며 창간한 불교포커스(www.bulgyofocus.net)는 권력화된 권력을 감시하고 개혁을 가로막는 제도·관행·의식의 벽을 허물겠다는 목표아래 진보적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사회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이 기사 제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불교계 대안 언론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후원인만도 100명이 넘고 등록된 기자회원이 1748명,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회원이 2500여명에 가깝다.

1월 21일 창간한 불교닷컴(www.bulkyo21.com)은 논평이 있는 뉴스를 지향한다. 사실전달과 더불어 사실에 대한 해설과 분석,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간지 기자 출신들을 영입해 전문성을 키웠으며 오프라인 신문과 차별된 시각과 목소리 등 불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 신문매체를 가지고 있는 불교신문, 법보신문, 만불신문, 주간불교, 밀교신문, 금강불교 등도 인터넷을 통해 오프라인 신문의 기사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불교닷컴 공동대표 성전 스님은 “오프라인 신문은 소수자의 의견을 보도해주지 못하지만 불교계 온라인 매체들은 각계 각층의 의견들을 포용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은 부분의 이야기나 지방 오지의 이야기 등이 자발적 참여로 기사화 되는 것은 언론이 그만큼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최근 뉴스레터, 웹진 등 불교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가 네티즌 불자들에게 뉴스, 큰스님 법문, 종단 및 개별 단체 소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불교 정보를 제공하며 신행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2월 7일 재개했다. 불교계에서 최초로 2002년 뉴스레터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스팸 메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중단했었다.

뉴스레터는 금주의 포커스 등 불교 뉴스 가운데 주요 기사를 엄선해 매주 한차례 서비스 되고 있다. 특히 다른 사이트에서는 볼 수 없는 큰스님 법문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 불교 뉴스도 영상으로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조계종(www.buddhism.or.kr)은 조계종소식 Linker 프로그램을 통해 언제라도 조계종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계종 소개, 온라인 종무행정, 불교 이해, 통합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조계종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조계종 공지사항, 종단 주요 소식, 언론에 비친 종교소식 등이 실시간으로 네티즌에게 전달된다.

성철 큰스님의 활동과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 성철넷(www.sungchol.net)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생전 육성 법문, 저서 등 성철 스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매주 테마별로 서비스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철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www.laybuddhist.net)도 매주 한차례 웹진을 발행하며 활동 사항을 알리고 있다. 중신 미디어, 불교계 뉴스, 알림 마당 등의 코너를 통해 불교계 전반에 대한 핫 이슈와 조계종의 주요 행사 등을 가입자들에게 서비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불교포커스 등 많은 불교계 사이트와 다음·사이월드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 카페에서도 저마다 카페 소식을 비롯해 큰스님 법문, 불교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식을 메일로 전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클릭! 즐겨찾기

새싹 불자들은 좋겠네! 랄랄라~

좋은벗 풍경소리, 현대감각 살린 찬불동요 인기



좋은벗 풍경소리 홈페이지(www.budsori.or.kr)는 창작 찬불가를 전문적으로 듣고 즐길 수 있는 사이트다.

좋은벗 풍경소리는 창작 찬불가를 통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온 단체로 현재까지 21집의 앨범을 내놓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풍경소리 소개, 노래, 소식지 등의 코너를 통해 창작 동요집, 법회 의식곡집, 연등축제 앨범 등 다양한 찬불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전통 동요, 국악 동요, 신동요 등을 제작 홍포하는 찬불동요 운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 수 있다.

부다피아, 이해기 갤러리 오픈

부처님 일생 29점 선봬

부처님의 탄생, 천상천하유아독존, 금도낙발 등 부처님의 일생이 금화(金畵)로 나투었다. 불화가 이해기씨의 ‘금화로 보는 부처님의 일생’(www.buddhapia.com/_service/gallery/_000000008)은 부다피아의 여덟 번째 초대갤러리로 총 29점의 작품을 담았다.

부처님 전생담에 해당되는 우르빈야 카사파의 귀의에서부터 열반도에 이르기까지 금니선화로 표현했다.

이해기씨는 1959년에 태어나 1988년 동국대 미술과를 졸업했다. 현재 금니선묘화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화풍 5종세트

화풍은 부드러운 향기를 가져다주는 봄바람, 그것은 숲과의 감동적인 만남, 그리고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은 순수한 향이 이윽고 봄의 꽃바람이 되어 퍼져갑니다.
사백여년에 걸쳐 전승된 장인정신과 최첨단의 조향 기술이 융합되어 탄생한 화풍은 카타리베와 더불어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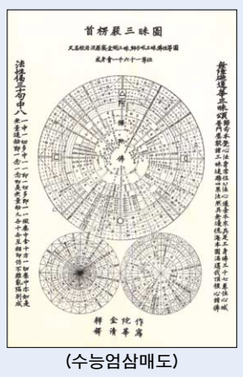
가격 : 35,000원

五知如來〈阿彌陀佛〉

三界二十八天이라든가 또는 불교 우주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른바 물리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 5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생명적으로,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五知如來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총칭 대명사가 아미타불이며,
이를 형상화 시킨 것이 오지여래입니다.

淸華 큰스님 원통불법의 요체 中에서...

사찰, 각 가정에 모심으로써 우주의 에너지
아미타불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시길 기원합니다.



(수능엄삼매도)

□ 네모는 地를 의미하고
○ 원은 水를 의미하고
△ 세모는 火를 의미하고
⊖ 반원은 風을 의미하고
◇ 항공상은 空을 의미한다.

오지여래(아미타불)
• 규격 : 30cm×120cm×3.5cm • 무게 : 18kg
• 재질 : Ⓐ천연목재 천사홍목 Ⓑ흑단목
• 기획/제작 : 강순자(安祥華)보살님 禪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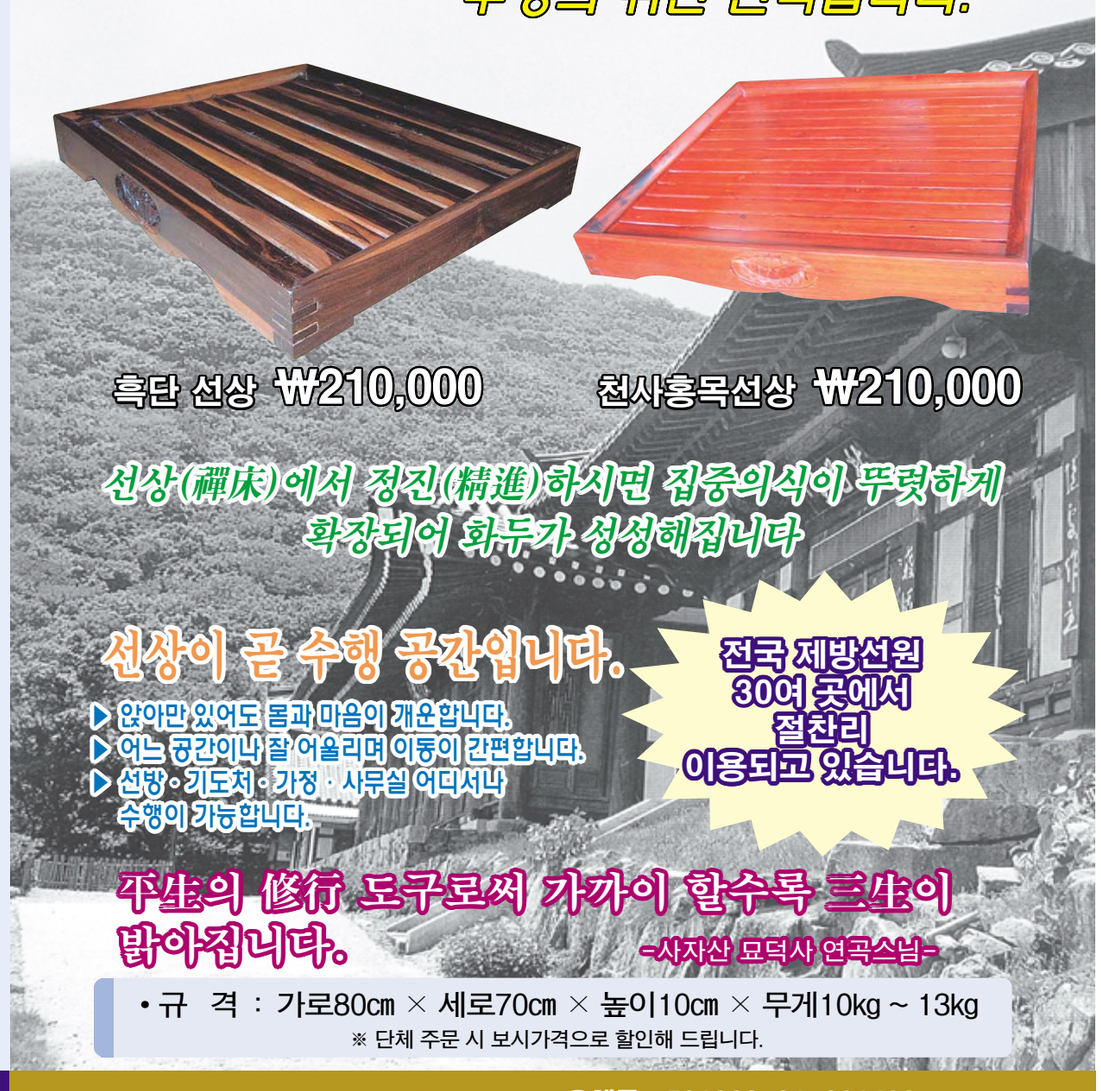
Ⓐ Ⓑ

₩ 178,000

주문전화 (061)755-8555
우체국 : 501866-01-001403
농 협 : 639-12-316937(예금주:강순자)

선상(禪床) 목은 이호득 先生 禪作

한 번 준비로 평생의 반려가 되는
수행의 귀한 반석입니다.



흑단 선상 ₩210,000
천사홍목선상 ₩210,000

선상(禪床)에서 정진(精進)하시면 집중의식이 뚜렷하게
확장되어 화두가 성성해집니다

선상이 곧 수행 공간입니다.

▶ 앉아만 있어도 몸과 마음이 개운합니다.
▶ 어느 공간이나 잘 어울리며 이동이 간편합니다.
▶ 선방·기도처·가정·사무실 어디서나
수행이 가능합니다.

전국 제방선원
30여 곳에서
절찬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平生의 修行 도구로써 가까이 할수록 三生이
밝아집니다.
-사자산 묘덕사 연곡스님-

• 규 격 : 가로80cm × 세로70cm × 높이10cm × 무게10kg ~ 13kg
※ 단체 주문 시 보시가격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주문전화 (061)755-8555
우체국 : 501866-01-001403
농 협 : 639-12-316937(예금주:강순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시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개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우원 모집, 알뜰시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장짜, 수련회, 동장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해인사 비로자나 광명기도에 법사스님을 모십니다

- 스님 : 0명
- 기간 : 2006년 2월 17일(음. 1월 20일) - 9월 21일(음.윤7월 29일)까지
- 장소 : 해인사 보경당
- 기도 : 4분정근 (금,토,일요일 밤9시-새벽3시까지 철야기도)
- 문의 : 해인사 기획국장 만우 010-9334-3076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동자승 모집
◆대상 : 만 5~10세 미만의 남 · 여 아동
대한불교조계종 충효사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
◆연락(문의처)
054)338-1117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빽빽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쉽게 단기간 완성
◐ 공부를 하였으나 자신이 없는 분 비법전수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 2,4,5호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 · 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방편전문교육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변비,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양희
010-3121-4984

사찰(女)사무원 모십니다
(45세 이하)
041)673-2333
대한불교조계종사찰

사무직 구함
남 · 녀 각 1명
□ 의욕적이며 봉사정신과 일의 성취감이 강한사람.
□ 오피스 프로그램 가능한 사람 (급여는 면접 후 결정)
□ 근무지 : 사찰 내 사무실
010-9983-2210
(fax 031-906-5108)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중,대,부채,병풍
▶각종 보시용 선물용 봉안식용
▶전화주문(작업후 등기속달)
안동하회마을 입구
연꽃화가 018-588-5698

사주비법공개
사주 공부를 하였어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 답답한분
"과거,현재,미래를 속 시원히"
1일 전수완료
초보역학, 전통침술 지도
041)577-7210
010-9939-7210
일경침술역학연구회

포교당할 장소를 제공해 드립니다
◆ 50~60대 비구니스님이나 보살님이나 법사로서 불사를 꼭 하고 싶은 분
◆ 지방의 포교당을 운영상 서울로 이전하고 싶은 50~60대의 비구니스님이나 불 보살님
장소:구로디지털공단역 주변
문의처 019-321-395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많이 드립니다.
010-9620-67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대구 대비암
053)983-033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팔공산
054)971-7561

공양주구합니다
▷강원도소재
비구니스님사찰
자녀가 있어도 무방함
011-777-2576

전통사찰음식에 조예가 깊은 비구니 스님,행자을 모십니다
▷경기도 안산
전통채식뷔페 백련사
031)485-9411
011-707-555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옥천
043)732-6598
043)733-487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593-1447

비구니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7739-0916

노전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도솔암
063)564-2861

관법전문 수행도량 대각정사
◆부전스님 2명 모심 ◆종무행정 유경험자 · pc가능한 보살님 2명
불가무술 태극선공 및 선요가 전수자 모집 (남,여 각 5명)
단,남자는 타무술 3단이상 보유자
3만6천평의 대가람에서 수행할 분을 모십니다
●장소 : 경기 평택시 진위면 동천1리 산651번지
한국불교조동선종 대각정사 주지 정관 합장
010-9508-6330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서구 비산7동 1840-5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053)359-2225, 359-3644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단체교육 50만원)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단체교육 30만원)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16일(목), 17일(금), 21일(화)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경전중심 체계적인 교육
● 3월16일(목), 3월17일(금) - 주간반, 3월21일(화)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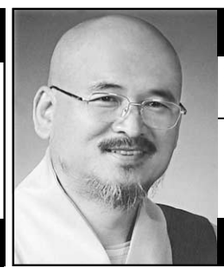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봉은불교미술원 - 탱화·벽화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지장탱 관음탱(천수천안) 감로탱 지옥탱 오백나한탱
산신탱 독성탱 종합탱 홍탱화 먹탱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번지
041)541-3545, 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www.bongen.pe.kr 불모 오 재 택
(300여개의 작품사진이 전시되 있습니다)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힘찬 출발! 멋진 도약! 밝은 미래!
56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신규 동참자 특별 선물
청견스님께서 밝은 기운으로 한 호흡에 握筆로 쓰신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날 짜 : 2006년 2월 25일(토요일) 저녁 9시 ~ 2006년 2월 26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망스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자세법: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들숨: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차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날숨: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홧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침,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 02) 456-0035
부산금정법당 : 051) 583-7886
청 견 스 님 : 011) 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13~6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 위치 : 강원 동해안 • 위치 : 전남
• 법당 : 30평 • 법당 : 25평 • 법당 : 18평
• 요사 : 80평 • 요사 : 50평 • 요사 : 37평
• 부지 : 176평 • 부지 : 270평 • 부지 : 15600평
• 가액 : 2억 (융자 7000포함) • 가액 : 6억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강원평창사찰3만평-6억
2.충청도사찰 3천평-8억
3.삼각산국유지사찰-7억
• 기도스님,노전,부전스님
• 공양주,법당,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사무장,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창녕읍에서 7분거리
• 평수 : 148평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차진입가능, 요사채 3칸
• 답사후 가격 결정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앞에 비구니스님이 살다간 공입
주거지역임, 비구니스님 환영
• 시내버스 100M 앞까지 옴
011-9502-3235

사찰안내
• 위치 : 마산시에서
15~20분거리
• 대웅전 25평 요사채 약 40평
• 대지 600평 신축건물,
고건축 경관수려함
경내까지 차량진입가
• 가액: 4억(절충가능)
011-530-1808
011-768-8744

사찰안내
• 위치 :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 건물 1층 50평
• 방 5개 공양실 화장실2개
휴계실大, 건물 2층 35평
대웅전(삼존불) 지장소불 108불
• 건물별채: 영단 및
위패단 1천기(80평)
• 가액: 13억5천만원(절충가능)
010-9757-7245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위치 : 경남
• 대지: 97평 • 부지: 630평
• 법당: 30평 • 법당: 20평
• 요사: 46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1억9천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 대지 572평 건평 94평
• 황토요사채포함 건물 3동
심야전기 설치
• 요양원 기도원으로 사용가능
(방10개)
• 가액: 3억9천만원
011-561-3591
011-9518-9713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6천5백만원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016-9301-3575
042)585-3573

사찰부지안내
• 황금알땅 종교부지 3475평
1500평 개발 허가 완료
• 절 양로원 기도원 복지시설 연수원 적지
• 대중교통 11개 노선버스 통과지역
•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 옥계동 재계발 예정지역
집값 상승 예정지역
• 풍남향 식장산 해돋이 보는 터
• 가액 : 16억
주인직 011-402-781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 위치 : 경기 양평 • 위치 : 대구 팔공산
• 대지 : 약 2천평 • 부지 : 약 6천평
• 법당 : 60평 • 법당 : 50평
• 요사채 : 200평 (3동) • 요사채 : 100평(신축중)
• 가액 : 13억 • 가격 : 가격절충
• 교통 요지임 • 산세 계곡수려, 도로, 토목공사 완료
• 영남지역 대불사 하실분 답사 후 가격 절충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 위치: 경남 산청군 소재
• 부지 : 300평 • 요사채 : 40평 • 부지 : 1500평
• 법당 : 25평(목조,단청) • 법당 : 30평(2층)
• 기타 : 산신각, 석탑, 석등 • 요사채 : 60평(2동)
• 가액 : 7억7천만원 • 가액 : 2억5천만원
• 특징 : 120년 역사의 멋진 도심사찰임 • 특징 : 단성 IC에서 5분거리에 있는 아주 깨끗한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암자안내
• 위치: 옥천
(대전 20분거리)
• 평수: 250평중
100평 등기필
• 법당,산신각
요사채2동 주차장
• 가액: 1억5천만원
011-9405-8186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갈월동
• 평수 : 6평
• 삼존불, 후불탱화
• 포교원하던자리이며
기거할 수 있음
• 총가액 : 600만원
보증금 100만원 월 30만원
02)718-0327
011-750-5424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 평수: 110평
• 가액: 보증금 6천만원(전세)
• 넓은 평수에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주변환경
•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도 있음
011-436-009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급)밀양사찰 얼음골 부근
• 대지: 512평, 건평 100평 법당 뒤 대밭있고
• 대구 부산 고속도로 10분거리 언양 20분거리
• 대지전체 둘레 돌담 황토방처럼 전체 수리되있음
• 2층 법당 1층 요사채 산신각 실내 목욕탕
실외화장실2개 황토집 2채. 옛날 독 100점 포함
• 마을 앞뒤가 틔여서 전망좋음
※ 비구니, 보살님, 노스님 아주 적합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572-1501 / 011-9512-5118

포교당안내
• 위치 : 익산시 공원 및 주거
상업지역 3층 중 3층건물
• 평수 : 50평, 옥상사용
법당 : 24평, 삼성각 5평
• 방2, 주방 및 휴게실
• 모든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답사후 절충. 조건 수용
011-679-1080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중 3층
(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19-656-2766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송현동
• 2층중 2층. 평수 : 7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대형 주차장 있음
011-450-5574

포교원 안내
• 위치: 용인 수지 아파트 촌
• 건평 : 65평(5층 건물중 5층)
옥상사용
• 시설 : 법당, 주방, 방3개, 욕실,
컴퓨터, 주차시설, 소각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에
월8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803-136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쑥뜸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
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011-790-4809
033)631-483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부근
서포항 아이씨에서 5분거리
• 부지 1,000평중 택지 260평,
법당15평, 산신각2평
용와당 5평, 연못 10평.
• 현시가 평당 30만원
요사채 신축건물 75평
• 가액 : 4억
054)246-2350
016-536-8774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입구
• 평수 32평 2층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433-1106
010-7440-3347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거리 근처 4층
• 시설 : 30평,법당,주지실,
욕실, 각종 법회 시설 완비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1,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1500만원(절충가능)
02)2648-4401
011-880-387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 40평
• 전세금: 보증금 3천만
월 10만
시설비: 절충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10-9929-290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사찰)
• 대지: 150평
• 건물: 30평(건물2동)
•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 가액: 6500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 대지: 141평
재무소유 150평
합 291평
• 30평 가정집 1채,
10평 컨테이너
• 가액: 1억2천만원
011-9763-015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평수: 45평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시설완비 8년 운영
010-5458-6730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2,100만원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시장
대형마트 2층 최요지
• 3층 건물중 2층. 평수 60평
• 시설A급 방2개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75만원(물세포함)
시설비 답사후절충
051)507-7555

역세권안내
• 위치 : 강원 평창 진부
진부역에서 200m. 중심 상업지역 유망
• 답필지 소액투자(전)
• 평수: 175평, 220평, 150평
임야 관리지역 210평,350평,450평
•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시
선수촌과 근접
• 청량리-진부 복선전철완공시
1시간30분
016-205-415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광명시
• 평수 35평, 요사채 2
• 시설일체 완비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1백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687-618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내서읍
• 대지 : 100평
• 삼존불, 16나한
• 즉시법회 가능
• 법당, 요사채, 주지실 3동
• 가액 : 8,500만원(융자 1천만원 별도)
010-8524-2253

기도도량안내
• 위치 : 마산 내서읍
5분거리
• 산15790평
• 산세수려하고 청정계곡
접하고 있으며 대자연의
거룩한 신환경 도량으로
신도시와 인접하고있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570-131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진면
• 법당 30평
• 산신각: 10평
창고8평, 요사채26평
• 가액: 7천5백만원
(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31)534-1158
019-335-0821

암자안내
• 위치: 문경시
• 대지: 435평
• 주차장 포함
• 임법당 30평
방 3개
• 가액: 2천500만원
054)571-6586

암자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5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1-584-4418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 대지: 175평, 법당: 30평
요사채 현대식(2층건물)
• 특징: 전망좋고 교통편리함
• 수행과 포교의 전당
(사찰을 찾고자 하는분)
• 가액: 3억2천만원
016-510-3455

중생심을 여래심으로 바꾸는 수행체계
법기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불교수행의 입문부터 무여열반까지의 수행단계와 수행방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법기불교대학이 다음과 같이 개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차례	강 의 일 정
1강	불교란 무엇인가? 예불의식, 불자예절 / 108배
2강	중생의 마음 – 무기심과 번뇌심 / 자기소개
3강	수행방법 – 관법 (결인관, 호흡관, 설관)과 염법 / 실수행 (좌선과 행선)
4강	불교교리 –4성제 8정도, 3법인, 5온, 연기법 / 수행문답
5강	산행–요처수행 / 사찰의 장엄
6강	초발심자경문 / 호흡점검
7강	철야정진, 상기의 극복(멜로디) / 선배의 수행경험담, 지식호흡과 반지식호흡
8강	삼매와 삼매관성, 수행과 업장소멸 / 도반의 수행담
9강	수행자의 자세와 건강관리 / 호흡점검
10강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 실수행 (좌선과 행선)
11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무념과 반야, 삼신불 / 이근관, 안근관
12강	봉사활동
13강	보현행원품–끝없는 대승보살의 서원 / 멜로디연습
14강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비교분석–소승, 대승, 최상승 / 설문조사, 발원
15강	수료식, 선지식 법문

부산 법기불교대학 〈제 8 기〉
· 개강 : 〈야간반〉 2006년 2월 15일 (수요일) (저녁 7:30-9:30)
〈주간반〉 2006년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00-12:00)
· 기간 : 3개월, 주 1회씩 수업 · 접수 : 부산법기선원 (T.051-516-9104)
· 오시는길 : 지하철 남산동역 7번출구 → 육교지나 20m직진 → 왼쪽 청룡빌딩 4층

서울 법기불교대학 〈제 7 기〉
· 개강 : 〈주간반〉 2006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2:00-4:00)
〈야간반〉 2006년 3월 4일 (토요일) (저녁 7:00-9:00)
· 기간 : 3개월, 주 1회씩 수업 · 접수 : 서울법기선원 (T.02-854-1848)
· 오시는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출구 → 육교 → 강남우신병원에서 좌회전 → 60m직진 → 길건너 골목진입 → 시장 끝 오른쪽 하마빌딩 3층(1층 토속촌)
* 수강생 편의에 따라 중복 수강 가능합니다 * www.bubkisa.or.kr (한글도메인 '법기사')

BUBKI BUDDHIST TEMPLE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기선원

사찰터안내
• 위치 : 청송 주왕산
(얼음골)
• 임야 31만평
평당 1700원
농림지역 국도에서2km
• 평지, 川, 계곡, 송이버섯
• 西出東水 – 사찰터 최적
011-351-3264(주.야)

토굴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주생면
• 대지: 200평
• 건물 3동있음
• 4천만원
• 참선 기도처로 적합
010-5631-8439
017-401-4939

암자나별장부지안내
• 위치 : 거창 덕유산지역
무주리조트 20분거리
• 마을과 1km 떨어짐
• 전망좋고 입구에 계곡과
소폭포 끼고있음
• 논 867평 관리지역
• 가액 : 평당 13만원
011-583-2097

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양덕원
• 법당 요사 텃밭있음
• 보일러 시설완비
조용하고 깨끗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10-6388-0159

사찰안내
• 위치: 전북 완주
익산IC에서 5분거리
• 평수: 21평(목조)
• 단청완료, 전통 60년
• 요사채2동, 법당,
산신각(목조단청)
• 가액: 2억
011-9643-789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매당동
아파트밀집지역
• 4층건물 3층
• 평수: 법당 40평 요사채
방2개 부엌 주방 욕실
창고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2757-234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 평수: 500평
(대지 200평 전 300평)
• 건평: 5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2천
011-9362-8947
055)353-8920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근교
• 거리: 서울에서 1시간
원주터미널 원주역에서
10분거리
• 종교용지 800평외 320평
• 보궁20평 법당 30평 신축
요사채 50평(심야전기보일러)
• 산신각 미륵대불 3층불보탑
삼십년이상된 사찰임
• 건강상 사유로 급안내
• 가액: 4억9천만원(절충가능)
011-361-0516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에서
10분거리
• 종교용지 500평,
건물 1채(임법당),
• 가액 : 6천5백만원
011-653-4596

별장안내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 휴휴암 맞은편
아파트 15.88평
• 9층중 1층
• 가액: 2500만원
• 별장 용도로 조용하고
바닷가 가까이 있음
011-9763-0150

구족계와 보살계, 양립 불가?

한국불교학회 '계율과 현대사회' 워크숍서 격론

조계종에서는 구족계 수계산림시 보살계와 구족계를 함께 받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보살계와 구족계를 모두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월 11~12일 부안 내소사에서 '계율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열린 2006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 동계 워크숍에서 구족계와 보살계의 양립 가능성 여부를 놓고 한바탕 격론이 벌어졌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소승계와 대승계의 양립에 관한 문제' 발표를 통해 "<사분율>의 구족계는 부파불교에서 전승해 온 성문계(소승계)이고, <범망경>의 보살계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대승계"라며 양립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박건주 박사는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로 봐야 한다"며 반박했다.

마성 스님, "내용적 모순 많아"

이미 여러 율사들이 '양립 불가'를 주장했다고 밝힌 마성 스님은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僞經)인 <범망경>의 보살계에서는 성문의 가르침 혹은 소승계를 전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성 스님은 특히 "대승불교권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은 상좌불교의 출가자들처럼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족계를 받아야 출가자가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며 "성문계와 보살계는 같은 장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후에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박건주 박사는 "실제 스님들을 보면 보살 근기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성문 근기를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구족계와 보살계가 양립할 수 있다"며 "오히려 두 계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받아쳤다.

박건주 박사는 또 "대승계의 내용에 이미 소승계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로 대승계가 더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성 스님은 "구체적으로 계목(戒目)을 정하고 있는 소승계에 비해 두루뭉술한 대승계로 종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가 지켜지지 않는다"며 청규 제정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종헌 종법에 청규 명시"

이번 워크숍에서는 또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율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2월 11~12일 부안 내소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마성 스님 "'범망경' 소승계 용납 안해"

박건주 박사 "대승계에 소승계 내용 포함"

이자랑 박사 "시대변화 부응하는 율 정립"

도쿄대 외국인특별연구원 이자랑 박사는 '율장을 통해 본 승단과 현대사회의 조화' 발표에서 "계가 도덕이나 윤리를 지칭하는 반면 율은 세간의 법률에 해당하는 용어로 강제적이고도 객관적인 규범을 가리킨다"고 전제했다.

이 박사는 이어 "율의 제정에는 승단과 일반사회와의 적절한 조화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불교승단 역시 율을 제정한 붓다의 가르침대로 사회가 제시하는 상식 속에서 율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렇게 함으로써 승단은 일반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승단과 일반사회 사이의 갈등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박사는 "오후불식을 철저히 실천하는 남방불교권에서는 체력 유지 등을 위해 육식을 한다"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육식을 한다고 하면 사회에서 허용이 될 수 있겠느냐?"며 사회적 기준에 부응하는 율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인사 율원장 무관 스님 역시 "선종인 조계종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해 종헌종법에 구체적 범주의 '청규'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박사 사태 세련된 대응 아쉬워"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황우석 박사와 관련한 불교계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허남결 교수는 "한국불교가 계율을 현대사회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자신감과 윤리적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면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는 세련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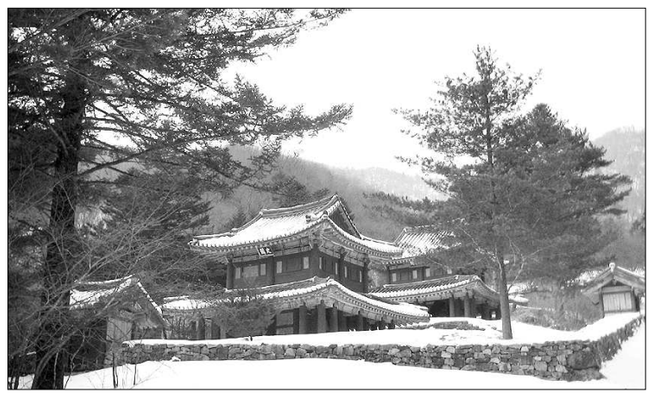
허 교수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종교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진리탐구를 생명으로 하는 과학자가 그 절차를 조작하고 결과를 왜곡했다는 도덕적 범죄행위에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불교계가 종교적 음모론을 들먹이는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또 "한국불교계는 계율 엄숙주의 때문에 난처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율의 준수가 희화화되는 분위기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외에도 임승택(경북대 철학과), 김준호(부산대 철학과), 조준호(동국대 불교학과) 박사 등도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워크숍은 40여명의 한국불교학회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한국불교학회는 4월 14일 동국대에서는 열리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다시 '계율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글 · 사진/부안=유철주 기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오대산 사고 모습.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환수 추진

월정사 등 불교계 중심 환수委 구성

3·1절 공식 창립 … 日 총리 상대 소송제기

일본 동경대학교에 보관돼 있는 오대산 월정사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 환수가 추진된다.

대한불교 조계종 월정사(주지 정념)와 봉선사(주지 철안)는 '(가칭)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경대학교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6책의 반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수위원회는 월정사 주지 정념,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이 공동의장으로 김상웅 독립기념관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노희찬 민주노동당 의원,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7명을 환수 위원으로 위촉하고 실행위원장에 문만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을 선임해 본격적인 환수 운동에 돌입했다.

국보 제151호로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 이후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강화도 사고 등 4곳에 분산 보관돼왔다. 그 가운데 선조 39년(1606년) 보관된 오대산본은 월정사가 조선왕조실록수호사찰로, 월정사 주지스님이 실록수호총섭으로 임명돼 관리돼왔으나 1913년 조선총독 데라우찌와 동경대교수 백조고길(白鳥庫佶)에 의해 동경대학교로 불법반출 되었다. 그뒤 관동대지진 때 거의 불타 없어지고 27권만이 1932년 서울대로 돌아왔다.

환수위원회 간사 혜문 봉선사 총무과장스님은 "불교계에서는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조선왕조실록이 동경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민원질의를 통해 문화재청에 공식 확인후 본격적으로 환수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를 지키는 수호총섭이었고, 실록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은 조선왕실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모두와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조선왕조실록 지킴이의 자격으로 일본이 약탈해간 조선왕조실록의 반환을 꼭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환수위원회는 3월 1일 공식 창립을 선포하고 일본 총리 고이즈미와 동경대 총장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대전에 문화재복원 종합병원 설립 총 2100평 규모 … 2008년 완공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문화재종합병원이 설립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월 13일, 올해 예산에 문화재종합병원 시설 공사비로 20억원이 반영되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화재종합병원은 지난해 3월 21억을 들여 매입한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445-2번외 17필지에 세워지며 지하 1층 지상 4층 총 2,166평 규모로 2008년 설립된다.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은 보존 대상 문화재의 급증에 따른 보존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 매년 문화재 지정이 100건이 넘고 출토 유물이 3만점이 넘는 등 현 문화재 약 400만점 가운데 보존처리율이 0.3%에 불과하다.

또한 문화재 보존을 담당할 전문보존처리 기관과 인력 부족, 체계적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화재종합병원은 개인소장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국가 문화유산의 최종 보존처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진료 · 진단 · 복원 · 조사연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시스템 확립, 문화유산 보존재료 · 기술 등에 대한 표준평가 및 지표개발,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재종합병원의 설립으로 인해 향후 고고학적 출토 유물의 보존처리 능력 향상, 복원기술 및 재료개발을 통한 처리비용 절감, 사후 보존 활동에서 예방 보존 정책으로 원형 보존, 한국형 문화재보존처리 시스템 구축 등이 기대된다.

김두식 기자

세계경전번역 실태 발표

경전연구소

경전연구소(이사장 돈연)는 2월 25일 오후 3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세계 각국의 경전번역 실태 및 번역체계에 관련한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발표회는 불교 경전을 번역한 사례가 있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에서 경전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조사 ·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회 진행은 그룹 스터디 형식의 발표와 토론을 위주로 진행된다.

발표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중국 · 스리랑카 · 티베트의 경전 번역 실태를 동국역경원 박상준 역경위원 외 2명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2부 진행에서는 영국 · 미국 · 한국 · 독일 · 일본 · 미얀마의 경전 번역 실태를 동국대 황순일 인도철학과 교수 외 5명이 발표한다.

노병철 기자

※ 기사 넘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원적하신 보성스님의 49재를 추모하며...

지난 2월 7일(화) 사패산 터널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 관련운동을 했던 보성스님이 분당 재생병원에서 입적하셨습니다.

보성스님의 입적을 추모하기에 임박하여 앞으로 불교계 환경 운동에 대한 걱정과 아쉬움이 앞섭니다.

보성스님은 지난 2003년부터 사패산의 정기를 자르고 환경을 파괴하는 공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 해 왔던 것은 많은 불자들과 환경 운동가들이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인권 피해를 계기로 스님은 그 공사장을 철마선원이라 이름하고 암암리에 공사를 진행하려던 시공사의 완력에 강경히 대항하면서도 꿋꿋히 그 자리를 지켰던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정인 법전큰스님의 간곡한 당부에 말씀을 받들어 환경을 살리자는 운동도 접고 그 산을 쓸쓸히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러한 사이 사패산에 대한 환경도 점차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지고, 항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실제 환경과는 관계없는 금전을 앞세운 환경운동가들이 보도되었습니다. 환경지킴이로써 같이 활동했던 포장된 단체들은 또 다른 피켓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있겠지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환경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줄 의무가 있다. 환경을 우리 대에서 파괴해서 되겠는가!"라는 스님은 그 후 시행사와 시공사의 금전 환경운동가에 의해 서로 정리되어지지 못한 금전 문제 때문에 젊은 용역인들의 심한 구타로 인한 건강악화를 견디다 못해 결국 병을 얻어 다시 살 수 없다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분노하면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의 좋은 환경을 만들자던 젊디젊은 48세의 한 승려는 우리의 기억 속에 점차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도룡뇽을 지키기 위한 천성산 살리기의 지율스님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도, 또 지금 보성스님의 입적에도 함께 환경살리기에 힘을 다했던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환경운동과 보성스님의 죽음은 침묵하는 대중 속에서 잊어버릴 것입니다.

부디,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시어 다른 생명들을 위해 목숨을 거셨던 보성스님과 미래의 불교환경운동에 대해, 모든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한번 더 마음 속에 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환경운동가 보성스님을 추모하는 이들에게)

원적 보성스님 49재 안내

	일 시 (매주 월요일)
초재	2006년 2월 13일
2 재	2006년 2월 20일
3 재	2006년 2월 27일
4 재	2006년 3월 6일
5 재	2006년 3월 13일
6 재	2006년 3월 20일
49재	**2006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정릉 4동(청수장) 북한산 삼원사 대웅전

• 문 의 : 02)917-6867, 912-6855

추진 : 대한불교조계종 · 불교환경연대 · 암도 큰스님 외 일가권속 일동

일주문



한마음 포교전진대회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은 2월 14일 덕산관광호텔에서 조계종 제7교구 '불자 한마음 포교전진대회'를 봉행했다.



정년 퇴직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은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마곡사에서 춤명상가 박태이씨를 초청해 정년 퇴직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8교구 신도회 신년교례회 개최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2월 19일 구미 도리사에서 신도회 임원들과 조계종 제8교구 신도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암도 스님 초청 법회

양양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2월 21일 오전 10시 前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033)672-2447



노원사암련 사단법인화

서울 노원사암연합회 회장 선혜 스님은 2월 13일 정기모임을 열고 사암련 사단법인화 추진과 이사진 선임을 결정했다.



3·1절 기념법회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은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 대웅전에서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을 초청해 3·1절 기념법회를 연다.(031)676-8700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화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은 2월 17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화'를 주제로 박영석 탐험대장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日 후쿠오카 산업大 교류교수로

조선대 미술학부 고현 교수는 일본 후쿠오카 산업대학 교류교수차 2월 18일 출국했다. 고현 교수는 교토, 나고야 등을 순회하며 불화전시회를 연다.



불교문화교류 학술포럼 개최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연정열 회장은 2월 22일 한성대 사회교육원에서 한·대만 불교문화교류회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25차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김태준 소장은 2월 18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25차 한국문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마음 밝혀 자비광명 누리는 공부를…"

법전 스님 해인사 비로자나불 점안법회서 법문



해인사 비로자나불 점안법회에서 조계종정 법전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비로자나 부처님 개금 복장불사 회향 점안법회 및 광명법회를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2월 17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증명하에 봉행된 법회는 찬불가, 육법공양, 영상으로 보는 경과보고, 법전 스님 법어, 감사패 및 표창패 수여,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인사말, 연예인 이휘향씨의 발원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법전 스님은 이날 "두 비로자나 부처님의 눈을 점안함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날 마음을 밝힌 자는 자비광명을 누릴 것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자성을 깨치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법문했다.

현응 스님은 "지난해 5월 개금불사를 시작하고 6월 법보전 비로자나 부처님이 1200년 전 국내 최고의 목조 불상임이 확인된 때로부터 무려 8개월 간 감격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모든 불자와 국민의 정성과 원력으로 빚어낸 오늘의 불사가 이 나라 이 땅에 크게 회향돼 남북이 평화통일되고 국운이 융창하며, 세계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한편 해인사는 점안법회 후 9월 21일까지 217일간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리를 찾아 떠나는 광명법회를 봉행한다. **합천=배지선 기자**

제11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발표

시- 홍신선 교수
소설- 조정래씨
평론- 김인환 교수
특별상- 윤금초씨



홍신선



조정래



김인환



윤금초

제11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홍신선 교수(동국대 문예창작과), 소설 부문에 조정래씨, 평론 부문에 김인환 교수(고려대 국문과)가 각각 선정됐다. 2006년 시조의 해를 기념해 시조 부문 윤금초 시조시인을 특별 수상자로 선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과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는 홍신선 시인의 연작시 '마음경', 조정래 작가의 소설 '미로 더듬기', 김인환 교수의 평론 '시의 기원과 기원의 시', 윤금초 시조시인의 '그 해 겨울의 칸타빌레' 등 5편이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월 17일 발표했다.

심사는 위원장 신경림 시인을 비롯해 홍기삼 총장(동국대), 오세영 시인, 권영민 평론가, 최동호 시인, 탁연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수완 스님(현대불교문인협회장·계간 불교문예 편집인) 등이 맡았다.

시상식은 4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강지연 기자**

"애국家風 인재불사로 회향해요"

조부·부친 뜻이어 태영장학회 설립 김광호 법사



"독립운동가였던 조부님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에 헌신해 오셨던 부친의 뜻을 인재를 키우는 일로 꽃피우고자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조부와 부친의 함자를 딴 태영장학회를 만들고 3월 1일 김해 시민공원에서 열리는 3·1절 기념행사에서 첫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 김광호(금화사 초등불교학교 교장·사진) 법사. 김 법사는 조부인 김정태씨와 부친 김영욱씨의 함자에서 한자씩을 딴 태영장학회를 만들고 매년 김해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2명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교장, 사단법인 동련 등에서 활동하며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왔던 김 법사는 10년전 금화사장학회를 만들어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졸업생에게도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기도 하다.

김 법사는 내년부터 자선사업가로 고종황제의 표창을 받았던 증조부님 함자를 딴 종일장학회를 만들어 불자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생각이다. **천미희 기자**

본사 남동우 기자 결혼

화촉 본사 남동우 기자가 강신재 양과 2월 26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늘봄공원 4층 예식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남동우 010-3450-6310)

종교자유연구원 임원 지관 스님 예방



박광서 준비위원장 등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 임원들은 2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종교자유를 해치는 위법적인 활동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건전한 종교문화를 형성하는 활동을 펼치라"고 당부했다.

공원직원대상 불교문화 이해 강연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2월 8일 지리산 국립공원남부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원관리 사무소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화엄사와 국립공원관리 사무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서는 공원 내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강조했다.

부산 경남 포교사단 회장 이·취임법회



조계종 부산·경남 포교사단은 2월 11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제4대 단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박근호 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반야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실천하며 어린이와 노인을 아우르는 포교활동으로 말보다는 행동하는 포교사단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제14회 삼광한글학교 졸업식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2월 13일 제14회 삼광한글학교 졸업식을 거행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졸업식에서 도원 스님은 "한글을 깨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넓게 마음을 쓰고 지혜를 열어가는 첫 출발"이라며 "신행생활에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열린선원 기초과정 수료·수계식



서울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2월 15일 '열린선원 1, 2기 기초과정 수료 및 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6개월간 전주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김판순씨를 비롯해 기초과정을 마친 수료생 26명이 참석했다. 법현 스님은 "계율로 인해 깨달음에 더 가깝게 들어서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제55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삼천부처님이 계신 당 **감로사**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삼천배 참회기도를 제방 큰스님을 모시고 **음력 2월 10일**에 시작하여 삼천불 재일날인 **음력 2월 14일**에 회향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조복받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업장을 일시에 소멸하고 성불 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 일시 : 불기 2550년 음력 2월 10일 ~ 14일(양력 3월 9일 ~ 3월 13일) 4박 5일

■ 법문큰스님 : 지 관 (감로사 조실) 인 환 (동국대 교수) 정 관 (전 범어사 주지)
대 성 (범어사 주지) 세 민 (전 해인사 주지) 홍 선 (중앙승가대 교수)
각 성 (화엄사 주지) 금 담 (극락선원 원장) 법 희 (감로사 회주)
흥 교 (대각회 이사장) 태 원 (중앙승가대 교수) 정 여 (여여선원장)
성 우 (파계사 주지) 철 우 (영산율원 원장) 지 안 (승가대학원 원장)
경 성 (중앙승가대 교수) 지 운 (동화사 강주) 혜 총 (감로사 주지)

■ 삼천배유나 : 철우 큰스님
■ 인례사스님 : 종인 유초 경법 경원 경무 경제 경상 성주 원담 정관 각목 영월 경증 경지 경적 경소 경진 경여 경중 화용 법여 법준 법진
■ 동 참 금 : 5만원(위패 한 분 모시는데 1만원) ※ 회향날 방생갑니다.
■ 지 참 물 : 백미, 꽃, 과일 약간식(주무실 분은 담요 한 장)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주지 혜총 합장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 2동 33번지 전화 051)809-0926, 803-0188

천년의 인연 공덕

불상조성 복장·점안·장엄 불사 및 법당건립 불연 권선문

귀의삼보하옵고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과 제불 보살님의 대자비심으로 불자님 댁내에 가피가 두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금화사 한국불교 가야법사대학에서는 수행정진 도량으로써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상조성 복장·점안 불사의 대발원을 세웠습니다.

불상조성 : ● 대자대비관세음보살 ● 나무자모대원본존지장보살 ● 대지문수사리보살 ● 득 대세지 보살

▶ **불상조성 복장 일시**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양 2월 4일 (음 1월 7일부터)
▶ **접수 마감일** (부처님 열반일)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양 3월 4일 (음 2월 15일까지)
▶ **부처님 점안 장엄일**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양 4월 12일 (음 3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경(미타재일)
▶ **불상조성 복장장엄 동참자**
문의처 : 총무원 055)346-5115

대한불교 가야법사종 병풍산 천지금화사

한국불교 가야법사대학 총무원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43-1 총무원 055)346-5115
총무원장 석혜법 합장



불자 세상보기

고 성 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방치된 아이들, 누구책임?

현대 우리 사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와지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며,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비약적 발전으로 IT 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흐름 저편에는 문화적 혜택과 수용에 대한 지역적 격차와 세대간 격차, 왜곡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사고의 팽배, 상업주의와 향락문화의 확산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가족보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후기 물질주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자녀의 가치 역시 변화해서 '자녀'가 주었던 경제적 혜택이나 대를 잇는 존재로서 부모에게 주었던 심리적인 만족감은 줄어들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당 고 3때까지 드는 교육비가 전국 평균이 약 6200만원이며, 대도시는 교육비가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자녀양육을 포기하거나 재혼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자녀양육 책임을 지지 않아서 엄연히 부모가 있는 아이가 생고아가 되기도 하고 자녀를 학대하는 등 여기저기서 가족이 와해되고 사회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나라 전체 아동 가운데 방임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를 보면 2001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아동방임은 전체 학대사례 가운데 약 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집계된 아동학대 관련 사망 아동 25명 가운데 9명이 방임으로 사망했다.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은 심각한 발달상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특히 2세 이하 유아들이 방임되면 성장실패 증후군 등과 같은 회복이 불가능한 발달상태를 보일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방임은 화재나 각종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에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학대 유형이다. 주위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동네 형들과 어울리다가 비행을 학습하게 되고, 자신을 돌봐주는 형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좋아해주는 형으로 기억하면서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때로는 홀로 게임에 빠져서 컴퓨터 중독이 되기도 한다.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현대 사회에서 치명적인 것은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력난이 생기고 사회적 부양 부담이 커져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방임과 유기는 한 개인의 삶이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확대된다.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과 생존을 위한 경제의 논리에 뒤쳐져 부모로부터 방치되는 아동은 다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다. 비참한 아이들의 현실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지금은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참신한 미래사회의 꿈나무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국민적인 뜻을 모을 때이다. 돌봄의 사회, 배려의 사회로 가는 성숙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물론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했지만, 시설이 다양화되어야 하고, 유연한 시간 운영,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의 보육비용, 믿고 맡길 만한 보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 하며, 아동보육 지원정책 대상이 영 · 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결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아이들끼리만 살도록 하는 소년소녀가정제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동방임을 승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아이들에게 가장의 짐을 지우는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그룹 홈이나 가정위탁, 입양 등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왜 바꾸려 했는가?'가 의심스럽다.

또 그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도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끝났다. 바로 충남대의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개명 파동이 그렇다. 정말로 왜 바꾸려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정심화'라는 기증자의 이름이 붙어있으면 국제문화를 지향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수많은 다른 건물들에 기증자 내지 기여자의 이름이 번듯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개명을 추진했던 타당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 추진 이유가 꼭 총장이 기독교의 집사이기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고, 그렇게 의심하고 몰아가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총장이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 쓸데없는 구설수에 자신의 종교가 모독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옳은 일이다.

왜 법명 쓰면 안되나?

숭고한 뜻을 가졌던 정심화 보살의 유지가 꺾이는데 대한 대학생과 지역사회의 공분이 일면서 회관 개명은 결국 없던 일로 하였기에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 또한 아니다.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켰던 것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명과 조처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 것 없이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결코 올바른 마무리가 아니다. 되레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일 뿐이다.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여론의 비난이 집중되면 적당하게 호도하고 넘어가려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확실한 해명과 더불어 책임소재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한편, 불교계가 이번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잘못을 바로잡는데 힘을 보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 차분하게 불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지키고 실현한다는 차원으로 인식을 확산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큰 정의실현을 위해 대승적으로 행동하는 성숙된 불교된 모습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말의 공덕

추한 말을 멀리 여의라. 추한 말은 자기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무량수경〉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최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감정 표현 단어 434개 중 72%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대 심리학과 민경환 교수팀이 '한국어 감정단어'를 연구해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랑 · 행복 · 기쁨처럼 '쾌(快)'를 표현하는 말은 전체의 30%도 채 안 되는 반면 참담 · 배신 등 '불쾌'를 나타내는 단어는 70%가 넘는다고 한다.

민 교수팀은 참담하다, 한맺힌다, 억울하다, 배신감 등 불쾌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인류 진화사에서 '쾌'보다는 '불쾌' 쪽 정서에서 표현의 구별과 적절한 대처가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우리가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보다는 '힘들다' '피곤하다'는 말을 더 많이 쓰는 언어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좋은 말과 관심을 보인 양파는 무럭무럭 자라고 반대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양파는 상대적으로 덜 자라고 그 모습이 기형적으로 변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또한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되돌아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부처님은 〈숫타니파타〉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에 그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고 했다. 상대와 나를 살리는 말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수령(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밸런타인데이에 유감

14일 밸런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이날만 되면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 중학교를 다니는 딸아이 역시 며칠 전 같은 반 남자친구들에게 줄 초콜릿을 사야한다며 용돈을 달라고 했다. 여러 말 섞기보다 또래의 문화려니 하고 이해했다. 초콜릿 업자들의 상술에 의한 가짜 명절이라느니 논란도 많았지만 이젠 일상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진 느낌이다. 결국 서양 종교 성인들의 기념일이 영문도 모른 채 한국인들의 생활문화로 뿌리를 내린 것이다.

불교식으로는 관음 · 약사 · 지장보살의 재일을 기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 마치 대단한 기념일로 여겨지는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솔직히 불자인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불자들에게도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못지않은 명절이 많다. 달력을 보니 오는 3월 7일은 출가재일이고 14일은 열반재일이다. 또 올해는 5월 5일이 부처님 오신날이다. 더 이상 우리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이 서양 종교 기념일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이제는 가까이 있는 이웃을 위해, 친지와 가족들을 위해 정성어린 선물을 준비하는 풍습을 만들어 볼 것을 대한민국 불자들에게 권해본다. 최경자(울산시 남구 신정2동)

러시아 한인방송국 개국을 반기며

개인사업 때문에 러시아를 자주 오가는 편이라 1년에 5개월 이상은 러시아에 있게 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러시아에 관한 소식들에 귀가 가고 신문을 보더라도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얼마 전 불자친구가 한번 읽어보라면서 준 현대불교신문을 넘기다가 '하바로프스크에 한인방송이 개국된다'는 기사에 절로 눈이 갔다.

도수 스님이라는 분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에 법당을 개설하기 위해 한인방송 개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러시아를 비롯해 구소련에는 많은 한인들이 산다. 특히 하바로프스크주 전체에는 2만 여명의 한인들이 운집해 있다. 일제강점기 살기 위해 국경을 건넜지만 스탈린의 소수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다시 강제이주를 당한 한인들은 처참한 환경을 딛고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한민족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하바로프스크에 한인방송이 개국된다면 한인들은 뛸 듯이 기뻐할 것이다.

특히 민족정서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한인 2, 3세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한인방송 개국이 성사될 수 있는가다. 도수 스님뿐 아니라 러시아한인방송지원단과 (사)고려문화유산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한국의 불자들에게 러시아에 한민족의 얼을 심을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최영희(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인터넷 댓글 예절 지키자

늦은 나이지만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붓다뉴스로 기사 읽는 재미도 알게 됐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독자들이 달아놓은 주장들이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 논리적인 토론을 벗어나기도 하고, 인신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최근 황우석 관련 기사들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상반된 입장 사이에 높은 벽이 놓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독자들의 건전한 토론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할 곳은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붓다뉴스를 통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대불교신문은 논쟁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토론장을 만들어주거나, 좌담회를 열어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으면 한다. 건전한 토론문화는 불교를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다. 홍대현(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2006학년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명상(冥想) 기(氣)치유사 수련생 모집

인간 심신의 안정을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고도의 "마음 치유법" 자연치유 능력 활성을 돕는 놀라운 건강법 소개

접수기간 : 2006년 2월 1일부터 ~ 3월 8일 / 개강일시 : 2006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 교육기간 : 2학기 과정 ◆ 강의시간 : 수요일 오후 2시 - 4시 50분 ◆ 담당교수 : 박 세준
◆ 교수약력 :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기학전공) 박사 ·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 학기당 학습비 : 800,000원

● 교육목표

인간의 육체적 · 정신적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으나 본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소우주로 보고 이를 우주의 변화현상 속에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인간의 심신의 안정을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선천적 · 후천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고도의 "마음치유법"을 통하여 기치유(氣治癒)(healing)되는 기능성장애, 통증제어, 각종 증상을 치유 개선할 수 있는 자연치유 능력 활성을 돕는 놀라운 건강법에 대해 교육 할 것이다.

● 강의내용

1. 명상(冥想)이란 무엇인가?
2. 명상치유(영적 프로그램)
3. 심리치유(심리적이완, 치유 에너지 증폭)
4. 심리요법(내적 심리 프로그램)사이먼튼암요법+활선법
5. 신체적 운동과 기치유 동공
6. 명상의 실천수행 1 - 사념처관(위빠사나)사선팔정법
7. 명상의 실천수행 2 - 기공수련의 응용(병원실습)
8. 명상의 실천수행 3 - 기공수련의 응용(병원실습)
9. 명상치유 1 - 업력과 유전자의 관조
10. 명상치유 2 - 자기긍정을 통한 무아의 세계
11. 명상치유 3 - 건강상태와 건강의식 내시(오장육부)
12. 명상치유 4 - 자기 자의적 명상 치유법 전개
13. 사선팔정(四禪八定) 석가기공(釋迦氣功)
14. 총괄평가

관련 자격증 임상심리경력자에 한하여(1년-3년)시험자격이 주어지므로 실습위주의 교육. 보건복지부-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임상심리사... 2급개설, 병무청- 2008년부터 임상심리사배치 신체검사시 인성검사 주요강화.이 외에도 가정폭력전담센타, 경찰수사, 성폭력, 청소년비행, 약물오용, 미혼모 등 상담사로서 역할이 다향해 지고 있다.

현공(玄空) 기(氣)풍수 인테리어 풍수사 과정 모집

공간은 무한한 시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한량없는 기(氣)의 바다이다.
인간이 대 우주안의 지구라는 공간에서 자연과의 호흡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공적인 것을 자연적으로 가장 효과있게 응용하는 것이 풍수인테리어 일 것이다. 사람이 가장 많이 머무는 것이 잠자는곳 집일것이며,집은 정(靜)적인 영역이요 직장(사무실 상가 일터)은 동(動)적인 영역이다.이런곳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인공적 환경요 건이다.
인간은 그영역에 있다.그러므로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응용 발전시켜 공간의 배치, 개념의 제시, 이미지선정, 구조선택, 실례의 소개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의 조화, 성취방법등의 환경개운학(環境開運學)이 즉 현공(玄空) 기(氣)풍수 인테리어다.

o 1주 : 공개 강좌 - 풍수와 기(氣) o 2주 : 풍수 인테리어 구성요소
o 3주 : 기(氣)풍수 가구배치법 o 4주 : 집의 형태와 구조
o 5주 : 용의 지맥과 터잡기 o 6주 : 인테리어 조경풍수법
o 7주 : 대지 지적상 가옥 배치 o 8주 : 도시풍수
o 9주 : 아파트 풍수 o 10주 : 팔괘와 응용 풍수 인테리어
o 11주 : 풍수 인테리어 기본원리 o 12주 : 팔괘와 구성법과 인테리어 응용
o 13주 : 인간과 마음의 조절풍수 o 14주 : 기(氣)의 개발 (발기법)
o 15주 : 인테리어 풍수 운명예측 o 16주 : 풍수인테리어 심리효과 개발 및 치유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 사회교육원 : 홈페이지 http:dgucc.dongguk.edu → 관련기관 → 사회교육원 → 특별교육과정 → 명상기치유사과정,또는 한글로 동국대사회교육원으로 클릭하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 동국대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 전화 02)2260-3728~9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등불을 밝혀 무명에서 벗어나소서

봉축행사연등



※장식용 수술은 별도

공단등 23Cm(大) /18cm(中) /15cm(小)
색상 : 황금,연분홍,진분홍,오렌지,노랑,오색,흰색(영가등)



연꽃등 6cm : 1BOX 20개입/8cm : 1BOX 16개입
색상 : 보라,연두,연분홍,진분홍,주황,흰색(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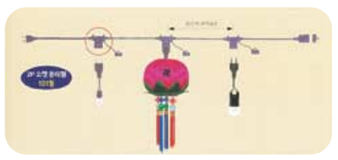


비단팔모접등 28cm × 24cm 색상 : 분홍,노랑,초록,빨강



※ 주문제작가능

팔각조립등 26cm × 28cm 색상 : 분홍,파랑







(법당용, 외곽용)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사찰용 연등전선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월등 32cm × 32cm
색상 : 분홍,빨강,파랑,노랑,초록,흰색(영가),오색등



유등 (流燈) ※ 주문제작가능
제작기간 : 15~20일 전면인쇄가능



캐릭터 청사초롱
고급본염인쇄



중등 40cm × 27cm
색상 : 노랑,연두,분홍,빨강,파랑



황금연등
재질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6인치(폭 19.5cm × 높이13.5cm)
8인치(폭 23cm × 높이18.5cm)
10.5인치(폭 28cm × 높이21.5cm)
13인치(폭 34cm × 높이30cm)
20인치(폭 48.5cm × 높이40cm)
※ 장식용 수술 별도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농협 053-01-265785 /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서적의 모든 것 www.yosiamun.com

인터넷 불교 서점 여시아문 닷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세상 모든 부처님 말씀은 여시아문에~

국내최대,최고의 인터넷 불교서적 전문몰 여시아문, 여시아문에 없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여시아문은 2000년 10월 오픈하여 국내최대의 불교서적은 물론 불교정보를 바탕으로 불자님들에게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교 관련 도서 정보, 외국도서주문, 회원할인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교계 최초의 전자북서비스를 오픈하여 IT시대의 불교계 선두주자로 불자님들에게 다양한 최신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 해외도서 사이트인 왓더북닷컴과 외국도서 독점공급체결!!
해외불교서적은 물론 인도 도서와 일반 외국도서까지 국내 최저가격 판매, 택배배송으로 편리하게!!

[도서분류]
경전, 법문, 교리, 선, 불교학, 불교사, 명상, 불교문학, 한글대장경, 교양도서, 일반서적, 법보시서적 일체 …

[주문방법]
- 온라인 여시아문을 통해 도서를 검색하여 주문 가능
- 인터넷 주문이 불편할 경우 전화나 팩스로 주문 가능

[법보시 도서] ▶법보시 공양이란?
영가천도, 49재, 결혼, 학업성취 등 뜻이 있는 날이나 기원하는 서원(발원문)을 담아 부처님전이나 승단 또는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모아 보시를 베푸는 것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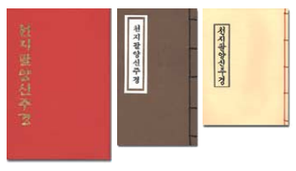
[법보시 단가]
① 30권이상~50권이상 - 10%할인 ② 100부이상 - 20%할인
[단, 법보시도서의 도서를 법보시하시거나,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품절 될 수도 있습니다.]

③ 법공양문은 100부이상일 경우 무료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단, 독경용 도서에 사찰명 인쇄 시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❶ 독경 및 서원(발원)에 법보시하기 좋은 도서[경전도서]



◀금강반야바라밀경
가격 : 각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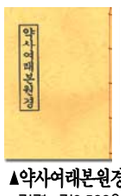
천지팔양신주경 ▶
가격 : 각2,500원
종류 : 한장본, 포켓용,수첩용

❷ 영가천도 및 기일에 법보시하기 좋은 도서[경전도서]

-〈장수멸죄경〉은 여러 경전들 가운데도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풀이나 나무 줄기 하나도 해치지 말라는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적인 구성의 경전입니다.



◀장수멸죄경
가격 : 각2,500원



▲약사여래본원경
가격 : 각2,500원 종류 : 한장본,포켓용,수첩용



가격 : 각3,500원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인데 줄여서 〈약사여래본원경〉 또는 〈약사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혹은 육체적인 수많은 질병에서 건져주고자 하는 약사여래의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❸ 염불과 기도에 도움이 되는 도서[경전도서]

-불교에서 많이 읽혀지고 기본적인 경문들을 수록한 것으로 불경에 대해 초보자인 불자들도 법당에서 독경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문집이며, 이런저런 경에 대해 복잡하게 찾을 필요없이 기본적인 경문을 수록하여 크지도 않은 부피로 언제 어디서든지 불경을 독경하실 수 있습니다.



◀불자독송집 (감로출판사)
가격 : 4,000원

불자독송집 (우리출판사) ▶
가격 : 5,000원



❹ 사경공덕에 좋은 도서[경전도서]

-불경을 베껴 쓰는 것을 말하며, 불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으로 사경에 임하는 일은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기도이며 수행입니다.



가격 :1,500원 | 가격 :3,500원 | 가격 :5,000원 | 가격 :4,500원 | 가격 :6,000원

〈운주사 사경시리즈〉
반야심경사경 : 3,000원
부모은중경사경 : 2,300원
이야기불교한자사경 : 5,500원

여시아문 고객센터 02) 737-0695 (02)2004-8220 농협 053-01-265785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등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開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고봉, 석릉, 관응,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代),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2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 566 호



"따뜻할 때 드세요". 서울역에서만 20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꿈바위 불교교육원' 공세화 원장(오른쪽). 나누는 것이 '참불자'라고 믿는다.

공양물 나눠주기 20년 … 꿈바위불교교육원 공세화 원장

"배움의 열정 나눠 드려요"


생활불교를 표방하는 '꿈바위불교교육원'의 강의 모습.

"생활에서 불법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묻고 답하기, 맨발산행 등 교육 방식 독특
공부 후 서울역에 나가 '먹을거리 나눠주기'
사회봉사활동 노하우 불교인재 양성에 투자

"오늘도 서울역의 어려운 분들을 공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 안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역 노숙자 분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사회 속에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월 9일 서울 중곡동 '꿈바위 불교교육원'. 허름한 4층 건물 꼭대기에서 우렁찬 기도 소리가 흘러나온다. 기도가 끝나자 10여명의 불자들은 불단 위에 쌓여있는 떡을 비닐봉지에 싼다. 그 중심에서 희끗하게 센 머리로 불자들을 지휘하는 사람. '꿈바위 불교교육원' 공세화(65 · 법명 홍증) 원장이다.

공 원장과 신도들이 서울역 광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날이 궂다. 눈발이 흩날려 시야가 흐릴 정도다. 공 원장은 아랑곳 않고 양손에 봉지를 감아쥔 채, 신도들에게 말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지극정성으로 떡을 나눠드려야 합니다. 복을 받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불쌍타는 생각도 마세요. 그저 이웃을 대하는 마음만 가지세요."

서울역에서 '먹을거리 나눠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공세화 원장. 벌써 20년 째 김밥 · 주먹밥 · 계란 등의 먹을거리를 보시해왔지만 한 번도 특별한 행사라 생각한 적이 없다. 그에게 서울역은 나눔의 장소이고, 배고픈 이웃과 먹을거리를 나누는 기쁨의 도량이기 때문이다.

나눔을 끝내고 공 원장이 돌아가는 곳은 '꿈바위 불교교육원'. 20평 남짓한 공간에 법당과 살림을 함께 꾸리며 살고 있는 그곳은 공 원장의 '생활불교' 터전이다. 불자교육을 위해 바친 세월이 '꿈바위' 안에 켜켜이 쌓여있다.

사실 공 원장의 첫 사회봉사활동은 불교 안에 있지 않았다. 1976년 설립된 '꿈바위'의 이름도 '꿈바위 사회교육원'이었다. 그것이 공수도 유단자인 공 원장의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다. 그 때 내건 것이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태권도장에다 국어, 사회 등의 학습지도까지 붙여놓으니 찾는 사람이 꽤 많았다. 이윽고 지점은 전국으로 뻗어나갔다.

그렇게 5년 정도 지났을까, 공 원장은 세속적 성공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렸을 때부터 '불교'와 이어진 인연이 공 원장에게 이미 삶의 일부가 됐기 때문이다.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 새로운 꿈이 제 안에서 솟아올랐어요.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무료로 제대로 된 불교를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꿈바위'를 불교교육원으로 바꾸는 데는 성철 스님의 영향이 지대했다. 경남 산청 출신인 공 원장은 성철 스님의 초등학교 후배. 나이차는 크지만 성철 스님이 해인사 백련암에 주석할 때부터 드나들면서 법문을 듣고 담소를 나눴다. 공 원장은, 성철 스님을 친견하기 위한 '통과의례' 3천배 없이 내담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재가불자 중 하나였다.

"성철 스님께서도 우리 불자들이 제대로 알고 생활에서 불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셨어요. 스님 말씀에서 저 역시 불자들의 교육에 제 인생을 걸었지요."

그럼 공 원장이 '꿈바위'를 통해 '생활불교'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공 원장에게 '생활불교'는 무슨 의미이기에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놓지 못하고 있을까.

공 원장의 '꿈바위불교교육원'에서는 여느 사찰이나 포교당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성철 스님이, 매일 한 번씩 읽어 중생들이 업장을 소멸하는데 사용하라고 일렀다는 <대불정능엄신주> 독송과 맨발 백두대간 산행 등 일반인의 눈으로 보자면 유별난 것 투성이다.

여기에 더해 <금강경> <지장경> 등의 경전도 함께 독송하고 뜻도 새긴다. 기도일이 정해져 있거나 공부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언제 와서 공부를 하건, 공 원장은 불자 한 명 한 명에게 교육하는 것을 신조로 삼는다. 의문 점이 있으면 서로 묻고 답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공 원장의 교육 방식이다.

다만 공 원장의 원칙은 공부 후 실참수행이 따르고 반드시 회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회향이 바로 서울역 '먹을거리 나누기 운동'이다. 누구든 서울역 회향은 '실천코스'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 원장은 공부만 잘 하는 것도, 회향만 잘 하는 것도 틀렸다고 말한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오롯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생활불교'라 믿기 때문이다.

한 때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혹독하고, 힘들다고 소문나기도 했다. 그 탓인지 공 원장의 교육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가장 오래된 신도 박거명(58) 보살도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엄격한 원장님 때문에 올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지금 박 보살은 그 누구보다 공 원장의 뜻에 동조하고 공부하면서 회향하고 있다. 박 보살뿐만 아니라 신도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원장님 아니었으면 아직도 절에 가서 '이거 해 주세요' 하고 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부처님 법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알아주는 신도들이 늘어도 현실은 공 원장이 꿈꾸는 것만큼 따라와 주지 않았다. 너무 실천을 강조해서인지, 쉽게 살고자 하는 세대들에게 공 원장의 방법은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20년 넘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말이다.

그래도 그의 꿈은 꿈바위 안에서 꿈틀댄다. 그 꿈을 현실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기 위해 공 원장 역시 오늘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회향하는 3단계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몸, 부처님께 의탁해서 법당 하나 잘 건사하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지금껏 살아왔다.

손윗누이 등 가족들에게는 걱정을 많이 끼쳤지만 공 원장에게는 더 큰 포부가 있기에 뒤돌아볼 것도 없고 미련도 없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법당이고 신도 수도 많지 않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소위 '치마 불교'가 달라지고 불자들이 바로 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안에 '꿈바위'가 우뚝 설 날이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꿈바위'의 꿈이 널리 퍼질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글=김강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구담사 대한 불교조계종 www.gudamsa.org

아가야, 미안하다!
태아 영가 엄마,아빠 49재 참회기도

• 입재일 : 양력 2006년 3월 5일(일요일) 오전10시 • 회향일 : 양력 2006년 4월 23일(일요일)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구담사는 매년 양력 3월, 6월, 9월(첫째주 일요일)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올리어 기도 입재 하오니 많은 동참하여 엄마, 아빠의 참회기도 동참으로 어두운 태 속에서 쓸쓸히 사라져간 태아 영가를 위해 극락왕생 기도 발원합시다.



엄마, 아빠 참회 기도

아가야! 미안하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때 널 버린다는게 죄인지도 몰랐다.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게 한 나를
용서 해 줄수있겠니?
아가여! 영가여!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
이제 뒤늦게나마 눈물로 참회하고 기도하는 구나.

◉ 준 비 물 : 분유(우유), 과일, 사탕, 초코파이 등(5재때는 관욕을 하오니 수건, 양말, 신발, 비누, 아기 옷 등)

◉ 구담사 버스안내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앞 오전 8시 출발
• 도봉산역 1-7호선 오전 8시 출발 →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앞(포천방향)
• 조계사 앞 오전 7시 출발

태아영가 천도재는 왜 하는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낙태. 유산 되어버린 태아령을 위해 원결을 풀어지게 하는 것이다
• 가정에 우환 없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발원 기도하시는 분
• 막힘 없는 사업 번창을 발원 기도하시는 분
• 학업 원만성취를 발원 기도하시는 분

※태아령은 : 부모의 업으로 살생한 업보요 조상은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같이 위패를 쓰거나 천도재를 지내지 않는다.

◉ 전화번호 : 대표 (031)533-2855, 2584, 팩스 (031)532-2441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17801-04-021932 (예금주 구담사)
농협 225051-51-113712 (예금주 구담사)

※위패 봉안하는 관계로 미리 동참하여 접수 바랍니다.
※지방 불자님 접수 받습니다.

※구담사 대웅전 중창불사 모연 中

대한불교조계종 엄마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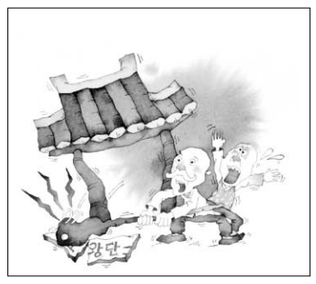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6> 파타야(破墮也) 선사

할로써 죽이고 방으로써 살린다고 했다. 무엇을 죽이는가? 물론 번뇌망상이다. 무엇을 살리는가? 반야지혜이다.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려야 한다.

물론 죽이는 게 살리는 것이 되고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임제선사는 할로써 죽일 것을 죽였고 덕산선사는 몽둥이로 살릴 것을 살렸다.

선가에는 할과 방이 별명 정도가 아니라 '두들겨 패는 것'이 진짜 이름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 파조타(破竈墮)선사가 그 주인공이다. '조왕신을 패서 쓰러뜨리다'라는 의미인데 가운데 '조(竈)'자를 빼면 파타(破墮)가 된다. 어디 조왕신 뿐이겠는가? 일체의 모든 상(相)을 다 부수어버린다. 방과 할을 동시에 자유자재로 구사한 경우라 하겠다.



파조타 선사가 숭악(崇嶽)에 있을 때다. 산중턱에 재각(齋閣)이 있었는데 영험이 많다고 주변은 물론 멀리는 사라졌다. 이 광경을 문 밖에서 보고 있던? 시자들이 말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좌우에서 모셔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조왕신에게 무슨 법을 설하셨길래 해탈을 얻었습니까?"

"무슨 별다른 법이 있겠느냐? 다만 그에게 '진흙과 기왓장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일 뿐인데 그 영험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라고 했을 뿐이다."

이는 연기법을 조왕신의 근기에 맞게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시자들은 영험담으로만 듣고서 히히덕거릴 뿐이었다. 보다 못한 선사가 대갈일성을 하였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법문을 듣고도 왜 절을 하지 않는거야."

고함소리에 놀라 엉거주춤 일어나 할 수 없이 절을 하는데 선사가 주장자로 사정없이 머리통을 내리치면서 할을 했다.

"파야(破也)! 타야(墮也)!(깨졌다! 무너졌다!)"

주장자와 할로 번뇌망상 사정없이 날려버린 파조타 선사 '두들겨 패다'란 이름 얻어

까지 소문이 퍼졌다. 당연히 공양물을 올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재물을 올리기 위하여 소 돼지 등 산 목숨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선사는 가축들이 도살당하면서 내는 울음소리를 듣다못해 어느 날 시자 몇 명을 데리고 주장자를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왕단에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그대는 본래 진흙과 기왓장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일 뿐인데 영험은 무슨 영험이며, 또 그 영험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는 말이 끝나자마자 다짜고짜 주장자로 두들겨 패면서 할을 했다.

"파야(破也)! 타야(墮也)!(깨졌다! 무너졌다!)"

조왕단이 바로 무너지면서 푸른 옷에 높은 관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다.

"내가 이 재각의 조왕신인데 이제 선사의 무상법문을 듣고 해탈을 얻었습니다."

말하고 나서 조왕신은 두 번 절을 하고 이 한마디에 모두가 그 자리에서 깨침을 얻었다. 머리에 혹 몇 개 돋은 게 대수랴. 파조타선사가 파타야 선사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다. 조왕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안목까지 열어준 까닭이다.

'파야 타야'를 줄이면 '파타야'가 된다. 동남아 불교성지 순례를 가면 십중팔구 들리는 관광지가 파타야(Pattaya)이다. 관광(觀光)은 풍광뿐만 지혜의 빛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우연의 일치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겠지만 파타야는 번뇌망상을 부수어 날려버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봐도 좋을 것 같다.

파타야에서 놀이에만 빠지지 않고 파조타 선사를 떠올릴 수 있으면 조계종 종도로서의 기본자격은 갖추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파조타 선사가 생각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가봐야 할 인연있는 이름자리라고 하겠다. 하긴 처처(處處)가 법당이라고 했으니까.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떠오르는 생각·감정 알아차리세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1일 관법명상' 현장

명상학과 황용식 교수 지도

"온 주위를 모아 숨이 코로 들어갈 때, 그 언저리와 어떻게 접촉하는지 관찰하세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자, 이제 숨이 코 밖으로 나갑니다.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나지막이 흐르는 목소리가 수련생의 마음을 파고든다. '느껴 알아차리기.' 호흡관찰이 진행된다. 숨결이 거친지 섬세한지, 따스한지 서늘한지 날숨과 들숨이 명상의 밀도를 높인다.

2월 12일, '1일 관법명상' 수련회가 열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법당. 매월 둘째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수련회를 지도하는 황용식 교수(54 · 명상학과)가 온몸에 대한 감각 관찰이 서툰 관법명상 입문자 7명에게 호흡관을 안내했다.

'관법(觀法)명상.' 평정심으로 호흡과 감각의 관찰을 중시하는 인도 고엔까(Goenka) 계통의 위빠사나를 기초로 하는 명상법이다. 행법은 호흡관을 방편으로 하고, 수행원리는 다분히 대승관법(大乘觀法)과 닮았다. 그러다보니 생소한 관법명상으로 수련생들의 낯빛이 붉어졌다. 팔다리가 제 자리를 못 찾고, 호흡관찰을 놓치기 일쑤다. 잠시후, 황 교수가 말 한마디를 툭 던졌다.

"느껴 알아차리세요."

오전 10시부터 50분씩 이어진 명상이 끝나자,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1:1' 개별 인터뷰가 진행됐다. 명상체험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해내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다. 스승과 제자가 허심탄회하게 묻고 답하는 '입실지도'다.

수련생 정승혜씨(39 · 서울 독산동)와 함께 따라가 황 교수와 마주 앉았다.

"호흡관찰은 잘 되나요?"

"얕으면 얕은 대로, 깊으면 깊은 대로 관찰돼요. 마음을 편하게 하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는군요."

"바로 그것이 중요해요. 주어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보면 되는 거죠."

일대일 인터뷰 통해 명상체험 언어로 표출
근본 성품 깨워 드러내는 것이 포인트
일상서 마음 챙기면 매순간이 명상

'1:1' 개별 인터뷰는 수련생이 명상수련에서 겪는 고민을 털어놓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부부 문제, 대인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속살까지도 제한 없이 오갔다. 일상 속에서도 명상을 통해 실질적인 마음 씀씀이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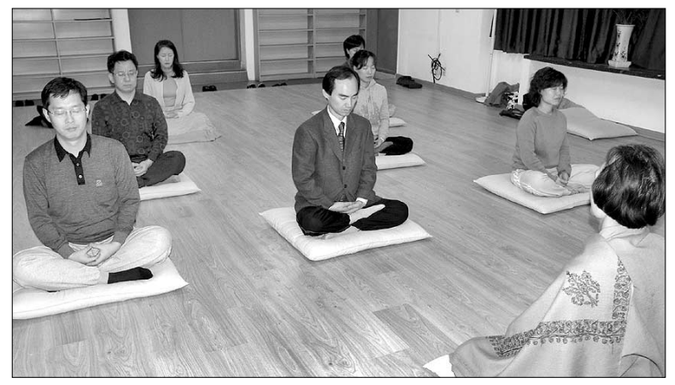
개별 인터뷰가 마무리 되자, 곧장 황 교수의 담화(설법)가 진행됐다.

"관법명상은 일상에서도 본래 활짝 깨인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자각이 중요합니다. 근본 성품을 깨워 드러내는 것이 관법명상의 핵심인 겁니다. 자비와 지혜로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을 제어한다면, 모든 일상사가 그대로 명상이 됩니다."

감각 등을 매개로 마음이 자신을 알고 보려는 것이 관법명상이란 황 교수의 설명. 몸과 마음으로 이뤄진 자신을 하나하나 챙길 것을 잊지 말라고 수련생들에게 당부했다. 걷되 마음을 챙기면 걷기 명상이 되고, 청소하되 빗자루와 쓰레기와 일체가 되는 마음을 내면 청소명상이 된다는 이치이다.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수련생 서현령씨(44 · 서울 삼전동)는 "무거운 지게를 메고 가다 잠시 막대기를 걸쳐놓고 쉬는 느낌을 받았다"며 "호흡이 잘 느껴지고 감정의 흐름을 잘 짚어낼 수 있어 내면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02)890-2834 www.sgsb.ac.kr

글 · 사진=김철우 기자



관법명상 수련생들이 황용식 교수의 지도로 '호흡관찰' 수행을 하고 있다.



황용식 교수(오른쪽)와 수련생이 '1:1' 개별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본래부터 밝아 있는데 왜 못 보는가?"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 '선가귀감' 강설



"선가귀감은 불조(佛祖)의 골수만을 담아 선의 고갱이를 짚어낸 선어록입니다. 본래부터 밝아 있는 불성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못 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 성품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선원이전을 계기로 2월16일 '<선가귀감> 강설'을 시작한 서울 돈암동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사진)은 <선가귀감>이 수행자들에게 선수행의 바른 길을 제시한다고 단언했다.

"우리가 불교를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중생심에서 아는 것일 뿐입니다. 중생의 알음알이로 부처의 깨달음을 가늠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부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선가귀감은 놔버릴 '그 무엇'을 드러내주고, 자각케 해줍니다."

'본래불성 드러내기'와 '놓아버리기'. <선가귀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스님은 강조했다. 무엇을 놔버리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지, <선가귀감>은 그 대답을 '거울' 같이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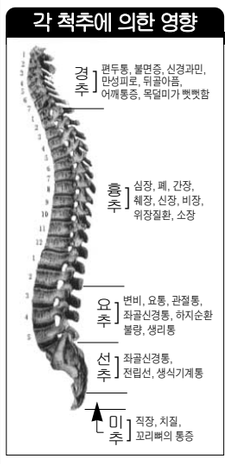
"선가귀감은 잘 · 잘못 모두를 비춰냅니다. 겸손과 경책의 거울을 내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비추기만 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아상을 베어버릴 '법의 칼날'도 숨겨놓고 있습니다. 역대 조사들의 간절한 지침서인 선가귀감을 의지해 그 깊은 뜻을 다시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 귀중한 일입니다."

출 · 재가자 구분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번 강설은 5월18일까지 매주 목 오후 7시에 열리며 자유로운 문답시간도 이어진다. (02)953-5291

글 · 사진=김철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기문 명리학
(특강 :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 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6학년도 봄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모집과정

과정명	분 야	세 부 과 정 명
교양교육	불교학	불교란 무엇인가, 참선수행, 경전연구(능가경), 불교한문(금강경), 불교상담사
	건강	선요가(초급, 중급), 선무도(고급,사범,연구반), 선요가초급, 중급(야간)
	문화 · 예술	초급한문(명심보감), 사군자, 문인화, 서예, 전통민화실기 Ⅰ, Ⅱ, 전통생활자수, 고전(전통)무용, 한지화(일반,전문), 불교정통꽃꽂이(초급,중급)
	명리 · 풍수	명리학(초급,중급 연구반)(주간,야간), 명리학전문(사주풀이반 실전과통변반) 기문정명학(초급, 중급, 연구), 성명학(초급,전문), 인상과 개운(주간, 야간) 생활풍수, 벽계풍수(야간),풍수지리평가사기초반, 풍수지리평가사, 현공기통수인테리어풍수사(야간)
전문교육	불교전문교육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의 중교학적 이해, 불교와 정전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 과정 수료자는 동국대 총장명의의 불교학 법사 인증서를 수여함
부동산과정	경제	부동산재테크, 부동산 경매
특별교육	문화,예술	파티테이블 & 플라워
		POP(손글씨광고디자인) 창업반
		표현예술치료(1단계 ~6단계)
	건강	명상기치유사
	생활	커피전문가
자격증과정	아동미술실기지도사	※과정수료자는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아동미술심리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 협의회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 – 아동미술심리지도사과정: 전문대학 졸업이상 – 아동미술실기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한문지도사, 주산활용교육사, 가요전문지도사 글쓰기지도사: 고졸이상
	한문지도사	
	주산활용교육사	
	글쓰기지도사	
	가요전문지도사	
	색채심리분석사	과정수료자는 민간자격협회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심리상담사(2급)	과정수료자는 한국상담연구원 주관 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응시자격 부여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교양과목	가족치료의이론과실제, 식생활과건강, 한문, 일본어, 중국어, 불교학의 이해, 인간과윤리, 경영학개론, 생활일본어, 영어, 교육과사회, 생활법률, 북한정치와 사회, 한국정치의이해, 무역학의이해, 의복과현대사회, 행정학개론, 생활풍수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단,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등 일부과정제외)
원서접수 2006년 2월 1일(수) ~ 2월 28일(화)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학술관 1층)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모집시기는 행정지원실로 문의 바람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 1매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TEL 02) 2260 - 3728~9 / FAX 02) 2260 - 3730
홈페이지 : http://dgucc.dongguk.ac.kr/~soedu/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해조음 刊 원통 저 신국판 390쪽


금강경 속에 담긴 사람수명 팔만사천세의 의미
아함경에는 사람 수명이 팔만사천세가 되면 미륵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미륵이 오시면 사람 수명이 팔만사천세의 시대가 된다. 이러한 믿기지 못할 내용이 금강경 사상이다.
금강경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 후 오백세(말법시대)를 위한 경이다.
2. 이 경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그를 천대 멸시, 배척 할 것이다.
3. 이 경을 공부해서 얻어질 공덕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머리가 어지러워 미쳐버릴 정도이다.
4. 수명에 대한 상(相)을 가진 사람은 이 경을 이해 못한다.
5. 법신과 세계와 중생은 본래 하나로 합한 모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내용은 사람 몸이 금강불괴신이 되어 팔만사천세를 사는 진해탈을 암시하고 있다.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보급 총판 운주사 02) 3672-7181 ~ 5 / 010-3699-9120

“아이들이 불자회 복덩이랍니다”

우리은행 서울불자회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봉사현장


“자, 얘들아, ‘아빠’ 청소한다.” 우리은행 서울불자회는 매달 둘째주 토요일 승가원 장애아동요양시설을 찾아 장애아동들과 함께한다.

“우리 복덩어리들, 보고 싶었어!”

2월 11일 토요일.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원장 지웅)이 아침부터 떠들썩했다. 우리은행 서울불자회(회장 이탁수) 회원 10여명이 찾아 온 것이다. 불자회 홍보부장 이재상(50 · 본점 외환계 과장)씨를 비롯한 회원들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번쩍 안아들었다.

장애아동들도 우리은행 불자회 ‘아빠’ ‘엄마’들이 반가운지 얼굴을 보자마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과 만난지 어언 6년

잠시 장애아동들의 ‘환대’를 받은 회원들은 놀아달라고, 책 읽어달라고 옷깃을 잡는 ‘고사리’ 손을 어렵게 떼어놓았다. 봉사자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자회원들이 아이들과 마주한 지도 벌써 6년. 회원들은 그간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봉사하는 날’로 정하고 그 약속을 굳게 지켜왔다. 회원 개개인이 알아서 찾아오기에 이제 ‘연락책’도 필요없다.

불자회원들은 우선 앞치마부터 하나씩 두르고 할 일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어 식당 · 창고 · 놀이방 · 중증장애아동실 등으로 나눠 맡은 위치를 찾았다.

여기서 봉사부장 김월성(43 · 성균관대지점 차장)씨는 단연 ‘멀티 플레이어’. 설거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청소를 하고 있고 밖에 있는가 하면 중증장애아동실에 있다. 김씨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분주히 이곳저곳을 누볐다.

매월 둘째 토요일 봉사의 날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 봉사의 최대 난코스는 중증장애아동 식사 수발과 목욕. 거동을 하지 못해 숟가락을 직접 입에 넣어 밥을 먹여줘야 하는 중증장애아동들은 누워서 식사하다 보니 잘못하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러나오는 것이 더 많다. 적절한 양조절과 아동과의 교감이 중요하다.

목욕의 경우, 아이들을 씻기고 옮기는 것 자체가 힘들다. 아동들은 씻기는 와중에 용변을 보는 등 봉사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힘든 일에는 윤유숙(56 · 비산동 지점장)씨가 중심이다. 윤씨는 윤희(가명 · 10)를 안고 밥을 떠먹여주면서 “아이를 키워봐서 별로 힘들지 않다”며 웃음 지었다. 장애아동이라는 ‘분별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은행 서울불자회가 이처럼 ‘모범 불자회 봉사단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불자회 내부 화합 덕분이다. 이탁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굳은 의지로 모든 일에 앞장서고, 그 뒤에서는 다른 회원들이 든든하고 묵묵하게 걸음을 함께 옮겨 왔다.

‘놀아달라 책 읽어달라’ 환호

김월성씨는 “회원들에게 강제성이 없을 때 진정으로 봉사활동을 좋아할 수 있다”며 “직장 불자회가 법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장 활동을 통해 발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대사회활동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봉사활동이 친목도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불자회’에 나오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럼 매달 승가원장애아동들을 만나는 불자회 개개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여기 올 때마다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생활 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애들 웃음 속에서 녹아버리거든요.”(용산지점 손을선 대리)

“승가원에 들렀다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도 새롭게 보여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봉사’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본점 김삼성 과장)

청소 · 식사수발 · 목욕 봉사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용변을 치우고 나면 식사도 못했다는 회원들. 하지만 불자회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한 번, 두 번 방문 횟수가 늘어갈 수록 아이들과 정이 들어가고, 회원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길이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에 머문다는 것을.

봉사활동을 갈무리 할 무렵, 불자회원들은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에 올해 첫 성금 50만원도 전달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매 분기별로 회비를 모아 정성스럽게 마련해 온 것이다.


식사수발과 설거지를 맡은 불자회원.

회비 모아 성금 50만원 전달

아이들과 헤어지고 문밖을 나오는 길. 발이 안 떨어진다. 다음 달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안아주겠지만 그래도 자꾸 눈에 밟힌다.

이탁수 회장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한 후에 아이들을 만나면 더 반가울 것 같다”며 “승가원에 올 때마다 불법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 1사분기 성금입니다.” 이탁수 회장이 시설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고령경찰서 불자 법우회가 2월10일 반룡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고령경찰서 불자 법우회 창립

경북 고령경찰서 불자 30명이 2월 10일 반룡사에서 불자 법우회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서 법륜 스님(반룡사 주지)은 “역사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잘 간직되어 있는 고령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경찰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부처님 마음과 정신에 입각해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며 길을 밝혀주는 경찰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초대회장에 선출된 김유택 경감(고령지구 대장)은 “107명의 전체 직원 가운데 70~80%가 불자임에도 불자회가 결성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안타까웠다”며 “일일이 개인적인 의사를 확인해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령경찰서 법우회는 앞으로 반룡사에서 월 1회 정기법회를 갖고 사찰예절과 기초교리등을 배우고 참 불자로서 신심을 다져 신행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불자 법우회는 또 경찰뿐 아니라 일반직원들까지 활동하도록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글 · 사진/고령=배지선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일탈의 유혹 진언으로 벗어나”

전문택 공인회계사

“한 주를 불공으로 시작하면 조금이나마 부처님 법에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본래의 ‘나’를 찾아 진언을 외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새벽 5시면 진각종 서울 밀각심인당(진각종의 법당)에서 만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전문택(52 · 법명 묘정 · 사진)씨. 왼손 검지손가락을 세워 오른손바닥으로 왼손 검지를 감싸 쥔 금강지권(金剛指券)을 한 채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 수행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월요일, 전씨가 출근하는 곳은 당산동 ‘공인회계사 전문택 사무소’. 전씨가 자리에 앉고 나면 하루 종일 팩시밀리와 전화기에서 ‘불’이 난다. 이제 18년 된, 노하우 있는 ‘베테랑’ 공인회계사다보니 세무문제를 의뢰하는 회사나 사업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매일 이렇게 의뢰인들의 요청 속에서 정신없이 살지만, 전씨는 자신에게 일이 많은 것을 늘 감사하고 있다. 가끔 ‘무리하게’ 세금 납부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자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지만, 전씨의 마음속에는 부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 굳건하다.



“일탈의 유혹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 때는 일요일 불사를 통해 마음을 정리합니다. 심인당에 매일 갈 수 없어 평일에는 집에서 아침 5분 명상과 진언 염송을 하고요. 새롭게 하루를 열고, 정법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전씨가 이렇게 독실한 불자가 된 것은 순전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향이다. 항상 심인당에서 불공을 드리고 수행을 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이끌려 전씨도 어린 시절부터 심인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빠짐없이 불사시간을 지키게 됐다.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고 삶은 삶’이었다. 그러다 전씨에게 위기가 닥쳐왔다. 1998년, 전씨는 간암말기 진단에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날벼락’이 따로 없었다. 한창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잘 되고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던 때였다.

“앞이 깜깜했죠. ‘꼼짝없이 죽는구나’ 싶어 삶을 뒤돌아 봤어요.”

지금이야 여유 있게 이야기 하지만, 당시 전씨는 ‘절망’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맛봤다.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전씨를 위로한 사람들이 밀각심인당 도반들이었다. 전씨를 살리기 위해 불공을 드리겠다는 도반들의 정성에 감동, 전씨도 수행에 매진하게 됐다. 그렇게 도반들의 서원과 전씨의 수행정진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마음의 약이 몸의 독을 없앴을까.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을 완전히 되찾게 됐다.

이런 과정들을 겪었기에 전 씨는 하루 종일 아무리 바빠도, 진언 염송 수행을 빼놓지 않는다. 다시 얻은 삶은, 그야말로 ‘불자답게’ 살아보겠다고 발원했기 때문이다.

“불교는 ‘마음 닦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유혹에 부딪치는데, ‘이것이 모두 수행이다’ 여기면 한결 이겨내기 수월합니다. 다시 얻은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불법안에서 올곧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전국 어느곳에서도 일등할 수 있는 교육장소
범음 · 범패 (梵音 · 梵唄) 평염불 상주권공, 각배, 영산, 짓소리까지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6년 제8기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겉채비 : 바라춤, 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 과 정 : 2년(4학기), 1년과정(상주권공, 간단한 불공)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원서마감 : 2006년 3월 6일 월요일 오후3시 ◆ 입학식 : 2006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수업시간 : 첫째주 토요일 – 2학년 (오후 3시부터 – 5시 30분까지)
둘째주 토요일 – 1학년 (오후 3시부터 – 6시까지), 통신생 포함
특수 상좌들 각배, 영상반 목요일 (오후 3시 부터 – 5시 30분까지)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학 장 : 혜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이수평가자)
◆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예금주 : 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신입생모집 교육기간
◇ 교육기간 : 2006년 2월 22일 - 2월 25일 (3박 4일)
● 내용 : 2월 23일 오후 2시 : 입회식 및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 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징, 목탁, 요령
2월 23일 9시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 녹음), 화청(회심곡), (전편)교육
2월 24일 9시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2월 25일 9시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교육,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 준비물 : 가사장삼(스님일 경우), 필기도구, 녹음기, 일반 불자 평상복
▷ 숙식제공 포함 교육비 25만원 ▷ 모든 교육교재는 본 대학에 있음 (교재비 별도) ▷ 이번 교육을 받으실 분은 미리 전화주시고 송금요
한국불교 광주 · 전남 종무원 의전국장으로서 이번 교육을 태고종 스님들에 한해서 특별 무료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고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학 인 모 집
불광사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통도소리 · 작법무 교육본산
전통의 영남범음범패 통도소리와 통도사 작법무(바라춤 · 나비춤) 교육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 과		내 용	교 수 진	강의일시
경전교리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교수: 선과법사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전통의식	작법무과 (1년과정)	통도바라춤 통도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통도사 전임 상노전) 교수: 청봉스님 (조영선 무용단 단장) 조교: 무혜심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범패학과 (2년과정)	시련 · 삼신이운 헌공 · 49재 및 전통교육	(통도사 전임 상노전) 교수: 청봉스님 조교: 지오스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특 전
●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분은 장학생(무료)으로 지원하여 줍니다.
● 본교생이 만약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숙식과 교육에 전액무료임.
◆ 개강식 일시: 2006년 3월 16일 오후2시
※ 행자 수시 모집중
◆ 장 소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주차장 및 기숙사완비)
통도소리 · 작법무교육본산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9> 헛된 생각과 인연을 끊을지어다

마음의 본뜻을 안 사람은 저잣거리의 이야기조차 훌륭한 법담이 될 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제비 소리까지도 실상(實相)의 이치에 통달한 소리로 듣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 바른 법을 말하고, 땔나무 하는 아이나 소치는 늙은이가 다 깊은 도리를 논하며, 소 울음 닭 우는 소리 하나까지도 다 빠짐없이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는 이치를 알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선가귀감> 7장에서는 말한다.

吾有一言 絶慮忘緣
내가 한 마디 일러줄 말이 있으니
헛된 생각과 인연을 끊을지어다.
兀然無事坐 春來草自靑
우뚝 앉아 있는 모습 더 할 일이 없으므로
봄이 옴에 어린 풀잎 파릇파릇 돋는구나.

이는 남악나찬(南嶽懶瓚) 선사가 헛된 생각과 인연들을 끊고 한가롭게 사는 도인들을 표현한 글이다. 여기서 '헛된 생각과 인연을 끊으라는 것'은 '참마음을 얻으라는 것'이니 이른바 한가롭게 사는 도인이 되라는 말이다. '헛된 생각'이란 중생들이 허상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경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헛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에 집착하여 쓸데없이 많은 생각들을 일으켜서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들이 중생들의 삶이다. 이 생각들이 또 쓸데없는 인연을 만들어 중생들은 괴로운 업만 키워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세속의 헛된 생각과 쓸데없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 헛된 생각과 쓸데없는 인연이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 드러난다. 부처님의 향기로운 삶을 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이 된다.

여기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하여,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지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이 도인은 부처님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그 삶 자체가 아름답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하다. 고요하고 편안한 삶은

집착 버리고 '참마음' 얻으면 편안하고 지혜로운 삶 누려

지혜로운 삶이므로 그 삶 자체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큰 자비이다.

억지로 만든 자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삶에서 저절로 넘쳐흐르는 큰 자비이다. 중생들은 그런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 오고 가며 앉고 눕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 그것 자체로서 모든 중생들의 삶을 바꾸어 준다. 이것이 부처님이 하시는 중생제도이다. 하는 일 없이 모든 중생의 삶을 바꾸어줄 수 있다. (無爲而作) 이런 삶을 절학무위(絶學無爲)라고 하여 <증도가> 첫머리에도 이런 도인의 한가로운 삶을 이야기한다.

絶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할 일이 없이 한가롭게 사는 사람은
망상이라 해도 애써 없애지를 않고
참됨이라 해도 애써 구하지를 않는다.

이 표현은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의 자리에서 하는 말이다. '더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인 지계(持戒), 그 아름다운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인 선정(禪定), 고요한 마음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지혜(智慧)에 대한 수행을 다 마쳐서 다시 이것에 대해 더 배워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더 배울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배움이 끊어진 자리(絶學)'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배울 것이 없는 이 자리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더 할 일이 없다는 것(無爲)'은 참마음 자리를 깨쳐 더 이상 이것에 대해 공부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공부할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한가로운 도인이 된다. 선종에서 '조사'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무엇을 망상이라 해도 애써 없애지를 않고, 무엇을 참됨이라 해도 애써 구하지를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선가귀감>에서는 "우뚝 앉아 있는 모습 더 할 일이 없으므로 봄이 옴에 어린 풀잎 파릇파릇 돋는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모든 생각과 인연을 끊으라는 것'은 '참마음을 얻으라는 것'이니 이른바 한가롭게 사는 도인을 말한다. 아! 그 사람됨이 본디 인연이 없고 본래 할 일이 없으므로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구나. 푸른 산 푸른 물결 속을 마음대로 오고 가며, 어촌이든 술을 파는 주막이든 걸림 없이 드나드는구나. 흘러가는 세월을 조금도 알지 못하지만 봄이 옴에 예전처럼 어린 풀잎들이 새록새록 파랗구나. 또 서산 스님은 이 장에서는 따로 '한 생각에 마음의 빛을 돌이킨 사람'에 대하여 찬탄한다면서 게송으로 말한다.

將謂無人 賴有一個.
아무도 없는가 했는데
한 사람이 있었구나.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만(卍)' 자는 무슨 뜻?

말 그대로 풀면, '길상(吉祥)스럽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만덕이 원만한 모양' '진리의 본체' '부처님 신체에 있는 특이한 모습의 하나' 등의 의미로 사용되지요. 이런 까닭에 불상의 가슴이나 불화 탱화 등에 많이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상징물로 널리 이용됐죠. 그러다보니 오늘날 지도를 보면 절 표시로 만(卍)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자에는 열십(十)자에서 좌측으로 도는 좌만(卍)과 반대로 도는 우만(卐)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동양 불교권에서는 주로 좌만자를 사용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만자도 함께 쓰이고 있죠. 원래 만자는 글자가 아니라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이었습니다.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실 만자는 인도의 각 종교에서 이미 사용했었고, 서양에서도 악을 물리치고 길상을 가져다주는 상징물로 쓰였지요. 우습게도 세계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우만자의 변형인 '卐'을 '하켄클로이츠(하켄 : 꼬부라지다, 클로이츠 : 十)'라 칭해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강조한 깃발로 사용했지요. 그런데 사실 불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8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0강 : 사생(四生), 생명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하여

오늘은 불교가 생명을 분류하는 독특한 방식을 읽기로 한다. 3장은 보살이 "일체중생(一切 衆生)의 류(類), 난생(卵生)과 태생(胎生)과 습생(濕生)과 화생(化生)과, 유색(有色)과 무색(無色)과, 유상(有相)과 무상(無相)과, 비유상(非有相)과 비유상(非無相)을" 저 언덕으로 건네준다고 했다.

사생-불교가 생명을 분류하는 법

이 분류에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생명을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기관과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세부 분류하는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이건 근대과학의 시선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여럿 가운데 하나일 뿐, 단 하나의 정확한 분류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기준과 해석이 다르면 다른 방식의 분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는 어느 시인이 순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물을 분류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호랑이나 돼지처럼 포유류라고 해서 어린 나를 놀래 켰다. "아니,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니요. 물에서 살고 있고, 며칠 전에도 그물에 한 마리 걸려 올라와 어판장에서 팔려나가는걸 보았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데…." 선생님은 한심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고, 내가 다시 우기자 마침내는 화를 내기까지 했다. 나는 지금도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둘 다 옳다, 그리고 둘 다 틀렸다. 그런데 불교는 이 진실을 알고 있다. 진술과 판단의 일변적 진실과 그 한계를…. 그것을 본격 논증한 것이 중관(中觀)의 변증법이다.

각설, 위에서 적은 <금강경>의 생명 분류 방식은 인도 전래의 것을 불교가 차용한 것이다. 콘즈는 <금강경 영역>에서 이 독특한 분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 주고 있다. 기준은 세 가지이다.

a. 수정(受精) 양상에 따라 구분되는 4가지 유기체: 1) 난생(卵生): 알에서 까는 것들. 2) 태생(胎生): 자궁에서 나는 것들. 3) 습생(濕生): 따뜻한 물기에서 생겨나는 것들. 가령 벌레나 곤충 나방 등. 4) 화생(化生): 신비하게 태어나는 것들. 수태나 배양 없이, 처음부터 사지를 멀쩡히 갖추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들. 신이하게 혹은 유령처럼 태어나는 신들이나 아귀들, 죽음과 삶 사이의 중간계의 인물들, 그리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이들. 이 부류들의 수가 제일 많다.

b. 물질적이냐 비물질적이냐에 따른 분류: 1) 유색(有色): 형체를 가진, 물질적인 것들. 2)를 제외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2) 무색(無色):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물질적인 것들. 네 가지 형태 없는 성정(禪定), 즉 사선정(四禪定)에 어울리는, 가장 고귀한 신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c. 지각할 수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분류: 1) 유상(有想): 지각이 있는 것.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기체. 2) 무상(無想): 지각이 없는 것. 네 번째 선정에 해당하는 천계(天界)에 살고 있는 신들이나 천사(?)들이 여기 속한다. 3) 비유상비무상(非有想非無想):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네 번째 형태 없는 선정에나 어울리는 가장 높은 신들.

분류 a는 상식적이다. 그것들이 b의 첫 항에 포섭된다. 문제는 b의 두 번째부터이다. 인도는 정신의 나라답게, 그리고 불교는 정신의 사유답게 무형의 존재들을 살피고, 그것을 깊이에 따라 분류하는 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사람은 이 가운데, 태생(胎生)이면서, 유색(有色)이고, 유상(有想)이겠다. 물론, 정신적 수련에 따라 유색(有色)은 무색(無色)으로, 유상(有想)은 무상(無想)이나 비유상비무상(非有想非無想)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보통 사람은 아무래도 잘 믿지 않으려 하겠지만.

불교는 정신의 깊이에 따라 사물이 서로 다르게 보이며, 또 그에 따라 그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생각에 입각해 있다. 그래서 33천(天)의 세계는 곧 선정의 단계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대한 메시지가 도출된다. 다른 세상을 살려면 자신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 즉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33천(天) 세계는 의식의 단계

멸도, 불을 꺼라

자신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의식의 수준을 고양시킬 것인가. 어렵지 않다. 쉽고 간단하다. "불을 꺼나가면 된다!"

어느 날 우루벨라의 해질 무렵, 붓다는 불을 섬기던 가섭 형제들을 데리고 산에 올랐다. 저녁노을로 불타는 하늘을 보고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사람도 저와 같이 불타고 있다. 사람의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1) 눈이 타고 있고, 눈의 인식대상인 물질이 타고 있다. 귀가 타고 귀의 인식대상인 소리가 타고 있다. 코가 타고 코의 인식 대상인 냄새가 타고 있다. 혀가 타고 혀의 인식대상인 맛이 타고 있다. 몸이 타고 몸의 인식대상인 감촉이 타고 있다. 의식이 타고 의식의 인식 대상인 생각이 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타고 있는 것인가. 2) 그것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불타는 것이다. 그로 인해 3)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불타는 것이다. 또한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愁悲惱苦)이 불타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이 모든 불타는 것과 그 원인에 대해 싫어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일체에 대해 싫어하는 생각을 가질 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꽃이 꺼지고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된다."

<법화경>은 삼계화택(三界火宅)을 말한다. 집이 온통 불길 속에 싸여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않는다. 인간의 무지로 인해 '욕망'이 불타고 있고,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불타고 있으며, 그리하여 생로병사(生老病死)가 불타고 있고, 그 결과 '슬픔과 괴로움'이 또한 불타고 있다.

내가 변해야한다

이런 갈등과 대립, 고통과 슬픔을 원초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없을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실험이 있었다. 전쟁과 정변, 혁명과 개혁들.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개 특정한 사람이나 부류에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나는 그 속에서 원망과 시기, 질투와 지배욕을 본다. 아닌가. 그렇게 불건전한 편견과 정념들에 의해 추동되는 어떤 행동도 부작용 없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 문제의 근본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내가 비난해 마지않는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내 손가락질은 옳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은 틀릴 것인가. 나는 분열과 갈등으로 추악하고 잔인해진 이 기괴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것을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느낄 때, 무엇인가가 바뀔 것이다.

불교는 바깥보다 우선 안을 다스리라고 권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아무 것도 보태주지 않고, 다만 빚쟁이처럼 덜어간다. 불교에 챙겨갈 것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은 일찌감치 돌아가는 것이 좋다. 줄 것이 없었기에 불교는 나중에 "붓다는 왜 왔는지 모르겠다"거나 "붓다는 40년간을 장광설(長廣舌)을 늘이고서도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불교는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 오히려 빼앗으려 한다. 우리 내부에 있는 오래된 독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이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너도 자유로워지고 세상은 평온해진다. 붓다가 말했다. "열반은 탐욕과 증오, 기만의 끝이다." (상유타니카야)

■한국학중앙연구원

잘 노는 아이가 머리도 좋다





아이의 두뇌력 9살까지 결정된다
이전환 옮김
북스넛|1만8000원

'평생에 걸쳐 인간능력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두뇌의 전두엽은 9살까지 90퍼센트 이상 형성된다. 이 시기에 전두엽이 받는 자극을 통해, 사람은 일생동안 생각하고 판단하고 창조성을 발휘하는 결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된다.'

<아이의 두뇌력 9살까지 결정된다>는 일본 동경대 의학자이며 뇌의 학분야 권위자인 오시마 기요시 박사가 수십년간의 두뇌연구에 기초하여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전제는 아이의 두뇌력이 9살까지 결정된다는 의학적인 사실에 기반한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4등분 되어 있는 인간의 뇌중에서 행동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영역이 전두엽이다. 언어 논리 기억 판단등을 주관하는 이 전두엽의 신경회로망은 거의 대부분이 9살까지 완성된다.

두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시마 기요시 박사는 인간이 태어날 때 1000억여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접속하여 시냅스를 만들고 신경회로망을 구성한다고 한다.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신경회로망은 9살까지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다고 한다.

두뇌가 활성화 발달하는데는 이 시기의 환경과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즉 오감을 이용해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의 두뇌는 충분히 활성화 된다는 것. 이 시기 두뇌에 각인된 근원적인 체험은 평생동안의 삶을 좌우하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결정하며 나아가 성적(性的)인 정체성까지 형성된다고 한다.

반면 컴퓨터나 비디오등 2차원적인 영상에 빠져있는 아이는 현실과 허구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두뇌도 균형있는 자극을 받지못한다고.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의 두뇌력을 키워주기 위해 어떤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나?.

첫째는 칭찬과 꾸중을 병행해 전두엽에 자극을 줘야 한다. 긍정적인 근원적 체험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놀이, 화목한 가정등에서 얻으며, 부정적 체험은 애정결핍이나 부모의 학대나 이혼, 따돌림 때문에 형성된다.

이 시기 부모는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하고, 적절한 정도의 꾸중을 병행하여 두뇌가 효과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한다.

둘째는 오감을 이용한 놀이를 유도한다. 인간이 진화의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놀이문화 때문이었다. 유아 역시 신체적인 감각을 많이 사용하여 뛰어놀수록 두뇌는 자극받는다. 자연환경과 동식물을 많이 접촉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아이는 세상에 대해 풍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명력 있는 자극을 받는다.

셋째는 손과 발을 많이 사용하게 하며 음식을 꼭꼭 씹어먹게 하고, 넷째 태아기부터 두뇌발달에 신경쓴다. 다섯째로는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여섯번째로 9살까지 성교육도 마쳐야 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두뇌력 키워주는 6가지 방법

1. 칭찬과 꾸중 병행…전두엽에 자극
2. 오감 이용한 놀이 유도하라
3. 손·발 많이 사용…음식 꼭꼭 씹기
4. 태아기부터 뇌발달에 관심쏟기
5. 함께 식사하고 대화 많이 나눠라
6. 9세까지 성교육 마쳐라



순산의 비결 '이완'

임산부 명상요가 윤주영 지음 | 맥스 | 1만4000원

호흡을 통해 출산시 순산을 할 수 있다.

순산의 가장 좋은 비결은 출산의 흐름에 맡기는 무위의 이완을 하는 것이다. 만출기때 힘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이완이기 때문. 진통의 간격과 세기가 계속 변하더라도 산모는 매순간 완전이완을 해야 한다. 아기가 밀고 나올때 느껴지는 강한 진통으로 인해 긴장되더라도 한결같이 완전이완을 시도해야 한다. 우리 몸은 호흡을 따라 끊임없이 수축과 신장을 되풀이 한다. 내 쉬는 호흡에 따라 온몸이 풀린다. 따라서 내쉴 때 마음으로부터 완전이완을 시도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태아를 편하게 하고, 아이를 쉽게 낳아 산모의 건강을 지키는 명상요가를 혼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왔다.

<윤주영의 임산부 명상요가>는 저자가 20여년간 요가를 지도하며 얻은 경험과 전통 요가 수련법을 토대로 직접 개발한 명상 요가를 임산부들이 혼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지도서다.

책의 구성은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태교, 자연분만, 산후관리, 체중조절, 아기의 성장 순으로 정리돼 있다.

김원우 기자

네티즌 강추

시간과 공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시선



어둠의 저편 문학사상사,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어둠의 저편>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 25주년 기념작품이라 하기에는 다소 분량이 적다. 간결하고 명확한 그의 문체로나, 책 속에 실린 소탈한 그의 모습으로나 '기념'의 거창함을 두꺼운 양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던가 보다. 그렇게 또 하루키 스타일은 다양한 삶의 고독과 인간 내면의 심리를 '보여줌'으로써 한 편의 소설이 아닌 영화로 만들어 내 놓았다.

잠의 수렁 속에 빠진 미모의 언니 에리와 외모 컴플렉스를 공부로 극복하고 있는 동생 마리가 어느 날 밤 11시56분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52분까지 겪는 하루 밤 동안의 이야기. 뛰어난 외모로 어디서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던 잡지 모델 아사이 에리는 어느 날 '지금부터 한동안 잠을 자겠어'라고 말한 후 두 달 동안 계속 잠을 잔다.

소설의 처음을 열고 마지막을 닫는 시선은 '어둠'의 시선일지 모른다.

이번 작품에서도 하루키는 음악을 빼놓지 않았다. 곳곳에서 음악은 비주얼과 잘 버무려지면서 완벽한 영상을 만들어 냈다. 게다가 음악까지 알려주는 친절함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 닮아 있다. 책을 덮고 나면 왕가위나 김지운의 영화 한 편 본 듯한 느낌이 들 지도 모른다. (최세라, yes24.com/Goods)

소년에서 어른으로…유쾌 발랄 성장 소설



동정없는 세상 문학동네, 박현욱 지음

이 소설에 실린 모든 글들은 유쾌하고 기발하고 재미있고 소중하다. 유쾌하고 기발하고 재미있게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근래에 보기 힘든 '물'한 소설이 된 것이다.

<동정없는 세상>은 첫 페이지를 열면 두세 시간만에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읽히는 소설이다.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는 제목부터가 재밌다.

또 이 소설은 내가 좋아하는 성장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다. 소년은 성에 눈을 떠가면서 세상에 눈을 떠간다. 동정(童貞)이 사라지면서 동정(同情)없는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다. 그리고 소년이라는 옷을 벗고, 어른이라는 옷을 입는다. 학교를 벗어나 동정(同情)없는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다.

이 소설은 수능을 마친 열아홉 살 소년이 스무 살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다. 88라이터 한 갑이 1000원 하던 시절부터 1100원으로 오를 때까지의 이야기다. 동정(童貞)을 지니고 있던 소년이 동정(童貞)을 잃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다. 소년이 어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다. 살아 있음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잡기까지의 이야기다. 동정없는 세상에 첫 발을 디딘 세상 모든 소년들에게 바치는 헌사와도 같은 소설이다. (리아트리스, yahoo.com/libro)

책속의 밑줄긋기



○… 나는 아직도 아버지가 '잊혀진 책들의 묘지'로 나를 처음 데리고 갔던 그 새벽을 기억한다. 1945년 초여름의 햇살이 잿빛으로 흩어지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새벽 거리를 우리는 걷고 있었다. 아른거리는 태양이 뿌옇게 흐려진 화관 모양으로 산타 모니카 데 람블라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다니엘, 오늘 네가 보게 될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얘기해선 안된다." 아버지가 주의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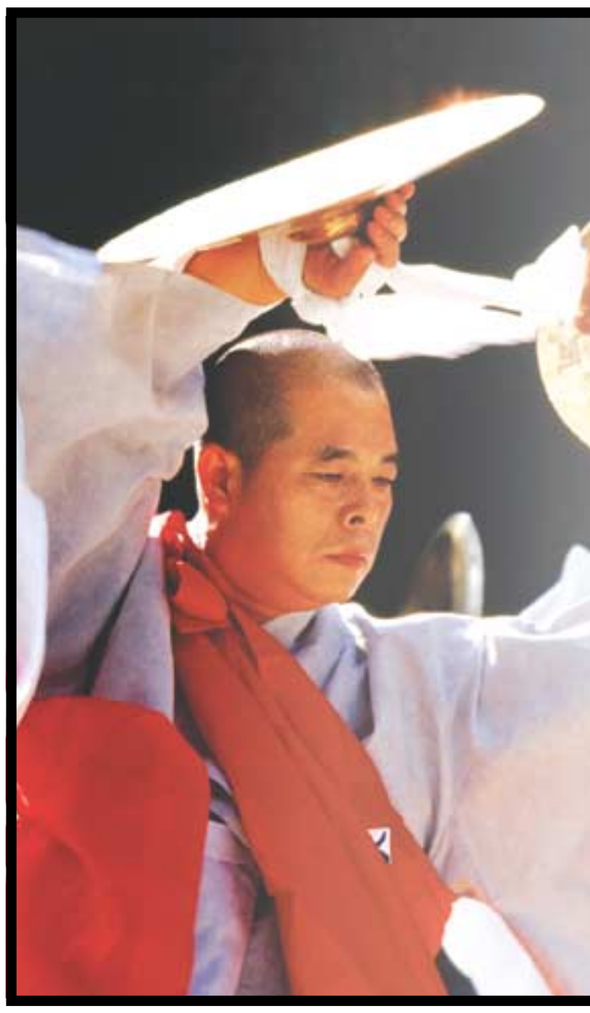
"엄마한테도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던 그 슬픈 미소에 숨어 한숨을 쉬었다. "당연히 되고말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내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콜레라가 어머니를 데려가 버렸다. 아버지와 나는 내 네번째 생일날 어머니를 몬주익에 묻었다. 나는 다만 그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는 것과 하늘도 울고 있는 거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내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바람의 그림자> 9쪽,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 지음, 문학과지성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산하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불교의식(범음 · 범패 · 작법)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 · 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2학기 작법 · 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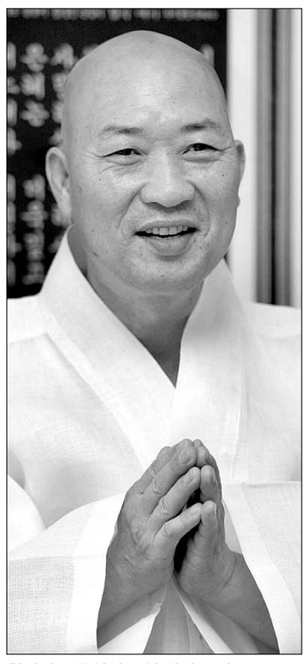
강 사 박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인천수륙재보유자

■ 개강일시 : **2006년 3월 7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접수가능)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2회) 오후3시 ~ 5시
■ 접수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본대학은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짧지만 긴 경전 '반야심경'

오등선원서 1년간 열린 소참법문 강설 정리
무구자 도인 주해 근간 삼아 폭넓은 해설 '신선'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일체 중생의 구제라는 깃발을 앞세운 대승불교의 첫 출발은 '반야경'의 성립과 함께 시작됐다. 이 '반야경'의 핵심이 바로 <반야심경>.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중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법하신 내용의 골자를 260자로 압축한 경전이다.

용성 스님의 선맥을 잇고 고암 스님의 전법 제자로 참선 수행에 매진해 온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 대원 스님이 오등선원에서 소참법문 형식으로 진행해 온 강설을 정리해 <반야심경>을 펴냈다. 스님은 <속장경>에 실린 무구자(無垢子) 도인의 주해를 근간으로 삼았다.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래선지 강설은 어느 페이지를 들추어 보아도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선의 방망이들로 가득 차 있다.

무구자 도인의 주해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의 견해까지도 두루 수렴하고 있어, 원문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살아 있는 주해의 실제를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보면 반야심경의 첫 글자인 '마하'라는 단어를 '끝이 없이 넓다'는 문자적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있다. '맞아들여도 그 머리를 보지 못하고, 따라가도 그 뒤를 보지못한다'는 도가의 소식, '우러러 봄에 더욱 높고, 뚫어 봄에 너무 견고하며, 멀리 앞에 있음을 보았는데 홀연히 뒤에도 있다'는 유가의 소식을 함께 전함으로써 '마하'라는 문자의 의미를 통해 곧바로 대도의 한가운데로 뛰쳐들게 한다.

여기에다 대원 스님의 강설은 더 나아가 법의 활달자재함을 느끼게 한다. 스님은 '마하'에 대해 "우리가 빗방울의 숫자를 알지 못하듯 이 법계의 모래 숫자도 헤아릴 수 없다"면서 "사람이 쓰는 천태만상의 마음과 수천 수만의 생각도 기기묘묘한 법의 실상"임을 역설한다. 우주만물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이것'의 본질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게 만드는 묘한 힘이 느껴진다.

대원 스님은 "학림사 오등선원에서 소참법문으로 반야심경을 1년동안 강설했는데, 수좌 뿐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아왔다"며 "법문 내용중 이색적이고 수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무구자도인의 원고를 위주로 해서 책으로 펴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독하고 지혜의 눈을 떴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1986년 공주 학림사를 세우고 오등시민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스님은 1942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16세 되던 해에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20세에 동산 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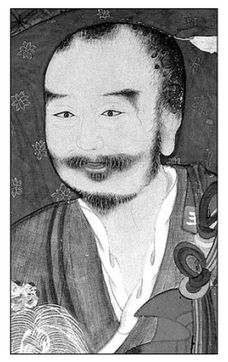
1966년 남장사에서 혼해 스님을 시봉하며 선어록 금강경 강의를 듣고 용맹정진했다. 스님은 혼해 스님에게 "크게 한 소리에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네 / 거연히 한 걸음 나아가 머리를 돌이켜보니 / 산은 드러나고 시냇물은 곡 밖으로 흐름일세."라는 게송을 지어 바쳤다.

그 뒤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송광사 불국사 법주사 지리산 칠불암 통도사 쌍계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을 받았다.


반야심경
한암대원 선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1만5000원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나옹 스님이 일러준 깨달음의 10단계


나옹 스님 영정(부분).

'그저 날마다 스물네 시간 행주좌와의 4위의(四威儀) 속에서 오직 본래 참구하던 화두만을 들어야 한다. 끊이지 않고 들며 쉬지 않고 의심하면 고요하거나 시끄러운 가운데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고,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난다. 또 자나깨나 화두가 앞에 나타나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일어나려 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방 혜오 스님(부산 묘관음사 선원장)이 편역한 <나옹선사어록>의 주요내용은 화두참구하라는 것이다. 또 스님은 깨달음을 이루는 10단계를 말하는 '공부10절목(工夫 10節目)'을 지어 후학을 지도했다.

'공부10절목'의 핵심은 소리와 대상을 초월하는 경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깨달음에 기초해서 공(功)을 들이는 것이다. 공이 완전히 익어서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삼매가 유지되고, 잠자고 깨어있을 때가 한결 같은 경지가 될 때,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이 오고, 이 때 자신의 주인공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스님은 다음 단계인 육체가 사라질 때 자신의 주인공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나옹선사어록>은 본래 고려말 3대 선지식중 한명이었던 나옹 스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과 법어, 서신, 게송, 깨달음의 시, 교화적인 시 등을 수집하고 바로잡아 어록과 가송 두권으로 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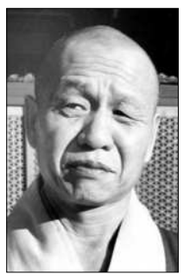
이 책은 나옹 스님의 행장, 어록, 게송을 요즘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한글로 표현돼 있으며 원문도 함께 실어 이해가 미진한 부분에 도움을 준다.

김원우 기자


나옹선사어록
무방 혜오 지음
도서출판 명상
3만원

오현 스님의 선시 집중 조명

계간 '창작 21' 신년호



계간 종합문예지 <창작 21>(발 행 인 문 창 길)이 2006년 신년호에서 오현 스님(신흥사 회주 · 사진)의 시세계를 집중 조명했다.

21세기 시인연구 코너를 통해 '견춘3제' 등 신작시 9편과 오현 스님의 시세계를 분석한 평론 2편을 실었다. 문학평론가 조미숙(건국대 강사)씨는 '조오현 선시의 특성'을 통해 득도와 수양이 어떻게 시로 드러나는가를 탐구했다. 2002년의 <만악가타집>에 실린 시조를 중심으로 오현 스님의 선수행이 선시라는 열매로 맺혀지는 과정을 파악한 것.

또 문학평론가 임금복(성신여대 강사)씨는 '우주적 부처를 발견하는 미의 마술사'란 제목의 평론을 통해 오현 스님의 첫 번째 시집 <심우도>(1979년)와 두 번째 시집 <산에 사는 날에>(2001년), 세 번째 시집 <절간 이야기>(2003년)를 포괄적으로 조망했다. 수행과 시의 만남이 낳은 결과로서의 선시가 갖는 '무게'를 오현 스님의 시세계를 통해 천착, '서정적 도의 세계'에서 '서사적 도의 세계'로 변모 되면서 '우주적 부처'를 발견 하는 구도의 세계를 조명했다.

임연태 기자

세살만 먹어도 아는 '참된 삶의 지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참뜻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용한 것인가?

불교적 삶의 실현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실현의 길은 무엇인가?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화두가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의 대 스승이며 사생의 대자부이신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불자들에게만큼은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8만4000법문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말해주듯 너무도 방대한 가르침은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쉽게 다가서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직도 많은 불자들은 경전의 가르침을 그야말로 우리 중생들과는 거리가 먼 '부처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 그것이 우리의 바른 삶을 지탱시켜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참된 삶'의 방법론임을 모르고 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방법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책 <여든은 어려워도 세살은 쉬운 참살이>는 불교의 가르침이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쉬운 지침서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여든은 어려워도 세살은 쉬운 참살이
차차석 지음
우리출판사
1만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쳤던 많은 이야기들을 저자는 현재의 언어로 들려주고 있다.

특히 불교의 특정 교리 또는 특정 사상의 탄생 배경과 의미를 규명하고 있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제 1장 '부처님, 이 땅에 오시다' 편을 맨 앞에 두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비롯되는 불교 발달사를 시작으로, 불교의 핵심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2장 '없음과 비움의 철학적 사색'에서는 불교의 기본사상인 무아, 윤회, 공 사상의 변천사를 살피고 있다.

제 3장 '계율 이야기'에서는 승가를 유지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계율의 근본정신과 그 발달사를 다루었다.

제 4장 '수행과 삶의 이야기'에서는 이상적인 불교적 삶의 방법론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제5장 '부처님, 여성을 보다'에서는 그 어떤 페미니스트보다 앞서 있었던 부처님의 여성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경제관 혹은 사회관을 엿볼 수 있는 '수행과 삶이 이야기'는 수행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 핵심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나만의 깨달음보다는 사회적 실천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수많은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셀 수 없이 많은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차차석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일단의 고민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yosiamun.com 추천도서

-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 1만원
- **불교의 이해와 신행** 조계종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9000원
- **생활속의 금강경** 효림, 우룡 스님, 7000원
- **인도불교사1, 2** 시공사, 에띠엔 라모뜨, 6만5000원
- **달라이라마의 깨달음에 이르는길** 하얀연꽃, 텐진가초, 1만28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깨달음에 이르는 길

초발심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수행법의 결정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역출간이며 한국 불교에 기념비적인 경론!!

교보문고 불교부분 1위

달라이 라마가 2005년 12월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서 추천했던 바로 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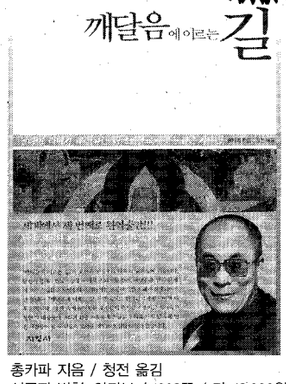
승속을 불문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환희심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

저자는 이 책에서 범과 영적 스승에 귀의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죽음,
인과법칙과 수많은 고통을 뛰어 넘어 사랑과 열정을 바탕에 둔 이타의 보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더 나아가 궁극적 진리인 자기도 없고 남도 없는 공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결국 모든 인간에게 소중하게 부여된 궁극적 깨달음을 향한 자유의 길을 제시해준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대중적인 수행의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며 좀 더 높은 차원의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수행단계도 소개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진리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수행은 인위적으로 총카파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천 년 동안 붓다와 그 제자들이 스스로 실천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수행자들은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때 압도당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
그럼으로써 수백 번, 수천 번 엎드려 절을 하며 자기들의 영혼을 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제 당신도 세계 불교를 이끌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총카파 지음 / 청전 옮김
신국판 변형, 양장본 / 1008쪽 / 값 43,000원

지영사 Tel. 02) 747-6333

산중일지

늦깍이 수행자의 25년간의 진솔한 수행담!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극찬했던 바로 그 책!



저자는 우리 불교사의 중요한 시기에 수행했던 원로였다.
이 책은 수행자의 사표를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책이며
당대 선지식인들의 면모를 후대인들에 의해
윤색되지 않은 생생한 일화로 만날 수 있다.
'활로'를 모색해가는 한 수좌의 평범한 일상과
철저하게 은둔속에 갇힌 수행자의 길과 그 길 속에서
수없이 만나는 의문의 물음들에 대해
너무도 진솔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현칙 지음 / 신국판 변형 / 값 10,000원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옮기고 해설한

부모은중경



부모는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자식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잊고 사는 부모의 은혜가
왜 소중한지, 왜 다 갚을 수 없는지
가슴 깊이 알게 해주는 책이다.

신국판 변형, 양장본 / 값 8,000원

韓



'한(韓) 브랜드화' 사업 아시나요

문광부, 한 브랜드화 통해 전통문화 세계화 추진
사찰음식 · 禪 · 미륵 포함된 불교아이템 관심 집중
한지 한복 등도 불교응용 … 불교계 사업참여 길 열려





한옥분야에는 생활가옥과 고택 · 서원 등이 포함됐다. 사진은 대구 도동서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기능보유자 류행영씨가 제작된 한지를 손보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5월 한(韓) 브랜드화 사업을 천명했다. 2010년까지 이어지는 한 브랜드화 사업은 '건강성과 과학성이 깃든 전통 생활 문화의 재발견' '문화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한국의 전통을 브랜드화해서 해외에까지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한 브랜드화는 한식 한지 한옥 한복 한국학 한국어의 6가지 분야에서 브랜드 육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한식 분야에서 사찰음식 대중화 · 세계화 연구방안 연구, 한국학 분야에서 100대 민족문화상징 중 '선' '미륵' 등이 포함돼 있는 등 불교 아이템들이 눈길을 끈다.

한식 분야에 포함된 '사찰음식 대중화 · 세계화 방안 연구'는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이 맡아 주관한다. 현재 사찰음식 실태 조사를 위해 동국대학교 가정학과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불교문화사업단 정현정 홍보팀장은 "문헌조사, 선별한 30개 전통사찰 소임자 인터뷰, 200개 사찰의 후원 설문, 템플스테이 참가자 500명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사찰음식 원형 찾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3월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찰음식 대중화 방안 등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연구와 더불어 사찰음식의 원형복원, 표준 조리법, 음식명 · 식재료명 통일, 단체급식 · 호텔식 · 대중음식점 보급 방안, 사찰음식 전문식당 창업 방안, 외국인의 식문화를 고려한 코스요리(전채 주식 후식) 개발, 식재료 확보 및 홍보 방안 등을 최근 있었던 문화관광부와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한국학 분야에서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한류 콘텐츠 구축이다. 이 가운데 100대 민족문화상징에는 '선' '미륵'이 불교 관련 콘텐츠로 포함돼 있다.

지난해 5월 경희대 예술디자인대학 디자인연구소(소장 임헌혁)가 '100대 민족문화상징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를 맡아 11월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은 상문화관광부는 2~3월중 일반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및 수정작업을 거쳐 3월말 경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최종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상징은 어린이들이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어린이용 책과 애니메이션, 만화 등에 활용된다.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다 높은 퀄리티의 디지털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과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계획 등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영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100대 민족문화상징 서적 등을 해외에 배포해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 홍보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한지 분야에서는 서울 수효사 부설 지사랑교육원이 대대적인 공략을 준비 중이다. 지사랑교육원은 지난해 한지전시장을 열었던 수효사가 한지 공예의 대중화를 위해 전용 교육원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이재정 원장(지사랑교육원)은 "한지공예를 보다 대중화 일반화 시키고 불교와 밀접한 한지공예품들을 사찰용품으로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지공예 체험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한복 한국어 한옥 등의 분야에서는 불교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그러나 불교계에 사업 참여의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한식 한국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조지종 사무관은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올해는 보다 소규모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모 등을 통해 참여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니 만큼 불교계나 관련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interview

서각가 혜안 스님

"15년 전 <금강경>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300여자를 파다가 제일 마지막 판에 새기던 글자가 부서졌어요. 도끼로 새겨오던 나무를 모두 부셨습니다. 내 수행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꼈지요. 그리고 이번에 금강경 경판 작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시회 열고 <그래 떠나 보거라> 발간
작업 시행착오 · 각오 일기 형식으로
어린이 판화교실 열고 보급에도 앞장



서각가 혜안 스님이 7년 동안 작업해온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고 책 <그래 떠나 보거라>를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작품을 하나할 때 일반인들이 3주 정도 걸릴 일을 저는 두서너 달씩 걸려서 합니다. 이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기에 밤이나 일과 짬짬이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그렇게 걸리지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최근 출간한 책 <그래 떠나 보거라>는 이런 시행착오와 나 자신에게 속삭였던 각오 등을 담은 스님의 일기와 같다.

"내 속내를 기록한 것을 드러낸 것인 만큼 부끄럽다"는 스님은 책 속에서 나무가 나한테 한 얘기는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고 고백한다.

2월 9~18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전시회와 함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판화교실을 열기도 했다. 스님은 판화와 서각 등을 좀더 널리 보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강좌를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밝힌다.

앞으로 스님은 한국의 전통문양 판화를 만들어 전시회를 할 계획이다. "한국의 색채에 관심이 많아 단청이나 와당 문양 등을 활용한 작품들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혜안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서 외국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앞으로 외국에 우리 전통문양과 서각을 알리는 전시회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2006년은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자님께서 밀어 주신 보은에 보답하고자 어려우신 경제에 다소 보탬이 되 보고자 3개월동안 회비를 저렴하게 받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幸,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 구 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자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게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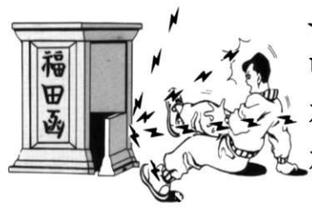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福田函



福田函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허공 부서져야 진면목 드러나”

세월조차 잊어버린 치열한 구도 열정 온몸으로 발산



형형한 눈빛에 분별심이 도망간다. 팔순의 묵산 스님은 “수행자는 남의 살림살이를 부여 잡으며 앵무새 짓을 하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올곧게 내야 한다”고 일갈한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묵산 스님 (서울 보림선원 조실)

세수 84세가 믿기질 않는 짱짱한 목소리다. 치열하게 법에게 대들면서 마음으로 일군 정직한 살림살이가 카랑카랑한 음색에 묻어난다. 그래서일까? 말끝에 선 칼날이 날카롭다. 당장 부처의 목이라도 베어버릴 기세다. 움켜쥔 의심에 잔뜩 독이 올랐다.

서울 정릉 보림선원 조실 묵산 스님. 첫 만남에 기자는 움츠렸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 범부의 호기심으로 속내를 떠봤다.

“지난 2002년 한 · 중 · 일 국제무차선법회 때를 기억하세요? 법문을 막 끝낸 진제 스님과 법거량을 하셨잖아요. 스님께서 ‘오늘 이 법회가 무슨 법회요?’라고 묻자, 진제 스님이 ‘만 천하에 가득합니다. 소승의 허물이.’라고 답했지요. 그러자 스님이 ‘입을 열 적에 그르쳤다. 내려와!’ 하고 고함을 질렀지요. 왜 그랬나요?”

‘괜할 걸 물었나.’ 따귀라도 맞을 요량에 뺨을 스님께 대차게 가져다댔다.

“하! 하! 하!”

크게 한 번 웃고 만다. 거침없는 선문답을 쏟아냈던 그 까닭을 묻는 것은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다. 하긴 범부의 알음알이로 알 수 있는 도리가 아니었으니까.

“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많은 선지식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통도사 경봉 스님, 관음사 향곡 스님, 월정사 탄허 스님, 범어사 동산 스님, 용화사 전강 스님 같은 선지식을 만나 탁마를 했는데요. 수행담 한 자락을 들려주시지요.”

“가야총림 부목살이 한 철을 나고, 하늘같은 조실스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지. 곧장 물었어. ‘사대 오온이 어찌 생겼습니까?’ 그러자 조실스님이 ‘조주 무(無)자 화두나 들거라’ 하시더군.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조주가 개에게 불성이 없다 했다면, 그 자리에서 조주 모가지를 잘라버렸을 겁니다.’ 벼락같은 소리를 냅다 지르고 방에서 뛰쳐나왔어.”

조실스님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 ‘새파랗게’ 젊은 수좌를 얼떨결에 맞이했던 그 조실스님은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이었다.

“효봉 스님이 안거 해제 날, 해인사 현당에서 이렇게 법문을 설했지. ‘안거를 무사히 마친 여러분에게 노자라도 쥐어줘야 하는데, 이 노승은 가진 것이 없소. 내 몸뚱이를 사서 노잣돈을 쓰시오.’ 그때 내가 벌떡 일어서서 말했지. ‘그 썩은 몸뚱이를 어느 놈이 사겠소.’ 그랬더니 효봉 스님이 ‘저 수좌는 장판 때 묻은 옷이나 빨고 가거라.’ 하시더군. 한 철 공부깨나 열심히 했다는 격려였지.”

묵산 스님은 그 당시를 술회하며 효봉 스님의 경책을 지금도 마음 깊이 지닌다고 말한다. ‘제방 납자들이여! 촌초(寸草: 마디 풀)도 없는 곳으로 향해서 가거라.’ 해제법문은 묵산 스님의 귀에 박혀 너무도 거룩하게 자리 잡게 됐다.

“선지식한테 두들겨 맞아야 큰 깨달음이 오지. 임제의 30방이 그렇잖아. 60년 넘게 전국 방방곡곡의 선지식을 찾아 다녔지. 얻은 것은 이 놈의 마음 그릇이 좀 커졌다는 것이야. 법을 받아들이고 담아낼 그릇이 커진 것이지.”

‘살림살이.’ 인생을 송두리째 거는 수행자의 존재이유다. 남의 살림살이를 부여잡고 앵무새 짓을 할 바에 미련 떨지 말고 세속으로 나가버리라는 소리다. 자기와 벌일 처절한 한판 승부에 핏대를 제대로 세우라는 의미일 게다.

“허공이 부서져야만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 우리가 허공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허공을 감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공생대각중 여해일포발(空生大覺中 如海一泡發)”이라 했지. ‘허공이 대각 가운데에서 생겼는데, 저 바다에 물거품이 생긴 것과 같다’는 뜻이야. 우리 마음은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이 들어오고, 해와 달을 생각하면 해와 달이 마음에 쏙 들어오지. 그러니 ‘내가 부처요 허공이 내 몸’인 거야.”

마음은 그렇게 요술을 부린다. 찰나에 허공도 지구도 해와 달도 만들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계는 언설을 멀찌감치 떠나있다.

‘면목 없는 자가 근본이라(無面目者是本然)
두두 물물이 이리 좇아왔다(頭頭物物從此來)
추월, 춘화를 그대는 아는가(秋月春花君知否)
돌여인 젓대 부는데, 목인이 춤추더라(石女吹笛木人舞)’

깨달음의 계송은 홀쩍 넘긴 공양 시간의 허기를 대신한다. 잠시, 물음을 그치고 낯빛을 살핀다. 오전내내 치열했던 살림살이를 드러내 보인 묵산 스님. 곰삭은 얼굴에는 피곤함이 저만치 물러나 있다. 기억력의 산화는 무심함을 낳는다고 하지만, 샘솟는 깨달음의 흔적은 스님을 젊은 납자로 만든다.

사실 스님은 약골이었다. 조실부모한 결핵 환자. 각혈을 몸에 달고 살았다. 몸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병마가 화두였다. ‘중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목탁 하나 달랑 들고 종로 탑골공원에서 90일 관세음기도에 들어갔다.

“개신교인들이 목탁 소리 듣고 싫지 않다고 지랄발광을 해. 며칠 후던가. 종로 깡패들이 나한테 와서 고기와 술을 사달라고 거들먹대. 그래서 보란 듯이 사줬지. 하루하루 지나니 그 놈들과 친해졌어. 그러니 예수교인들이 꼼짝을 못해. 하하하!”

늘어진 오후 시간을 부여 잡고 있을 즈음, 궁금증은 스님의 하루일과 이야기로 이어진다.

“밤 12시까지 좌선을 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곧장 <육조단경>을 읽고, <반야심경>을 사경하지.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운동도 해. 몸을 비틀고, 주먹으로 목덜미의 기혈을 누르면서 발가락으로 서서 걷는 운동을 하지. 심신의 기혈을 잘 돌려야 병이 들지 않거든.”



묵산 스님의 장군죽비에 경책의 불이 뿜는다. 매주 토요일 보림선원에서 열리는 철야참선 정진에서 묵산 스님은 재가선객들의 참선을 지도한다.



붙박이장에서 주섬주섬 꺼낸 손수 그린 달마도와 ‘팔만대장경’ 글씨. 스님은 틈틈이 그림과 글씨로 선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묵산 스님은 틈틈이 달마도를 그리거나 ‘팔만대장경’ 다섯 글자를 쓴다. 불박이장에서 달마도와 글씨 몇 점을 주섬주섬 내놓는다.

“늘 마음을 한가롭게 하기 위해서지.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찬탄하려고 쓰는 거야. 이것을 쓰는 사람이나 밖에 없어. ‘불심(佛心)’도 ‘선(禪)’자도 쓰는데 말이야. 한 장씩 가져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스님은 절 한 귀퉁이에 묶어놓은 개의 목줄을 풀어줬다. 개는 곧장 난리굿을 피우며 절집을 휘젖고 돌아다녔다. 저렇게 날뛰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 런지.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10년전부터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묵산 스님은 1922년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난 묵산 스님은 1940년 제주 중문 원만암으로 출가해 43년 황룡사에서 금륜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44년 만암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이후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과 효봉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으며, 백양사 대각사 죔불암, 수덕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75년 서울 정릉에 보림사를 창건한 스님은 96년부터 매주 토요일 재가불자들의 철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후세발복 卍 佛子 가족형 납골묘

◆가 격 : 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비 포함)
(1기당 60위 봉안 : 외부 10위, 내부 50위)
◆품 목 : 납골묘, 등 2개, 제단, 울타리(12m) 포함
(유골 항아리 제외)

특 징
- 저렴한 가격
- 완전 밀폐형으로 외부 해침 방지
- 천연방부제인 옻으로 내부마감 (항균, 방습)
- 기발산 물질 및 문양사용
- 유골 항아리는 필요한 분만 실비 제공



(주)한국자산관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3 로드랜드 ez타워 507호
TEL : 031)717-4101 / FAX : 031-717-4042 / 담당 : 김재환 부장

전국 사찰 가족 납골당 운영자 초청
■ 전국 시도 대리점 모집(선착순)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법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하심하면 세상이 화목

묵산 스님의 가르침

사람은 늙어갑니다. 항상 젊은 것이 아니지요. 늙어서 병이 들면 공포감이 옵니다. 여기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때 떳떳한 정신을 가지려면, 미리 수행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옹골차게 걷어잡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장소와 시간을 떠나 항상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길을 걸어 갈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도 '이 차를 누가 만들었으며 어디서 왔고, 찻그릇은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가'를 생각하면, 모든 인간관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분지족(受分知足)'의 삶이 중요합니다. 불교적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재가불자들은 마음의 근본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에서 꺼진다는 진리를 깨쳐야 해요. 마치 물거품이 바다에서 일어나 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눈·귀·코·혀·몸·뜻 등에서 한량없이 일어나는 작용은 마음을 근본으로 해 생멸합니다. 이 이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원만하게 잘 굴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덕을 기르는 도리로, 지혜를 계발하는 도리로 알아야만, 인생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몸을 버릴 때는 고통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몸을 벗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선지식을 만나 법문을 듣고 깨달음에 들어야 가능해요. 그 때는 불법을 믿기보다 자기 자성을 잘 가꾸고 깨달아 자신의 본바탕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주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한 팔만대장경의 모든 법문도 이를 위한 거지요. 사람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도리를 보리수 밑에서 6년간의 수행을 통해 깨달았어요. 인생 공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에서 꺼지는 진리 깨쳐야

부처님은 '하심(下心)' 공부를 하기 위해 걸식하며 무진법문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 국가에서 자신을 낮추는 하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존경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하심은 남을 위해 살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또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드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가화(家和), 인화(人和), 세계화(世界和)의 단초가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항상 단정히 하고 청결하게 하면, 거룩한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라서 대통령이라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대(四大)가 구족한 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불자들은 어렵게 인간의 몸을 받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수행해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잘 가꾸고 잘 개발해야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의 지혜를 잘 닦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선구자가 돼야 해요.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모습놀이와 물질에 속지 말고, 자성 즉 부처 자리를 어떻게든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잘 못 쓰면, 마음자리가 황무지로 변하기 때문이죠. 새카맣게 녹이 슬게 하지 말고, 마음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재가자든 출가자든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자리 찾는 것'이 본분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운전사가 있어야 갈 수 있듯이,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영특한 지혜가 있어, 이 몸을 어디로든 옮길 수 있게 합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자연이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연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설법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법을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들의 삶과 수행은 따로 놉니다. '불이(不二)법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물세살 때였습니다. 고봉 스님이 견성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강 인근의 비구니 사찰에서 문답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때 수좌 4명이 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 고봉 스님에게 불이법문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래 둘이 아닌데, 어찌 둘이 됩니까?"

"어찌 분별하느냐?"

"스승과 제자가 둘인데, 어찌 분별을 안 하겠습니까."



묵산 스님과 웃는 모습이 천진도인 그대로다. 스님의 말마따나 선(禪) 도리는 일상의 웃음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악! 귀도 생기지 않은 것이 사람을 떠보려고 하느냐. 썩 나가거라."

"어디로 나갈까요?"

그랬더니 고봉 스님이 묵묵부답하셨습니다.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나가라'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들어오면 나가는 도리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고봉 스님은 나갈 곳도 들어갈 곳도 둘이 아니기에 침묵하신 것 같아요. '말없이' 불이법문의 이치를 알려준 것이지요.

불교란 무엇일까요? 서른 살 때 <석문의범(釋門義範)>의 대례참례(大禮懺禮)에 있는 글귀를 보고 이 이치를 깨닫게 됐습니다.

"蟭螟眼睫起皇州(초명안첩기황주)
玉皇帝侯次第投(옥황제후차제투)
天子臨軒論土廣(천자임헌론토광)
太虛猶是一浮漚(태허유시일부구)
사마귀 곤충 알의 눈동자 속에 황제가 사는 고을이 일어나니
옥황과 제후들이 순서대로 늘어앉은 세계가 벌어지네.
임금이 조정헌에서 국토가 얼마나 넓은가 논하니
태허를 가리키며 오히려 한 물거품이라."

불교의 근본이자 일체세계가 일어난 동기를 말하는 글귀입니다. 사마귀 곤충 알의 눈동자에서 세계가 일어났다는 것이 불교의 근본입니다. 순간, 거기에서 허공을 느꼈습니다. 깨달음의 눈이 뜨였습니다. '불교가 이 허공이 물거품'이란 도리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불교는 반드시 알고 느껴야 합니다. 불교는 따로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항상 '회광반조해서 내가 무엇이며' '어찌해서 보고 듣는지' '그 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의심하면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래오래 하면 어느 순간, 느낌이 옵니다. 근본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인 까닭에, 그 마음을 항상 궁리(窮理)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깨달음이 옵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3>



놓친 기차는 아름답지 않다(3)

지금 난 놀이동산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에게 물었더니 친구는 그곳까지 가는 길을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이동산에서 가장 재미난 놀이기구의 이름도 가르쳐 주었고 그 기구를 탈 때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되었습니다. 직접 내 두 다리로 친구가 일러준 길을 따라 그 놀이동산에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해서 가장 신나는 놀이기구를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하루를 맘껏 즐기면 됩니다. 힘들었던 일들은 잠시 잊고 신나게 함성도 지르고 사진도 찍으면서 놀이동산이 내게 제공하는 그 한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면 됩니다. 내가 친구에게 놀이동산 가는 길을 물어본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친구가 일러준 대로 놀이동산으로 향하다가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되돌아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거기서 다른 길로 접어들었고 곧이어 계속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나는 그날 놀이동산에 가기는커녕 온종일 길을 잃고 헤매고서 배곯고 피곤에 지쳐 간신히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루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하루를 망쳐 다음날에도 피로를 떨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친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그나마 단 하루의 놀이동산 나들이라면 괜찮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생 전체가 달린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수목건련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길이 무엇인지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에는 순서가 있소. 어떤 사람이 막 내게 와서 가르침을 청하면 나는 가장 먼저 그에게 몸과 입과 뜻을 깨끗하게 하고 선업을 지으라고 가르치오. 그가 내 말대로 이 일을 하면 나는 이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잘 관찰하라고 가르치오. 그런 뒤에 눈, 귀, 코, 혀, 몸과 의지를 지니고서 세상을 돌아볼 때 쉽게 현혹되지 말도록 가르치오. 그가 내 말대로 하여 쉽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되면 그제야 나는 수행자가 어떤 몸가짐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치오. 그리하여 수행자에게 행동에 결함이 없어지면 이제 나는 한적한 곳으로 그를 보내어 고요히 잠선에 임하도록 가르치오."

부처님의 대답을 들은 산수목건련이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일러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깨달음의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까?"

뜻밖에도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도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소."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느냐는 비난조의 질문을 다시 던지자 부처님이 들려준 대답이 바로 앞의 놀이동산의 비유입니다.

"깨달음이 분명히 있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있소. 나는 길안내자가 되어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고 일러주었지만 그곳에 가고 못 가고는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달렸을 뿐이오."<중아함 산수목건련경>

불교를 알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깊이 짚어보고 고민해가며 살아보겠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날 들어봐야 뭐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없다."

당연합니다. 불교는 들어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는 가르침입니다. 업의 가르침은 선업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보시의 가르침은 가진 것을 지금 당장 흔쾌히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참선의 가르침은 지금 급한 일 잠시 미루고 방 한 구석에라도 앉아보라는 말입니다. 색수상행식의 오온은 경전에 나오는 인쇄된 단어가 아니라 내 몸뚱이, 바로 내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 알려주는 안내자일 뿐 그 길을 따라 걷느냐 안 걷느냐는 걷는이의 몫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그런 줄 아는데, 대체 부처님은 뭘 말했느냐?" "대체 불교가 뭐냐?"며 계속 궁금해 하기만 합니다. 놀이동산 가는 길을 물어놓고는 가는 길을 그리도 자세하게 일러주었건만 그대로 차분히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묻기만 하는 사람 – 행복으로 가는 기차의 자리를 예약까지 해놓고는 올라타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는 사람입니다. 다음 기차가 언제 올지는 기약하기가 어려운데도 말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 뒷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연꽃 처걸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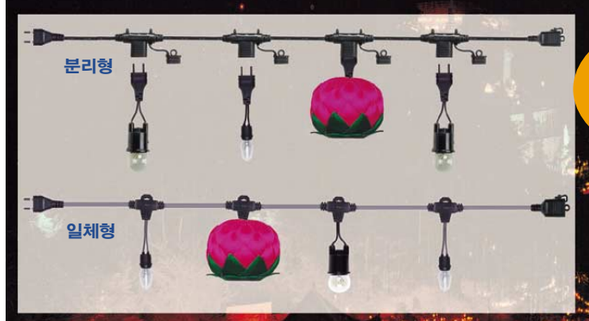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정품)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컬라멘트가 6배 (특 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정 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찻잔·다관 깨졌다고 버리세요?



깨진 다구 고쳐쓰는 요령

비싼 수리비 감수 일본 다구점에 맡겨온 실정
최근 '김경환 다도구 수리연구소' 문 열어 관심
재질 가볍고 얇은 자사호·다완 깨지기 쉬워
옻 이용한 성형 접착 금칠 일반적, 조각 챙겨야

'아차!' 하는 사이에 깨져버리는 다구. 평소 아껴 사용하던 다구가 깨졌을 때의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처음 차를 배울 때 사용했거나 몇 년에 걸쳐 사용해 손때와 애정이 듬뿍 묻어 있는 등 각별한 사연이 담긴 다구라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깨진 다구를 수리해서 사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감상용 도자기와 달리 직접 차를 우려 마시는 다구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수리가 까다롭다. 때문에 그동안 많은 차인들은 깨진 다구를 일본의 다구 전문점에 맡겨 수리를 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만만치 않은 수리비와 긴 수리 기간을 감수하고서라도 다구를 수리하고자 하는 것은 다구가 단순한 '차 우리는 기구'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수양하는 도반(道伴)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인사동 즈미화랑 내에 문을 연 김경환다도구수리연구소(02-738-6569)는 그래서 더욱 반갑다. 다구 수리 장인으로부터 수리법을 배운 김소장은 "주위 분들의 다구를 한 두 개씩 수리해드리다 입소문이 나 이렇게 다도구 수리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됐다"고 말한다.

김경환 소장(43·즈미화랑 대표)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다구들 중 대부분은 자사호와 다완. 재질이 가볍고 얇아 깨지기 쉬운 자사호는 뚜껑과 손잡이, 출수구 부분이 주로 깨지고 다완은 입술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흔하다. 김 소장이 흔쾌히 수리에 응하는 것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쓰이는 다구들이다. 수리비용은 3만~10만원 정도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다구 수리법을 살펴보면 석고수리와 돌가루 수리, 호마이카 수리, 옻 수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조금씩의 단점이 있어 자주 쓰이는 다구를 수리하기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김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석고나 돌가루를 이용해 수리할 경우 뜨거운 물을 자주 부으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접착제가 녹아 나올 수 있다. 일반적인 도자기 수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마이카 수리법은 육안으로는 수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지만, 비용이 비쌀 뿐 아니라 전문 수리점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그나마 다구 수리법으로 적합한 것은 옻을 이용해 성형 또는 접착을 하고 금칠을 하는 법이라고 김 소장은 말한다.

그렇다면 김 소장이 개발한 수리법은 무엇일까?

먼저 화학 세제 대신 소금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 다구의 때를 제거한다. 다음은 깨지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 또는 갈라진 틈 등에 기물의 태도와 비슷한 물질을 반죽해 메운다. 태토가 굳어지면 겉모양을 다듬고 그 위에 유약과 금분(金粉)을 섞어 붓으로 발라준다. 유약이 마르면 재질에 따라 180~450℃의 가마에서 구워낸다.

만약 자사호의 손잡이나 꼭지 부분이 떨어졌을 때는 강력 접착제로 붙이거나 공방 등에서 금을 이용해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수리를 원한다면 접착제로 붙이지 말고 깨진 조각을 다 챙겨 두었다 수리를 맡겨야 한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이런 곳 잘 깨져요





다완이나 찻잔은 입술이 닿는 부분이, 자사호는 뚜껑 손잡이와 출수구가 깨지기 쉽다.

▷ 수리는 이렇게



다구의 깨진 부분을 깨끗이 다듬은 후 기물과 비슷한 태토로 성형한 후 유약과 금분을 섞어 발라 가마에서 구워낸다.

행다로 피워낸 茶心

이경순의 '선영화(禪影花)' 展

범어사 성보박물관, 3월 11일까지

'선의 그림자를 꽃피운(禪影花)' 사진전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3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그동안 불교적 소재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쳐온 이경순 영광도서갤러리 관장의 아홉 번째 사진전이다.

행다(行茶)의 과정 속에 드러난 선의 그림자를 포착해 놓고 있는 이번 작품들은 다인의 마음까지 엿볼 수 있는 행다의 이면을 담고 있어 더 눈길을 끈다.



말차를 격불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성정이 가라앉은 격조 높은 물/녹색 가루 위로 사정없이 쏟아 내린다/섞이지 않은 뒤섞임/다선은 말차의 속내를 읽고/둘의 심장 박동수로 화합을 이루어/솟구치는 거품을 이끌어낸다."

'행다선(行茶禪)'을 주제로 한 이 글은 사진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지만 말차를 휘젓고 있는 손의 움직임과 손을 무릎에 얹은 채 다소곳하게 마주 앉은 자태를 포착해 놓은 사진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경순 관장은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선의 세계를 감히 담아내고 싶었다"며 "나의 존재를 확인해가는 또 다른 여정인 행다 과정을 담아놓은 사진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되묻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508-6139

천미희 기자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6. 보이차 속 골동보이차

만주족이 지배했던 청나라가 1911년에 망하자, 쑨원(孫文)을 중심으로 새로이 구성된 한족의 나라 중화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 40년간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 내전으로 인해 극심한 피폐에 시달린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변방에서 생산된 보이차가 중앙에 공급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고, 결국 보이차는 중앙지배계층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 이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보이차'란 이름조차 모르고 지내야 했던 역사적 배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운남 현지의 보이차 생산은 위축되지 않았다. 비록 중앙에서의 시장은 잃었으나 광활한 티베트, 위구르, 몽골 등 서역(西域)의 소수민족들이 주 소비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광대한 서역시장의 수요는 보이차의 생명력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었고, 보이차를 취급하는 상점 또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오랜 전쟁으로 중앙보다 서역시장 활기
묵힐수록 맛 독특, 저장 연도따라 값 달라

상인들은 보이차를 두 가지 품질로 나누어 만드는데, 서역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하등급 찻잎으로 만든 긴차(緊茶) 혹은 병차(餠茶)였으며 수유차(酥油茶)의 원료로 쓰였다. 고급 찻잎으로 잘 만들어진 산차(散茶)와 원차(圓茶)는 주로 해외시장으로 나갔다.

당시 운남성 보이차의 찻잎은 오늘과는 달리 모두 야생종이었다. 당시의 보이차는 찻잎을 덖어 숨을 죽여 비빈 후 햇볕으로 말린 방법 즉 전통가공법으로 만들었다. 또한 야생 찻잎은 일반 찻잎과는 달리 카테킨의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미노산, 당류 등의 성분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카테킨의 떫은맛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보이차를 생차(生茶)로도 마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의 원료가 야생 찻잎이었기 때문이다.

보이차의 생명력은 생차뿐만 아니라 묵힘으로써도 나타난다는데 그 매력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보이차를 저장 가능케 하는 직접적 동기가 되었고, 생차와 묵은 차 등 두 가지 형태로 상품화하게 된다.

보이차는 묵을수록 생기는 독특한 맛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자 차상점들은 순환판매(循環販賣) 방식을 택하여 매년 새로 만든 보이차는 창고에 저장해두고 묵은 보이차를 연도에 따라 값을 매겨 거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당시 보이차를 취급하는 상점의 집합지는 이무(易武)였다. 이무는 소위 찻잎이 좋다는 6대차산(六大茶山)에 있었고, 이 6대차산을 가리켜 통상 '이무차구(易武茶區)'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차 상점인 복원창(福元昌), 동경호(同慶號), 경창호(敬昌號), 동창호(同昌號), 송빙호(宋聘號) 등이 모두 이곳에 가게를 열어 부를 쌓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생한 돌림병(瘟疫)은 보이차의 상업근간을 송두리째로 바꿔놓았다. 이무에서 발생한 돌림병의 파장은 운송 수단인 마방(馬幇)까지 미치게 됐는데, 각지의 마부들이 전염병이 두려워 이곳 출입을 거부하는 사태는 이무 차산업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과거에 아주 빈번하게 왕래했던 마방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보이차 상점들도 잇달아 휴업하게 된다.

공산중국의 개인 상점마저 허용하지 않는 정책 아래 이무의 보이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해 그 화려했던 영화(榮華)를 접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산물이라 여긴 옛 보이차는 문화대혁명 때 모두 불태워졌고, 그나마 지구상에 남아 있는 것은 모두 50여 년 전 다마고도(茶馬古道)를 통해 동남아를 거쳐 홍콩 상인들 손에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희소가치가 있거나 유서 깊은 기물(器物) 또는 서화(書畵) 등의 미술품을 가리켜 골동품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골동품이라 불리는 '골동보이차(骨董普洱茶)'. 한 편 먹을 때마다 가치가 배로 뛰어 어느덧 호가(呼價)는 있어도 거래가 없는 골동 중의 골동으로 보이차 마니아로부터 추앙받고 있다.

■ 한서대학교

밀납양초 (Bee's Candle) 2006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 전문 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있는 양초외 행사용, 기도용 주문제조 판매)
양초가 연소되면서 나는 향만이 천연 향 입니다. 국내외에서는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등이 있습니다.



천연약쑥향 양초의 특징
①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이 40%이상 길어진다.
② 실내에 배어있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③ 천연쑥향이 양초가 연소되면서 은은히 실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머리를 맑게하여 진취적 사고를 솟아나게 합니다.
천연약쑥향 양초 (발명특허 122357호)
국내 산천에 자생하는 약쑥에서 추출한 향이 첨가된 발명품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1호 59中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3호 47中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4호 47中 ×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 약쑥향양초 1호(돈타대) 5.6中 × 27cm 연소시간 約 100시간
• 약쑥향양초 2호(밀대) 4.6中 × 25cm 연소시간 約 40시간
• 약쑥향양초 3호(돈타대) 3.4中 × 22.5cm 연소시간 約 2시간
• 금강경 7개 세트 59中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밀납초의 특징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보다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기도하실때는 반드시 밀납양초를 이용합시다.



• 1호 59中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以上 • 2호 59中 × 13cm 연소시간 約 50시간 以上
• 3호 47中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以上 • 4호 47中 ×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以上 •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天一氣功
천일기공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님들이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14년간 수 많은 스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기치유법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재복 회장이 오대산에서 만 3년간 매일 100리(40km)씩 걸으면서 얻은 행선법의 의미와 진공 호흡법의 깊은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너 숨쉴줄 아느냐?" 세상에는 숨 쉴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1단계수련 : 3박 4일 코-스
<매월 1회 실시-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음기(사기)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내가 병드는 줄도 모르고 구병시식이나 천도재를 많이 지낸 후 빙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병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치신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 백 산 수 련 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화학세제 ¯_¯;; 천연재료 *^ ^*

친환경 봄맞이 청소 해볼까?



얼었던 땅이 녹는다는 우수(2월 19일)도 지나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면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게 된다. 올해는 무심코 집어 들던 화학세제 대신 효과도 탁월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천연재료로 집안 청소를 해 보면 어떨까? 과일 껍질이나 야채 자투리, 찻잎 찌꺼기, 식초 등을 이용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깔끔하게 청소를 마무리할 수 있다.

악취 · 묵은때 · 그을음 제거 효과 탁월

▷ 식초

식초는 악취제거와 탈취효과가 뛰어난 만능살림꾼이다. 누렇게 바랜 흰 옷이나 지저분한 걸레 등을 삶을 때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탁월한 표백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과 섞어 욕조나 싱크대를 닦으면 찌든 때도 쉽게 제거된다. 플라스틱 반찬통이나 냉장고의 냄새를 없앨 때도 유용하다.

먹다 남은 빵에 식초를 묻혀 반찬통에 하루 정도 넣어두거나 식초 탄 물을 천에 묻혀 냉장고 구석구석을 닦아 주면 음식 냄새가 감쪽같이 사라진다. 악취가 나는 주방 배수구에도 식촛물을 흘려보내면 불쾌한 냄새가 없어진다.

▷ 소금

먼지와 수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 소금은 청소 재료로 안성맞춤이다. 집먼지 진드기와 먼지가 가득한 카펫을 청소할 때 소금을 이용해 보자. 카펫에 굵은 소금을 뿌려둬 먼지와 수분을 흡착시킨 후 청소기로 소금을 빨아들이면 카펫이 한결 깨끗해진다. 창틀구석이나 틈새 먼지는 물 적신 천에 소금을 조금 묻혀 닦으면 좋다. 불단에 둔 조화에 먼지가 쌓였을 경우에는 비닐봉투 안에 조화를 담고 굵은 소금을 뿌린 후 꽃의 줄기를 잡고 흔들면 먼지가 제거된다.

▷ 야채 자투리



무나 오이 등 쓰고 남은 채소 토막은 싱크대 주변 청소에 사용한다. 자른 무나 오이의 단면으로 싱크대 주변을 문지르면 녹과 눌어붙은 음식 찌꺼기 등을 깨끗이 닦아낼 수 있다.

양배추 겉잎은 석쇠나 그릴의 구이망에 달라붙은 더러움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작게 접은 양배추 겉잎으로 망의 더러움을 긁어내고 물로 씻으면 생선의 기름기도 말끔하게 제거된다.

▷ 녹차 커피 찌꺼기



우려 마신 찻잎과 커피 찌꺼기는 탈취와 제습에 효과적이다. 찻잎을 양파망 등에 넣어 장롱, 서랍장 등에 두면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싱크대의 찌든 때와 기름기도 찻잎이나 커피 찌꺼기로 닦으면 쉽게 제거된다. 물 1리터에 홍차 티백을 한두 개 정도 넣어 끓인 후 식힌 물로 마룻바닥을 닦아주면 윤기가 난다. 다 닦은 후에는 마른 걸레로 물기가 없도록 깨끗이 닦아준다. 청소가 끝난 후 쓰레기통에 녹차나 커피 찌꺼기를 깔아두면 냄새가 제거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과일 껍질

과일 껍질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면 청소 재료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냄비 바닥에 음식이 눌어붙었을 때 사과 껍질과 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감쪽같이 벗겨진다. 강력한 세척력을 자랑하는 레몬으로는 기름기 많은 그릇이나 가스레인지 위의 기름때를 닦아주면 말끔하게 닦인다.

바닥이 타서 거무스름해진 알루미늄 냄비에 물을 끓인 뒤 레몬 조각을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더 끓이면 그을음이 제거된다.

전자레인지 안에 밴 음식 냄새를 없애려고 한다면 오렌지 껍질을 넣고 1~2분 정도 가열하면 된다. 잘 말린 귤 껍질 삶은 물을 거즈에 적셔 가구나 상을 닦으면 반질반질 윤이 난다. 같은 방법으로 돗자리를 닦으면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죽소파나 의자의 광을 내는 데는 바나나 껍질이 좋다. 바나나 껍질을 소파에 문지른 후 마른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면 광이 나며 천연 코팅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가죽의 수명도 길게 해 준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7〉

표고버섯 구이, 냉이전-제철 채소로 건강 챙기기



사찰음식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음식이 바로 표고버섯 구이였습니다. 당시 한 사찰에 머물던 저는 공양간에서 덩치 큰 비구 스님이 보살님들과 마주 앉아 표고버섯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큰 손으로 표고버섯을 정성스레 닦은 후 한 장 한 장 유장 처리(기름과 간장으로 밑간을 하는 과정)를 하는 모습이 생소하면서도 한편으론 정성이 가득 배어났기 때문입니다. 유장 처리 후 고추장 양념을 다시 곱게 발라주는 정성 끝에 탄생한 것이 표고버섯구이였습니다.

처음 표고버섯구이를 한 입 씹는 순간, 솔잎향 같은 것이 코를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버섯의 깊은 맛을 몰랐던 저에게는 표고버섯의 맛과 향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맛을 느끼고 싶었기에 사찰음식에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찰음식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제철에 나오는 영양이 풍부한 야채를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봄에 작은 절에서 개최한 행사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양주 보살님이 특별한 전을 부치고 싶은데 마땅한 재료가 없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 코를 자극한 것이 바로 점심 때 먹으려고 끓이던 냉이된장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냉이에 감자를 갈아 넣어 냉이전을 부쳐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곧바로 산에서 냉이를 캐와 전을 부쳤습니다. 전을 맛보신 스님께서 "봄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향긋한 전을 먹겠냐"며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요즘에는 하우스 농사를 짓는 탓에 사시사철 싱싱한 채소를 구할 수 있지만, 그 후로 전 항상 제철에 나오는 채소를 이용해 요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젠 입춘도 지나 만물이 꿈틀대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시작하는 봄에 영양이 가득 찬 싱싱한 먹을거리로 식탁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만드는 법

〈표고버섯구이 (1인분)〉 재료: 건표고버섯 4장, 양념(참기름 1/2 작은술, 고추장 1작은술, 산초가루 약간, 조청, 통깨, 생강즙, 녹차기름) 유장(참기름 1작은 술, 간장 1/2작은술)



① 건표고버섯은 물에 불린 뒤 물기를 꼭 짠 후 버섯 기둥을 제거한다. ② 표고버섯의 겉면에 유장을 발라준다. ③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④ 유장을 바른 표고 안쪽에 양념장을 발라준 뒤 프라이팬에 부친다(180도 예열된 오븐에 5분 정도 구워도 된다).

〈냉이 전(1인분)〉 재료: 냉이 1줌, 감자부침가루 2 큰술, 밀가루 1 큰술, 죽염, 팽이버섯 1봉, 녹차기름



① 냉이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행군 뒤 송송 썰어준다. ② 팽이도 송송 썰어준다. ③ 냉이와 팽이에 감자부침가루, 밀가루, 죽염을 섞어 반죽한다. ④ 반죽 후 20분 정도 숙성시킨 뒤 한입 크기로 부쳐낸다.

※맛내기 포인트: 전은 가능한 한입 크기로 부쳐 칼로 자르지 않도록 한다. 칼이 닿게 되면 감자의 고소한 맛과 냉이의 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는 곤드레밥과 곤드레된장국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대구경북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원)

학기	월 별	강 의 내 용	비 고
1학기	2006년 3~6월	기초 : 목탁치는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 등 예불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오분향례), 각단예불 불공 : 삼보통청(사시마지), 퇴공 각단 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음시식 구병시식, 장의편, 방생의식	기초불공의식 및 재사의식
	7~9월	상주권공(범음범패) 할향, 등게, 상귀의,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태징타법,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외..... 범음 · 범패
2학기	10월 ~ 2007년 1월	천도의식(전통범음) 시련재, 대령재, 관욕재 옹호게 신중작법(39위) 상단권공 및 시식 삼보통청, 지장청, 시식회향	법주, 바라지 관욕바라, 화의재 바라 향수나열(범음) 사다라니 바라 운심게, 가지게 (범음) 화청, 축원화청
	2007년 2월	시연회 준비 전체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함.	특강 : 법고 공덕게 (범음)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06년 3월 9일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학기당 600,000원[총 2학기]
5.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8. 접수기간 : 2006년 3월 9일까지
9. 문 의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퇴행성 관절염 〈신물질 충격 요법〉
약사 나경환 지음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 허리 근육이 굳어있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뻣뻣하신 분, 고혈압, 심근경색, 뇌혈전, 동맥경화, 고지혈증, 불면증, 만성두통, 정맥류, 손 발저림, 혈액순환장애로 고생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2)3436-3206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벼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3. 6 월 · 화 반, 수 · 목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溫補元 (온보원)

世上천지에 만병통치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마음 해탈하여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일 뿐이죠.
어느 약재 하나로서 만병을 다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약재나 간택을 잘 하시어 적소에 처방이 이루어 질때라야 효과가 뛰어나는 법입니다.

이에 온보원 약재는 김지문 선생께서 다년간 스님을 비롯 많은 님들께 검증을 통하여 냉병을 다스리고 어혈을 풀어 몸의 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오장의 안정을 돕고 묵은 응혈 해소를 통하여 먼저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뿐해 집니다. 피로감과 무력증에서 쉬이 벗어남을 체험하실 겁니다.

다만, 이와같은 증상을 갖고 계신 분만 복용을 원하오며 그 외 다른 병증에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체불명의 약재를 함부로 복용하여 되려 건강을 해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마음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1통 한 달 복용분
• 1일 2~3차례 30~40알 복용
• 2~3개월 복용하시면 위와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하실 것입니다.
• 주요성분 : 황칠나무(참옻나무), 당귀, 밤, 가지 익모초, 발효뽕잎, 황기, 황굼 등

◇ 가 격 = 1개월분 : 90,000원
3개월분 : 250,000원

덕림산방 박 미 숙 합장
주문전화 : 011-620-9453
농 협 : 601063-52-099899
우체국 : 502583-02-022569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금 · 은메달리스트 안현수(오른쪽), 이호석 선수. 사진제공=연합뉴스

동계올림픽 빛낸 불자선수들

쇼트트랙 안현수 · 이호석, 금 · 은메달 따내
이호석 선수의 '아름다운 양보' 잔잔한 미담
여자 계주 최은경, 변천사 등도 불자 '기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의 메달 레이스, 그 한 가운데 불자선수들이 있다.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 안현수 선수(21 · 한국체대), 은메달리스트 이호석 선수(20 · 경희대)는 한국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주인공.

사상 첫 3관왕에 도전하는 안현수 선수는 우승 후보로 점쳐지던 안톤 오노(24 · 미국)를 가볍게 물리치며 첫 메달 획득의 스타트를 끊은 만큼 그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였다.

첫출발인 1500m에서 순조롭게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그의 3관왕 도전은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앞으로 500m, 5000m계주(이상 26일) 등이 줄줄이 남아있고 제 실력만 발휘하면 이 가운데 2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첫 올림픽 출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호석 선수가 보여준 '양보'는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아있다.

1500m 결승전에서 이호석 선수는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아웃코스에서 치고 들어오는 안현수 선수에게 순순히 선두를 내줬던 것. 이호석 선수는 경기 후 절대 양보가 아니었음을 밝혔지만 그가 사심 없는 보살심을 보여줘 우리나라가 금 · 은메달을 다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것이 한국선수단의 평가다.

이름 밝히기를 한사코 거절한 이호석 선수의 할머니는 "어디에 있든 온 가족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며 "26일에 귀국한다고 하는데 몸 건강히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등 가족의 진심어린 기도도 그의 메달 레이스에 힘을 더하고 있다.

올림픽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여자 3000m 계주에서 결승에 진출한 최은경 선수(22 · 한국체대) 변천사 선수(19 · 신목고)도 불자이다. 22일 벌어지는 결승은 한국과 이탈리아 · 중국 · 캐나다가 맞붙는다.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는 조 2위로 결승에 진출해 우리 시각으로 오는 26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캐나다 등과 금메달을 놓고 대결을 벌인다. 불자선수들의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토리노 올림픽에서 그들이 영웅으로 탄생할 것을 기대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국민여동생' 문근영씨 21세기 우수인재 선정

'국민여동생'이라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불자 탤런트 문근영씨(사진)가 제5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 온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에는 80명이 뽑혔다. 수상자들은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문씨는 2월 1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메달과 교육부총리 상장, 300만원의 장학금 등을 받았다. 이날 청소년 발명왕 권민재, 예비 과학자 최안렬씨, 야구선수 한기주씨, 얼짱 복서 최신희씨 등이 함께 상을 받았다.

고교생 특정분야 재능 우수자 후보에 올랐던 문씨는 잇단 선행, 학교생활 및 연예활동을 모범적으로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문근영씨는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20~25일 이탈리아 토리노를 방문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불교TV, 美 전역 실시간 방송



오른쪽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 불교TV회장 성우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자리했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기념법회
지관 스님 "영상불사 새 지평" 법문

불교TV(회장 성우)가 2월 15일 불교TV 미국전역 실시간 방송 기념법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이날 "불교TV 미국방송은 부처님의 법을 맨 처음 전했던 '유통불사' '경전불사'에 이어 최첨단의 '영상불사'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부처님의 법음을 교포불자들과 미국현지인들에게 전하는 훌륭한 불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이에 앞서 불교TV 성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TV 미국방송은 동서문화 교류적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교TV가 하는 미국전역 실시간 방송은 국내 방송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시간대으로 미국에서도 방송한다는 개념이다. 불교TV는 미국 현지의 시청자 그룹의 제1타깃을 현지 교포로 보고 있다. 2월 말 본방송에 들어갈 불교TV의 미주방송은 자막처리나 영어더빙 등이 없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다. 방송이 안정되면 앞으로 현지인들을 위한 자막 더빙 등도 시간을 가지고 보완할 계획이다.

미국 방송을 위해 불교TV는 국내 위성플랫폼 사업자인 아이스카이컴과 계약했다. 이 아이스카이컴의 미국 파트너인 에코스타가 보유한 위성으로 디시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불교TV의 전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에 방송된다. 강지연 기자

국립국악원서 '명인명무전' 열려

21~24일, 날짜별 테마 무대 볼만
일초 스님 사다라니 바라춤 선봬

전통 불교의식무용으로 춤 세계를 선보여온 일초 스님(사진)이 2월 24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바라춤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바라춤은 사다라니 바라춤. 이 춤은 바라춤 가운데 최상급으로 부처님 전에 신성한 공양을 올리는 의식에서 행해지는 춤사위이다.

스님의 이번 무대는 동국예술기획(대표이사 박동국)이 제42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에서 만날 수 있다. 2월 21~24일 열리는 올해 명인명무전의 특징은 날짜별로 특색 있는 테마 무대를 꾸몄다는 것이다.

일초 스님은 무형문화재 공연단체 연합회 이사장, 인해전통문화예술원 이사장,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 10-나호 범패 작법무 보유자, 대한불교 삼계종 총무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예인이라고 평가받는다.

이번 명인명무전의 첫날마당 '소리와 몸짓'은 젊은 전통무용가들 9인을 선별해 전통무용의 미래를 열어가는 무대로 꾸몄다. 둘째 날은 9인의 '교수 명인명무전'으로 강단에서의 전문성을 무대로 옮겨왔으며, 셋째 날은 9인의 '중견 명인명무전'으로 각 분야에서 명성있는 분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전국 팔도의 각양각색 살풀이춤은 마지막 날 무대를 장식하는 '8도8색 살풀이춤 명무전'에서 볼 수 있다. (02)2278-5452

강지연 기자



"문회지킴이 최선 다할 것"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2월 13일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회장은 김광현씨, 총무는 이학성씨가 맡아 전통미술 보존과 전승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겠다는 포부다.

신임 김광현 회장은 "전통문화는 우리의 혼을 지켜나갈 등불"이라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전통미술의 가치가 오염되지 않도록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문화지킴이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는 문화재 조각기능인들이 모여 1986년 창립한 단체다. 2년에 한번씩 아홉 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하고 매년 전 회원이 동참해 17번의 문화재답사를 가졌다.

강지연 기자

불교전통혼례 시연

2006한국불교박람회가 박람회 기간 중 불교전통혼례 시연을 개최한다. 법현 스님의 주례로 3월 26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불교전통혼례 시연의 주인공은 대불련 출신 불자 한성욱 노율래씨. 이들은 10월 정식 결혼식에 앞서 불교전통혼례를 통해 부처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 첫발을 내딛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불자가수회 올 행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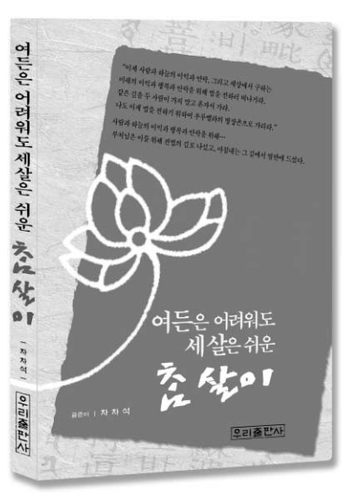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흥국)가 2월 13일 불교진흥원 다보빌딩 503호로 이전하며 이전현판식을 개최했다. 전국비구니회관에 있던 사무실에서 진흥원으로 이전한 것이다.

18일부터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한 대한불자가수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디너쇼를 준비하고 있다. 매월 해오던 전국불자노래자랑, 군법당 · 교도소 · 양로원 위문공연 등은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불자가수회는 2월 21일 대한불교진흥원빌딩 지하 다보커피숍에서 소년소녀가정돕기 일일찻집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열린 일일찻집의 수익금은 전액 소년소녀가정돕기 성금으로 지급된다. 강지연 기자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여든은 어려워도 세살은 쉬운 참 살이



"이제 사람과 하늘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부처님의 '전도선언' 中에서

글쓴이 | 차 차 석
신국판 | 양장본 286쪽 | 값 10,000원

I. 부처님, 이 땅에 오시다 · · · · · 부처님이 세상으로 오심으로써 비롯된 불교발달사 및 핵심교리
II. 없음과 비움의 철학적 사색 · · · · · · · · · · 불교의 기본사상인 무아, 윤회, 공사상의 변천사
III. 계율 이야기 · · · 승가를 유지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계율의 근본정신과 발달사
IV. 수행과 삶의 이야기 · · · · · · · · · 이상적인 불교적 삶의 방법론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V. 부처님, 여성을 보다 · · · · · · · · · · · · · · · 어떤 페미니스트보다 앞선 부처님의 여성관

차 차 석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불교신문 논설 위원, 한신대학교 산학 협력단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출강 하는 등 불교 알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팩스: 02-393-9696 woribook@chol.com


대행스님

내 마음 발견하는 것이 제일 으뜸가는 공부

청정한 부처님 나라로 바꾸려면

문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배워서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자유로워지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서 누구나 평등한 사회인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물질에 의해서 선악이 바뀌기도 하고 오직 물질을 소유하는 것만이 전부인 양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되는 전도망상의 세상을 어떻게 청정한 부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는지요.

답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짐작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불국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꼭 만든다 안 만든다를 떠나서 본래 불국토는 되어 있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佛)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라는 것은 우리 삶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 종교의 이름들을 모아 놓고 이 종교가 맞느냐 저 종교가 맞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진리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볼 때에 그 생명들,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생명도 생명이요, 모두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이 땅에 생명들이 모두 살고 있으니 바로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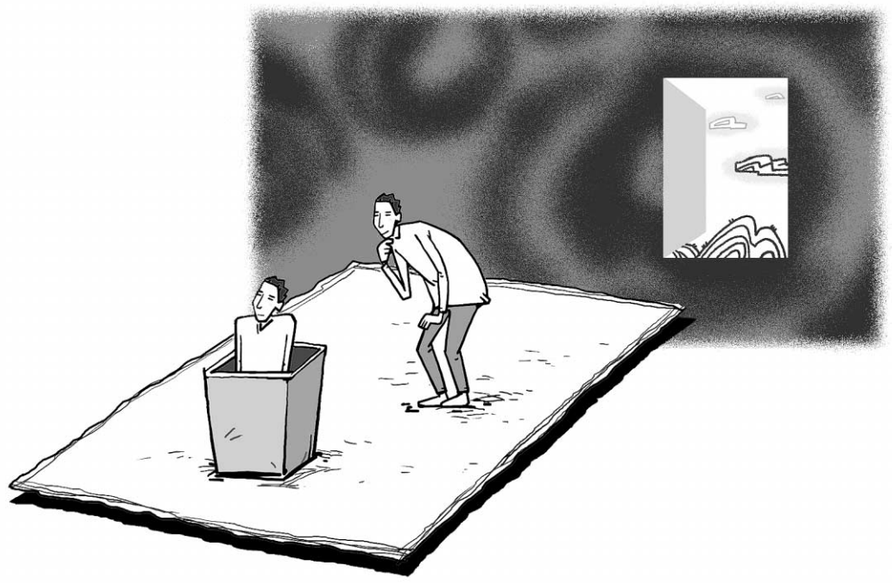
누가 불국토를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진리가 항상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불교는 이러니저러니 하고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해 놓으셨고, 또 지금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죠. 처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차근차근히 공부를 시켜야만 하겠지만 이 참선이라는 대도의 걸음걸이는, 걸음걸이가 있느니 없느니도 없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도 없이 그냥, 그냥 무심으로 행을 그대로 하는 거죠. 공한 까닭에 그렇습니다. 공한 까닭에 좝나좝나 나투면서 화(化)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려면 결국은 무심으로 무행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가고 있고요, 또. 그런데 전자부터 살아온 거를 볼 때에 모두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게 틀리다 이게 옳다.' 하고 많은 분들이 다 그럭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학식을 배운다 배우지 않는다, 여기에 따라 무조건 바보로도 보고 똑똑한 사람으로도 보고 그러죠. 그런데 이 법은, 이게 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 공법에는 알고 모르고도 없고 길이 끊어지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또는 오늘만, 이 한 생만 산다 이런 것도 없고 요다음에 또 산다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유권을 얻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유스럽게 자기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야만이 된다. 그런데 자유스럽게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즉 말하자면 서른일곱 개의 그 속에 팔정도도 들어 있고 12인연법도 들어 있고, 또는 사성제도 들어 있고 전부 거기에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너는 계율을 지켜야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계율을 지키려고 애를 써 보세요. 계율을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계율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거보다도 슬기롭게, 계율을 지킨다는 것도 없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 나간다면, 돌로 보지 않고 잘해 나간다면 그건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도 없이 그대로 무조건 그냥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계율을 안 지킨다 지킨다도 없죠.

이렇게 들어가야 사람이 이 우주관이 탁 터지고 전부…, 이 지금 지구 주머니 하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몸뚱이라는 주머니 안에서도 못 빠져나가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몸뚱이라는 이 주머니 안에서도 못 빠져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를 벗어나겠습니까. 말로만 도리천 도리천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그대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 중에도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움죽거릴 수도 없고, 그렇게 형편없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겁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백 번을 말을 하고 백 번을 움죽거렸다 하더라도 나는 움죽거리는 바가 없이, 그냥 함이 없이 하고 가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으면 그렇게 움죽거렸어도 움죽거린 바가 없고 말한 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데도 드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가 드물다고요. 여기에서 정말 만사 가운데서 폭포수가 터지듯이, 화산이 터지듯이 그렇게 온 우주에 터져서 여러분이 모두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이 된다면, 정말 앞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다들 조금도 어김없이 육도(六道)의 중생들을 다 건지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미생물이나 지옥고나 아귀, 축생이나 또는 아수라나 인간이나 하늘 인간이나 모두 합해서 다 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습이 잘나고 못나고 이걸 떠나서, 이 모습은 한 생을 살다 보면 버리고 다시 옷을 입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차원이 높아져서 상세계의 차원이 된다면 높고 낮음도 없이 자유스럽게, 부처님 세계에서 자유스럽듯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벗어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

문 왜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관념과 관습에 얽매여서 제자리만 뱅뱅 돌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저의 틀을 벗어버리고 시원스럽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를 일러 주신다면 꼭 벗어나 보겠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부처님께서도 힌두교 사람들더러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몸으로다가 수행을 하고 몸으로다 고행을 해서 성불을 하는 게 아니니라. 도를 얻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니라. 마음으로서의 정신에 의해서 두뇌로 통신을 해서 사대로 통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한다면 그게 바로 도심을 기르는 지름길이니라. 그런데 몸으로다가 한다면,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고 말 떨어지면 뭐가 남는 게 있어서 도심을 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뚱이는 한계가 있는 거지만 마음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오기만 하면 벌써 크고 작은 거 알고, 좋고 나쁜 거 알고, 도둑질하는 게 나쁜 건 줄도 알고 안 하는 게 좋은 건 줄도 알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자기 자성, 본래 자성, 자기 근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근본도 여기에 있고 이 세상의 근본도 여기에 있고, 모든 근본이 여기에, 자가발전소처럼 다 그 근본이 있을 때, 거기 하나만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지 않겠습니까? 나 한 군데를 모르고는 여러 군데를 다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 살던 대로 입력된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또는 과거에 살던 그 숙명통에 대치하는 통신기가 있으니 무전통신기 같은 그걸 바로 '천이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의 속을 다 아는 것을 뭐라고 했는가, 바로 탐지기라고 했습니다. 그 거를 '타심통'이라고 했습니다. 또 '천안통'이라고 한 것은 천체 망원경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족통'이다 하면 우리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간다면 거기 이유가 붙습니까? 똥 누러 가는 데도 이유가 붙고 배고파서 밥 먹는 데도 이유가 붙고, 그렇진 않겠죠? 저녁에 주무시는 데도 이유가 붙습니까? 졸리니까 그냥 잘 뿐이지. 그렇게 우리 지금 살아 나가는 데에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이유가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고, 오고 감이 없이 말입니다. 함이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유가 붙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거나 사는 데 좀 순조롭지 못하면 거기 이유가 꼭 붙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바로 창살을 넘나들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들이 주인공은 다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본,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을 켜면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걸 가지고 가설이 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주어집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세생생이 주어지고, 세세생생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헤매고 돌게 될는지 어떤지 하는 그것은 모두 자기의 소관입니다. 그러니 나 자체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남을 알며 어떻게 다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귀중한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방법을 찾으니 스스로 그렇게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정말 아닌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는데…' 하는 것들이 보이고 들립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지요.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 세상 자체가 본시 불완전한 것이기에 모른체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답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들어서만 꼭 아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듣고도 아셔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이 세상 이치를 다 적으리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세상을 볼 때에, 말없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너희는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차원에 따라서,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너희 마음대로 가지고 살다가 다 놓고, 네 몸뚱이까지도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몽땅 다 놓고 가되,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인과가 되고 유전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고 인생에서 선덕을 잘 쌓고, 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으뜸가는 공부니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개미 하나, 풀 한 포기도 전부 여러분의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허공은 허공대로 '자유스럽게, 티 하나 걸리지 않고 흘러 돌아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같이 살라' 하는 겁니다. 물은 물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집으로서 만생을 이끌고 나가는 물은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 없이, 어떠한 차원도 없이 흘러갑니다. 그것도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스승!

그뿐이 아니라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나무들도 바람 부는 대로 바람에 날려서 아무리 뿌리가 뽑힌다 하더라도 말없이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통하다고 원망을 하거나 바람이 왜 부느냐, 왜 뿌리가 뽑히게 하느냐, 왜 못살게 하느냐, 왜 눈이 오느냐, 왜 우박이 오느냐, 그래서 왜 나한테 타격을 주느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냐.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우리처럼 말없이 살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 씨를 만들어 놓고는 겨울에는 그냥 앙당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히고 뿌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역시 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게 스승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개미들이나 짐승들을 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새들도 알을 까 놓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을 낳고 지키고 이끌어 주고 똑바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칠까 봐 걱정이고 말입니다. 어떻게 살림살이가 다르겠습니까. 모습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지마는 그 살림살이의 근본은 다 똑같은 겁니다. 개미들도 그렇고 말입니다. 얕잡아 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만생이 다 이렇게 나와 같이 공생(共生)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화(共食化)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다 자식이다 이런 데 연연하고 애착을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하지마는 억겁 광년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도둑질은 안 했겠습니까. 생명을 잡아먹지는 않았겠습니까. 나쁜 짓은 안 했겠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겠습니까. 병신은 안 됐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과거의 모자랄 때 내 모습으로 보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과거의 잘못한 내 모습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속에서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기가 없어지고 유하게 부드럽게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둘 아니게 보라는 거죠.

부모 자식이다 할지라도 한 철 부모 자식이지 그 한 철이 지나면 그대로 뿔뿔이 몸도 다 놓고 갑니다, 제가끔. 원점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또 생(生)해서,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올 때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果)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또 출현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되죠. 이건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넓게 생각을 할 때 내 부모 아닌 게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찰나에 인생이 가고, 한 찰나에 인생이 생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요 한 철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여서 놀러 갔다고 합시다. 모여서 놀러 갈 때는 한 식구입니다. 그리고 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즐겁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헤어집니다. 다 뿔뿔이 자기 갈 데로 다 헤어지고 그 자리조차도 내놓습니다. 그

☞30면으로 계속

답

나는 나를 끌고 다니는 나를 믿어야 된다!

☞29면에서 계속

와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섭류도 다 그렇단 말입니다. 저 혹성이나 핼리혜성이나 또는 어떠한 별성이든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섭류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래로 쭉 내려다보세요.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토끼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수명이 인간보다 짧고 그렇지만, 수명이 아주 긴 것도 있고, 수명이 아주 짧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로 길고 짧고 길고 짧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열 달이 돼야 나오지만 6개월 만에 낳는 것도 있고 석 달 만에 낳는 것도 있고 몇 주일 만에 낳는 것도 있고, 그거는 여러 층으로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자라면 기술자끼리 모이고, 농사꾼은 농사꾼끼리 모이고, 배를 타는 사람은 배를 타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들 모여서 살듯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다 놓아 버리게도 하는 그런 장본인인 주인공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으며,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수억겁 전부터 생기게 해서 이렇게 인간까지 이끌어 왔는데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공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이름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형상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스님들의 고깃덩어리인 몸뚱이를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선 쑥 내밀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내 중심입니다. 중심! 팔뚝! 중심! 오온(五蘊)을 다 쥔 겁니다. 이 쥐었다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 전부 같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만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니 별성이니 달이니, 어느 혹성을 막론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가 내 살림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며 서로 주고 서로 살리기 때문에, 이 세상사가 전부 가설이 돼 있는 근본은 바로 내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먼저 알아야 된다. 나 먼저 발견해야 된다. 나 먼저 믿어야 된다. 나는 나를 끌고 다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거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넌 누구를 믿느냐?" 하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초를 켰는데 한쪽이 기울어지게 타들어간다면 촛농이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위로다 딱 잘라서 똑바로 해 놓고, 기울어지는 것을 똑바로 세워 놓으면 한쪽이 이그러지지 않으니까 촛농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도 마음으로써 다스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고삐를 자기가 쥐고, 남의 파 밭으로 들어가면 "파 밭으로 들어가선 안 돼. 이랴!" 하고, 딴 데로 가면 "워워!" 해서 항상 똑바로 가게끔 고삐를 쥐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안 하고 그냥 갈 수 없는 바로 자기 공부입니다.

항상 방편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집에 전화를 먼저 놔야 남한테 전화도 받고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서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과 법칙이라든가 또는 유전 법칙이라든가 이 모든 생태의 문제들을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나를 알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유유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정신계와 물질계를 작용하면서 베풀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냥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굴려서, 이론으로만 꽉 알아 가지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앉았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섰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뭣고?' 하기 이전에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것이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해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놈이 뭣고.' 하기 이전에 아, 그놈이 하는 거니까 모든 걸 거기다가 되돌려 놔라 이 소립니다.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들이고 내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못났든 잘났든 내가 가는 길인데 의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바깥으로 생각을 지어나가지 말고, 한 발짝을 떼어 놔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내 심력을 기르는 것만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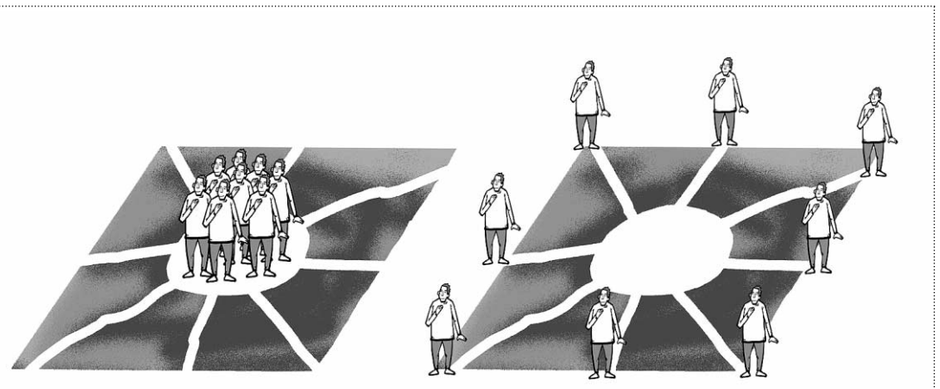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똑바로 가게끔 마음의 고삐를 쥐어야

입력된 것이 지워지지 않아

문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할 때면 그것도 내 속에서 나온 습인 줄 알고 다시 놓아 버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격한 감정이 솟구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자신도 모르게 저 잘난 소리를 마구 늘어놓다가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이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늘 되입력 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먼저 입력된 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습이 워낙 두터운 까닭인지요?

답 그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되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자꾸 따지는 버릇을 갖는다면 그게 습입니다. 자기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따지죠, 일일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속에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몸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거기서 솔솔, 그저 이때 한 거는 이때 나오고 저때 한 거는 저때 나오고, 그냥 입력된 대로 순서대로 착착 나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착착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의식들이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들이 입력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자꾸 거기서 나오는 대로 나오는 그것만 알지,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모르는 중생들입니다, 이게 업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거, 그놈도 거기서 나온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수좌가 동짓날 팥죽을 큰 솥에다 쑤는데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서 팥죽 방울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수없이 나오니까 퍼뜩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팥죽 방울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방울대로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아이구, 한 팥죽 솥에서 나오는구나!' 하고요. 이제 아시겠죠? 한 팥죽 솥에서 방울이 나오는 거지 따로따로 이 방울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자기 법이란 얘기죠. 법신! '요것도 법신, 요것도 법신!' 하고는 주걱으로 때렸단 말입니다. '이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하고 그저 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스스로 익는다면 벌써 팥죽은 다 익었으니까, 열기가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아주 평상시처럼 따뜻하게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팥죽 방울이 올라오지 않죠. 모두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그냥 모두가 팥죽이 돼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을, 거기서 어떠한 뽈따구가 나오든지, 또 자기에게 누가 되게끔 생각이 나오든지, 또 집안 식구들한테 짜증이 나든지, 또 자식이 잘못해서 속이 상하든지,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냥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자식의 일이든지 뭐든지 다 거기다가 맡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걸 거기다가 맡겨 놓을 때, 동시에 '흥,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돌아서 잘 나오게도 할 수 있잖아!' 하는 생각이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안되는 일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되게 할 수 있는 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돌려놓는 겁니다.

속에서 이렇게 뽈따구가 날 때 아니, 불이 일어나게끔 나올 때 불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도 바로 거기 아닌가. 이럴 때는 아주 선선하게 이 마음이 곧바로 화해 가지고는 아주 좋게 나옵니다. 즐겁게 나옵니다. 웃음도 깔깔대고 웃다가 '아이고, 이거 안됐잖아?' 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뚝 멎죠? 그렇게만 하신다면 모든 게 아주 더할도 덜할도 없는 잘 익은 팥죽이 돼서 맛있게 맛을 볼 것입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참회의 눈물 (하)

이상열 (○○구치소 재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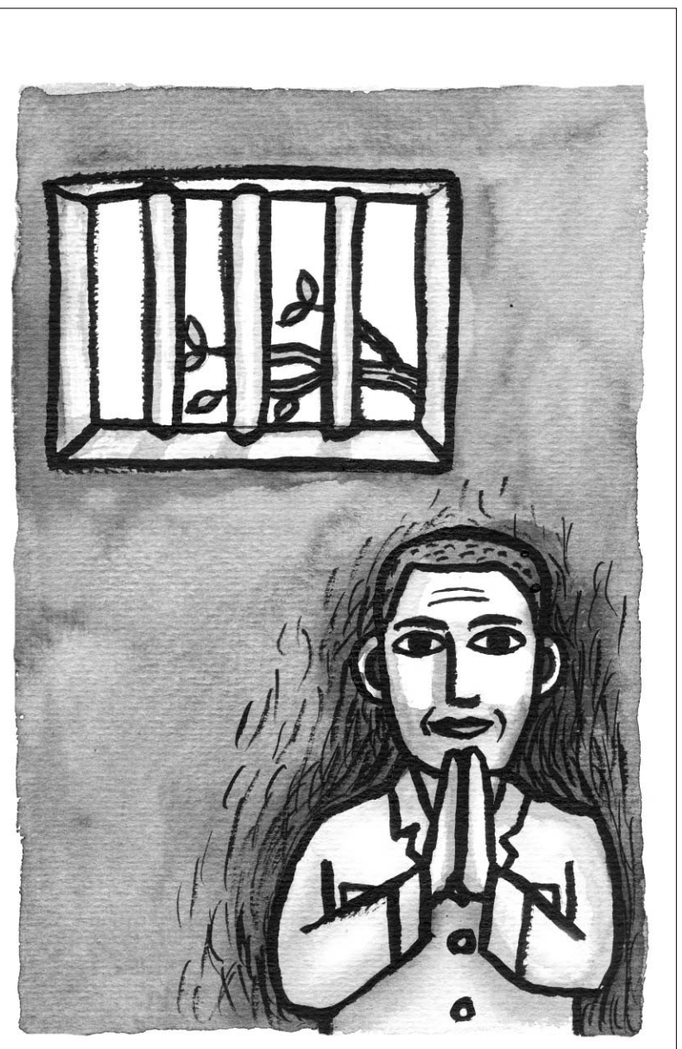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처음에 혀도 돌아가지 않던 독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습니다. 맨 처음 경전을 온전하게 다 읽었을 때는 눈물이 흘러나의 모든 업장이 소멸된 것처럼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경전을 읽을수록 세세생생 쌓아온 내 업이 얼마나 두터운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전을 읽으면서 좋았던 것은 무엇보다 새벽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읽고 나면 녹초가 되던 몸 또한 이제는 피곤하다기 보다 개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차 독경 이후 새벽기도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도 점차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새벽기도를 자폐증을 얻은 아들이 어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과 내가 없는 가정에도 제발 화목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염원하기 위해서만 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새벽기도 시간은 내 모든 행위에 대해 곱씹고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분들께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지요. 기도를 하기 전 까지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변명도 했는데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 울며 매달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후에야 진심어린 죄스러움에 참회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독경도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나는 구치소에 오기 전까지는 '불자'라고는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독경이나 기도를 제대로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이곳 구치소에 와서야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정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진정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여기 들어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자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불자님들! 내가 지금 이렇게 신행수기를 쓰는 것도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천수경>과 <금강경> 등의 경전 독송도 어느 순간이 되자, 전혀 잡념 없이 읽어갈 수 있었고 진정한 참회도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피해본 분들 위해
독경과 새벽기도 병행하며 참회
부처님 가피로 감형 받고 평안 찾아

하루하루 고된 이곳 구치소 생활 속에서도 불법은 여여하고, 그 불법과의 만남은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 와 닿더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곤한 새벽에 일어나서도 나는 독경을 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마음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나의 '참회'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나로 인해 받은 고통을 소멸시켜 나가시기만을 두 손 모아 빌고 또 빌 뿐입니다.

이제 나의 새벽독경과 기도는 구치소 안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처음, 새벽에 일어나서 면벽하고 경을 읽고 있으면 한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도관들께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누구나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기도하더라'하고 알정도가 되다 보니 조금 쉬고 싶고, 피곤할 때 한 번씩 독경과 기도를 빼먹고 싶은 강한 유혹이 일어날 때도 다른 분들의 시선과 의식이 스스로 단련하는 마음의 채찍이 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주위의 모든 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전을 읽고 있다는 환희심 때문에 구치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구치소 사람들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경을 읽고 참회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부처님법'이지만 또 다른 분에게 내가 옳지 못한 방식으로 강요하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저 인연되는 분들과 함께 내 경험을 고스란히 공유하고, 또 덕 높으신 스님들께 법을 청해 들을 수 있다면 그 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루 열두 번도 더 생기던 잡념이나 불안감, 미워하고 불평, 불만 등을 가졌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행복하고 평안함이 생겨났습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약 2년간의 수감생활 중에서 지금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며 더구나 지난 2005년 8월 15일에는 대사면 기준에서 무려 남은 형기에서 10개월여의 감형까지 받고 보니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다 못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자폐 증세를 보이던 큰아들 녀석도 악화되는 기미 없이 병세가 점점 호전이 되고 있으며 사춘기 어린 자식들까지도 부처님의 가호 아래 큰 문제없이 잘 지낸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온갖 잡념과 괴로웠던 마음, 악한 마음들이 하나 둘 허물어지면서, 허물어진 만큼 이웃과 피해보신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것들에서 이제는 피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며, 마음 깊이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참회진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의 몸으로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수도 있었는데 부처님의 말씀과 큰 은덕으로 철과 돌로 쌓여있던 마음의 문을 허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억겁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죄업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죄 갚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 부처님 전에 엎드려 감읍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던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절망과 후회 속에 있는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나와 같은 사람도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아시고 더욱더 부처님께 귀의하셔서 용맹정진 하세요. 그러고 나면 지금의 어려움과 후회는 태양빛에 사라지는 봄날의 눈처럼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광명정대한 불국정토와 부처님의 가호아래 모든 생명가진 것은 성불하시길 두 손 모아 합장하오며 부족한 글을 마칩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한산사
- 대 표 : 손상형, 박길임
- 주 소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 47번지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으로 치료한다 - 기천탕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분은 윤량한의원 윤량원장이 개발 처방한 기천탕으로 치료하세요

기관지천식이란 천명을 수반하는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작적으로 일어났다가 잠시 계속된 뒤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되풀이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첫째는 기관지를 둘러싸고 있는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강하게 경련하여 수축되고 기관지의 내강은 좁아져 버리는 일입니다.
둘째는 기관지 안쪽의 점막이 염증으로 말미암아 비후되어서 내강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관지 점막으로부터 점조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불어나서 담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 기관지의 내강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 천연생약으로 연구 개발한 기천탕을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임상결과 많은 환자가 치료됐으며 복용 환자의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지천식을 상담하실분은 전화 및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기천탕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단, 지방은 전화상담만으로도 기천탕을 처방하여 보내드립니다.

윤량한의원 원장이 개발한 처방으로 기관지천식에서 해방되세요.
위의 천연생약으로 개발한 기천탕은 한의사와 상담후 처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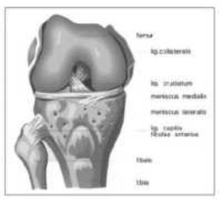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이런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Premium Selection

(주)청강월

미래를 여는 지혜가
더 큰 세상을 열어갑니다

남과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앞선 생각!**
새로운 시대에 변화할 수 있는 **열린 감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
(주) 청강월은 남과 다른 기준으로 큰 세상을 개척해 나갑니다.

Korean Traditional Wine
새로운 트렌드의 완성